

MAXIM

KOREA

**PUNK ROCK
PRINCESS**

**AVRIL
LAVIGNE**

**FBI 프로파일러와
연쇄 살인마의 승부**

ORAL SEX
그녀가 안 하는 이유

RISING STAR
한소아

**브라운
아이드 걸스**

축의금 안 내는 법

걸그룹 제이큐티
UFC 파이터 김동현
굽시니스트

MAXIM DIGITAL

인/아웃 도어 MUSIC GEAR
SEX 비디오 촬영 GEAR

LIE TO ME

당신을
속이는
여지친구

MAXIM MOTORS

SPARK vs MORNING #1
미쓰비스 아웃랜더 시승기
3월 시판차량 총정리



2011년 3월호
정가 5,400원

maxim PARTY
독자 100명을 초대합니다!
3/12 청담동
CLUB ANSWER
P.115



Isabelle Caro (1981~2010)

이시벨 카로는 프랑스의 패션모델이다. 극심한 다이어트 압박을 겪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미른 모델만 선호하는 패션계의 변화를 호소하였으나 2010년 11월 17일 자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했다.



MAXIM은 44사이즈 모델을 쓰지 않습니다.

MAXIM

84

AVRIL LAVIGNE

록의 요정 에이브릴 라빈이 화려한 돌싱이 되었다. 그리고 MAXIM을 찾아와 가슴을 내밀었다.

30 오렐 섹스에 대한 그녀들의 생각

당신이 잡지를 뒤져 가장 먼저 찾아 읽을 기사겠지.

44 JQT

어디 감히 피카츄 따위를 뛰어난 JQT와 비교하고 있어. 건방지게 안 그래? "피카피카!"

52 한소아

그녀를 볼 때 (6)의 비투리아는 잠시 잊어줘도 괜찮다. 아니, 곧 잊게 될 거다.

76 ICON 김동현

한국산(産) 전기충격기 김동현이 MAXIM 표지를 장식했다. 수컷이라면 UFC에서 거창한 5연승을 기록 중인 이 파이더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

80 블러드 판타스틱

당신 몸에서 피를 보았니? 막 굴리면 몸이 드디어 날아 보다는 신화다. 부디 최악의 케이스만은 피하길 바란다.

90 BORN TO ROCK

록의 황무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밴드 콕카스틴. 더 문 사이너스, 티버코러스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친구들 정말 물건이다.

104 FBI 프로파일러 존 더글라스

연쇄 살인마를 쫓는데 일생을 바친 베테랑 수사관의 이야기.

110 특수부대 X-FILE

우리나라에도 레알 특수부대가 있다. 외국 부대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특수부대들 전격 공개한다.

133 BRAZILIAN BEAUTIES

지난 달 브라질 만민부에서 보낸 뽀글린타인데이 선물. 비키니를 입은 모델 3인의 화려한...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

The Luminox Navy SEAL's No. 3083, 44 mm, carbon reinforced polymer injection molded case, crown protection,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carbon reinforced case back, signature black PU strap, 2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루미nox 판매처

코리아텍 노원점 (주) 밀리마켓(주) (02)757-9866, A/S센터(주) 102)735-9880, www.milimwatch.co.kr

지역별 판매처: 본점 (주)루미nox(주) 02-772-3181 / 판매처: 부산점 (주)루미nox(주) 031-909-3181 / 판매처: 대구점 (주)루미nox(주) 053-660-3122 / 판매처: 인천광역시 (주)루미nox(주) 051-678-4039
특수점: 강원 (주)루미nox(주) 02-3424-0193 / 전북 (주)루미nox(주) 02-211-1120 / 강원 (주)루미nox(주) 02-3424-7073 / 광주 (주)루미nox(주) 1588-8796 / 충북 (주)루미nox(주) 02-731-2927 / 대구 (주)루미nox(주) 02-2399-7521 / 서울 (주)루미nox(주) 02-211-1120 / 서울 (주)루미nox(주) 02-418-5600 / 인천 (주)루미nox(주) 02-545-2897 / 충청남도 (주)루미nox(주) 02-911-0334 / 충청북도 (주)루미nox(주) 02-265-5251 / 서울 (주)루미nox(주) 02-652-8367 / 서울 (주)루미nox(주) 02-2212-2688 / 서울 (주)루미nox(주) 02-711-7033 / 서울 (주)루미nox(주) 02-717-7033 / 서울 (주)루미nox(주) 02-742-0114 / 서울 (주)루미nox(주) 02-741-9478 / 서울 (주)루미nox(주) 02-620-0000 / 서울 (주)루미nox(주) 02-221-4997 / 강원 (주)루미nox(주) 033-1944 / 강원 (주)루미nox(주) 031-441-0158 / 강원 (주)루미nox(주) 031-446-1014 / 인천 (주)루미nox(주) 032-662-2026 / 인천 (주)루미nox(주) 032-450-3866 / 인천 (주)루미nox(주) 032-578-2002 / 인천 (주)루미nox(주) 042-482-2328 / 인천 (주)루미nox(주) 042-601-2284 / 대구 (주)루미nox(주) 053-265-6942 / 인천 (주)루미nox(주) 041-564-5865 / 인천 (주)루미nox(주) 063-289-3592 / 전북 (주)루미nox(주) 056-542-8521 / 부산 (주)루미nox(주) 051-285-1220 / 부산 (주)루미nox(주) 051-786-6112

97

브라운 아이드 걸스

MAXIM이 제아와 미로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는데 성공했다. 상 안 된?



Departments

10 MAXIM INSIDE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제1편!
작가/ 굿시니스트
화보 촬영 때면 늘 중형무선 압구정을 휘젓고 다
닌는 MAXIM 패셔님 전격 공개

18 CIRCUS MAXIMUS

요즘 당신은 어떻게 자라는가. 메이저 카페와 페
티시 클럽, 거짓말하는 여자친구 족치는 법, 후
원지피이 독점 인터뷰, 결혼 속의금 안내는 법,
원스키 라벨 읽는 법

35 RATED

올해 그레이 어워드의 진면목, 공포증 가득한 무
대 공연, 장차비가 말하는 섹스보다 자위가 좋은
이유, 2011년 온라인 게임 성적표

48 SPORTS

2011년 프로야구 시즌 전망 1탄, 믿거나 말거나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역전

56 STUFF

귀를 즐겁게 해줄 뮤직 기어, 섹스 비디오 촬영
을 위해 필요한 것들, 당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운동용 제품 대공개

66 MOTOR

BMW 콘셉트 차 양산 선언, MAXIM이 구매해
본 스파크와 모닝, 미쓰비시 아웃랜더 시승기
LEXUS의 실수, 2011년 3월 공식 시판차량 리
스트

114 IN DA CLUB

초콜릿 세례를 피부어 주었던 섹시한 누님들, 화
이트 데이트도 부탁해요!

116 STYLE

신학기 필수품 백팩, 남자의 가족, 2011년 헤어
트렌드와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헤어 용품, 신발
끈으로 밧 내기, 작은 키를 극복하는 스타일링,
독자 스타일 상담소, 비즈니스 구두





FX 채널 번호
과월호 받기

일본섹시스포츠중계3

JAPANESE SEXY BIKINI SPORTS

더 커친 그녀들이
더 세계 흔들린다!

3/7(월) 밤12시 첫방송



H
카와무라 안나

D
나즈메 리오

B
하라 아미

C
마즈모토 미야코

E
스기우라 미즈키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e channel SCREEN PSON CINIF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MAXIM

KOREA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해성

권무이사 김광선 / 이사 양지웅 / 이사 황재민 / 이사 소상혁

EDITORIAL

수석에디터 차장 이해영	yt@maximkorea.net
에디터 차장 고경희	koko@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aximkorea.net
대리 김상현	psycho@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k@maximkorea.net
사원 황희성	alice@maximkorea.net
이사신편트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조유림	new@maximkorea.net

DESIGN

디자인어 주원 장지민	doldoll@maximkorea.net
사원 장미연	berrymee@maximkorea.net
사원 이은학	eastlocust@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이사 소상혁	so@maximkorea.net
과장 진우빈	woobin@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최민정	joy@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대리 김종국	jk@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k@maximkorea.net
대리 홍솔희	soulmate@maximkorea.net

WEB SERVICE

웹장 사정민	oreis1@town.com
--------	-----------------

사진 ARC STUDIO

교열 신성정 kshin011@daum.net

인쇄 · 인쇄본에 (주)삼화인쇄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7-10 인쇄민 유성근

유통 송주승/류유홍



발행처 (주)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1년 9월호 정권 제호 / 등록일자 2009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 KOREA는 세계 20개국 편집부에서 발행하고 20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엘미디어 그룹은 2009년 1월 29일과 대한민국 (R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R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엘미디어 그룹과 에이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지인 엘미디어 그룹과 (주)R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옮겨 볼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 (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ISK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M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남자의 피부는 비즈니스다

그의 비즈니스 아이템, 맨즈 클래식 더블 이펙트 비비크림



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미백 기능성 화장품]
칙칙한 피부를 맑고 환하게.



트러블 방지

미용도 주름없이 보루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bum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ACTIVE YOUTH OF STYLISH SKIN

행복하고 여유있는 삶과 성공에 대한 열정을 가진 당신에게 제안하는 세 all about style, 유니섹수열의 진정한 그루밍을 Men's Classic 이 지원합니다.

MAXIM INSIDE

분별미가 있는 독자는 눈치 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이번호부터 잡지 결모양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뭐지? 아는 사람? 모서리에 잡지의 동상 호수가 표시되는 부분을 보면 문구가 하나 추가되었다. '93번째 MAXIM'이다. 나를 포함한 예전 발행시테어부터 같이 일을 했던 몇몇 선배 에디터들이 지난 몇 달간 회사에 출가하게 주장한 결과다. 비록 조그마한 글씨지만 의미가 크다.

2008년 우연한 기회에 에디터가 되었고 지금은 MAXIM 편집부 생활 4년차에 접어들었다. 중간에 발행처가 바뀌면서 선배들을 좇아 새 직장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생각만 해프닝도 겪었다. MAXIM 또한 다시 1호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같은 잡지라도 발행처가 바뀌면 호수를 다시 '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법규상의 이유' 때문이다.

그간 새로 RESET된 호수를 보며 적잖이 마음이 불편했다. 잠을 잊고 책상 옆에서 푸르려 자며 한 달 한 달 만들었던 8호까지의 MAXIMO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 같았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그마한 숫자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93'이라는 숫자에는 MAXIMO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독자들하고 함께한 웃음과 애환이 녹아있다. 곧 100호 발행을 앞둔 MAXIM의 전통이 깃든 숫자다.

MAXIM과 함께 독자들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예전엔 '부모님' 몰래 구독하는 독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미누라' 몰래 구독하는 독자들이 많다. 정기구독자 주소는 '군부대'에서 '직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독자들이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물기 힘든 일러마에 빠지게 된다. 변함없이 젊고, 무모하고, 풀기 넘치는 잡지로 남을 것인지. '어른' 독자들의 관심사를 다루는 잡지가 될지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항상 절름은 '변함없이 젊고 유쾌한 MAXIM'이다. 안 그래도 돈에, 직장 상사에, 말린 식구에 어깨가 무거워지고 웃음을 잃어갈 독자들에게 우리까지 딱딱하고 무겁게 굴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어른이 되어도 당신이 MAXIM을 찾는 이유라고 우리 굳게 믿는다. 척척하고 암울한 얘기들은 시사지나 경제지에 맡겨 두고 우리 우리의 걸 길을 가자겠다.

꽤 나이를 먹어버린 MAXIMO지만 실제로는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이뤘다. 그리고 지금도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다. MAXIMO 나이를 먹어도 계속 '최소'하는 이유다. 지난달엔 편집부에 90년생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 제 나이 먹는 것도 모르고 90년생은 청소년인 줄만 알았던 거다. 그리고 여자가. 하하~

93번째 MAXIM 출발!

MAXIM 피쳐 에디터 유승민




역사는 흐른다



JQT-민정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낸 민정



JQT-민선
진정한 베이비걸녀의 표본 민선



JQT-가린
특별한 모습이 무척 귀여운 가린



JQT-지은
연세나 미소를 잊지 않는 스마일 퀸 지은



한소아
(X)의 빅토리아보다 훨씬 예쁜 상아송라이터



브라이언-미로
지금껏 숨겨온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내라



브라이언-제아
완벽한 오지니! 강한 성격 귀엽기까지!

스타의 사인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 1 MAXIM 3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 3개를 골른다.
- 3 자신의 블로그(이나홈페이지 또는 트위터에 "MAXIM 3월호 기사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 4 [블로그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진 글 적은 메일주소]를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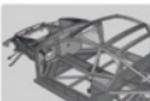
당첨자는 MAXIM 4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의 행운은 서울 대형 서점을 방문해서 2월호 4권을 추가 구매한 열병 야구관 지송철 독자에게 돌아간다. 그녀의 사진은 MAXIM에서 우연으로 봐 줄 테니 걱정 풀고서 미래 그-저자나 MAXIMO 보유현 폴라로이드 사진을 노리는 이들의 행복(?)이 거세다고 있다. 편집부는 이런 함박에 골리지 않았다. 당상을 하라기게만 만드는 그녀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다면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라! 딱치는 시간까지 아끼기며 노력한 사람이야말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질 자격이 있다. 알겠나? 명심해라 명심해라!



Drift Your Soul **SPIRRA**



이드업
 스피라는 티볼을 뺀 한 세이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티볼을 위한 언더 엔진기가 차체의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 엔진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줍니다. 높은 한계속도와 세밀한 핸들링 및 직박한 언더스티로 공력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피라에게 티볼을 세이퍼로 채택한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앞뒤 차량에 적용하는 윈도 크로크 구조가 아닌, 센터와 양측의 스페이스프레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무게 증가 및 비동적 강성이 뛰어난 장점 스포츠카에 적용하는 데에 적합합니다.



카본 비드
 스피라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카본 비드입니다. 카본 비드는 탄소강을 가공하여 합성된 우수한 기술에 카본계 사용자는 신드입니다. 일단 강도에 비해 가볍고, 내충격성, 내열성이 뛰어나서 무게가 줄어 줍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5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가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麥心

보리의 마음

"맥심을 키운 건
8할이 패션이다."

로마 집정관
MAXIMUS SEXTUS



"패션이 없으면
맥심도 없다."

한국전쟁 영웅
MAXIMathur장군

그 패션팀을 영도하는
고경희 팀장님은
무한한 체력을
바탕으로-

웃을 내놔!

도, 도리
겪습니다



헝상받고



필요
없어

부악

벋기고

까악

헝상받고
벋기고

헝상받고
벋기고

까

벋기고

벋기고

벋기고

Yes맨인 김희성
에디터는 무한한
체력을 바탕으로-

입히고

양탈
부러지마오



입히고

입히고

조유림 어서는
무한한 체력을
바탕으로 -

치우고
정리하고

후

치우고
정리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통큰사람
선물세트
롯데마트
5000W



패션팀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이트데이 사탕을
배급중지해봤습니다.



순간적인 상황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어? 뭐야! 야 X발
발렌타인에 부린 게
얼만데!

화이트 데이를
FIGHT DAY로
해볼러?

평점럼 아줌마들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피



Letters

아, 지난달은 유난히 뜨거웠다. MAXIM 독자들은 2월호 커버 모델인 송지선, 김민아 아나운서에게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보냈다. 그녀들의 아름다움에 쓸데없는 개소리 써지르는 온라인 병신들의 욕감질이 난무했음에도, 그녀들은 우아하게 입장을 밝히고 다시 본연의 업무에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이에 MAXIM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하리라 다짐한다. 그 스타트로, 지난 2월호를 보고 보내는 독자들의 시연을 소개한다.



나리는 내가 지키겠어

군대 오니 병사들처럼 죽구에 열광하고, 맥심에 열광하게 된 올레로 27세 장교다. 맥심의 열혈팬들이 글을 쓰게 만드는 선물이 연극이라니, 이젠 솔로들에겐 영장질이며, 솔로 부대에 대한 정면 도전이네 맥심은 각성하란 매일 아근하는 것도 서러운데, 차라리 주말에 놀수 있는 클럽 표가 더 가치 있다. 다음 달을 기대해보겠다. 이 글이 실릴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맥심을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 정훈도서로 만드는 건 어떨지, 작년 한 해 사건 사고가 많아서 휴가 필리고, 우리 병사들 전화불통도 서럽게 울더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조종하 맥심을 간내는 일 뿐이었다. 올 한 해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나리는 군인이 지킬 테니, 맥심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라! 말사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니...^^ 날씨도 추운데 깔깔아 입어야겠다. -블루마린

MAXIM이 군 정훈도서 지정은 물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여자들이 주르르 모아 "나리가 부른다. 이놈들아" 리며 화보 촬영을 강제하고, 전국의 모든 인쇄소는 오직 MAXIM을 찍어내어 모든 군인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을 물량을 공급할 그날만을 우리 함께 기다려보요.



독자 시연 보내기

최혜연 품으로

1월호를 구하려고(술이 카페) 경기도 용인에서 화성시 경 남 진주. 다시 경기도 성남을 돌며 방방곡곡을 뒤졌지만 맥심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2월호를 구입하여 보나... 1월호는 술이 효과 때문이기에 유니크템이 돼버린 게로군. 오 이런 술은 일대기 있네 그레도 본인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술이 진주를 찾기 위해 흔적을 훑을 때처럼 갑니다. 그럼 본인은 2월호의 최혜연 씨 품으로...ㅋㅋㅋ -차기운산남자

술이 진주 찾아 바다에 빠진 많은 분들, 보십시오 술 아씨 캐버인 1월호 물량이 MAXIM 사무실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MAXIM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323-182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표류하시고 어여 좌표 찍고 오소서

핫바 먹을까?

신사동에서 B자동차 딜러십을 하고 있다. 맥심을 매일 사서 댄스에 이쁜 달연 미용살이랑 커피숍에 맥심이 깔려있는 걸 봤다. 맥심에서 간 간가 아니면 그 기계에서 사서 놓는 건가? 어느 쪽이든 머리를 진짜 잘 쓴 거 같다. 앞으로 난 무조건 그 미용살에서 머리를 깎기로 했으니까 만날 두껍고 재미없는 패션인데 짜증났는데 이젠 미용살에서 맥심 보는 것까지 좀 많이 사다졌으면 좋겠다. 아마 곧 남자선님이 드롭도를 하겠다. 다들 거기서 보면 맥심만 팔리는 거 아닌가? 생각 잘 해라. 애독자의 진심어린 충고다. -신사동 핫바 자넨달부터 회사에서 MAXIM을 서용 -경기 변화가의 커피집이나 미용살 헬스클럽 등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판매가 줄어드는 모르지만 독자연이 자넨달과 비교가 안될 만큼 많아져서 MAXIM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어졌지요. 우리도 걱정하지 않는 편에 감소를 걱정해 주시다면 감동입니다. 그나저나 낙연님이 핫바러나... 설마 당신의 그것이 핫바 같다는 뜻인가요? 맛도 모양도, 크기도, 영양도?



아근한데, 남지현군

닥터의 살집 사랑

레지던트 1년차입니다. 흉부외과 선배가 놓고 간 맥심을 읽다가 피 같은 수면시간을 날렸어요. 응급실에서 졸기라도 하면 책임질 겁이... 그러니까 44시간도 모임을 쓰지 않았더니 선구적이에요. 저도 미련 여자분도 뻔뻔한 게 좋아요. 원래 뚱뚱하던 여인이 갈수록 밀라키요. 습기도 좋아졌어요. 맥심 에디터는 좋겠어요. 매일 터질 듯한 여자만 만날 텐데 미련 추구 에디터 없으면 정말 비뚤어요. -godot 내일부터부터 내 의요. -에디터 김상민 남이 뚱뚱한 여자기 좋다고 밝혔음에도 살을 계속 뺀다면 아마 뺀 자에게 잘 보일라는 걸 거요. 그 자신은 미련 결 불어하는 반대였는데 그 자식 때문에 식욕도 포기한 걸 보니 이미 잘 깨닫지간 사이군요. 아마 관계 중에도 당신 여친의 몸 구석구석을 지켜봐서 살을 빼라고 디그치고 있겠죠. 복수의 시간이 왔소. 맥심 -에디터 유승민 MAXIM 편집장에서 의학 전문 에디터로 발탁되셨. 대신 앞으로 평생 절단. 해부, 생형 등 선혈이 남지하고 두드리기가 돕는 가시란 쓰셔야 합니다. -에디터 이영비



아마 내가 어떻게 생각지?

당첨

Leg By 에디터 yb

Maxim 사시기 페이지를 보고 아주 멋진 다리가 나오기에 도대체 모델이 누군가 했는데, 'leg by 에디터 yb' 라니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잡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에디터의 노력에 감동했으며, 과거 인터넷 시절 탈모 사술 크라를 몸소 실천했던 유승민 에디터를 뛰어넘는 바람직한 자세다. 그나저나 여태껏 메인 모델들의 아련한 의상 협찬 중에 '에디터 소정' 의 그 에디터가 이영비 에디터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다! (중략) P.S. 저도 세도 모르게 잡지 가격이 500원 올라 컴플레인하려고 했으나 yb 에디터의 살신성인 자세에 분노가 다 사라졌다. -림

그물망에 갇힌 저의 다리를 무사히 자연에 내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해당 기사의 담당 에디터 유승민 씨는 무척 추웠던 한 겨울, 저의 살신성인 자세를 보며 허덕거리며 저의 '살생살인' 의 마음을 끌어냈습니다. 아팠거나 이 모든 영광을 저의 각신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육성을 오랜 기간 하라고 독려하신 저의 부모님과 MAXIM의 사전을 촬영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포토 스튜디오 사장님과 스태프에게 돌립니다. 500원 어치의 기쁨을 주는 다리의 소유자, 에디터 이영비 올림.



500원만 줘.

WHAT? MAXIM?

우리가 아직도 커피로 보이나?

가회가 필요한 사람들.

MAXIM 트위터



MAXIM 트위터에서 브라운 화보 촬영 모습을 본 한 회원 사정



지식in

제목: 맥심이 워포기어론스리온 친구 내용: 수유원들 '어론스리온 친구' 50와-함상의 한국 맥심에서 맥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지? -남편은 맥심은 커피입니다.

평생 동정



엄마, 저 신부가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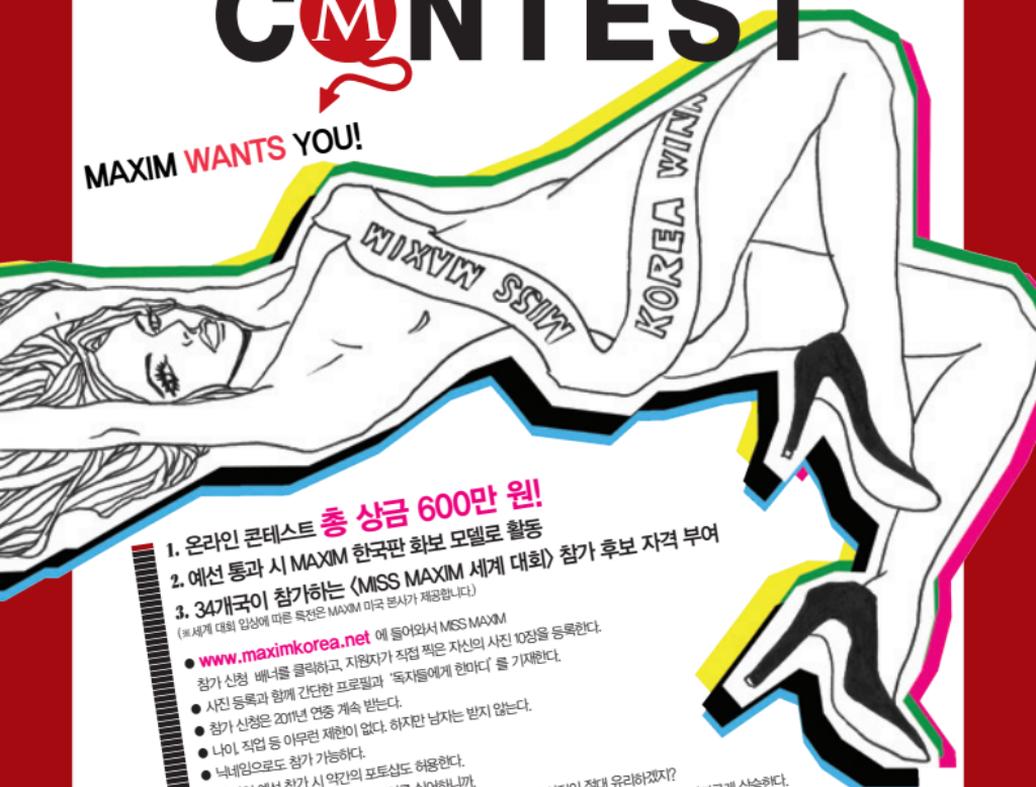
수험 때문에 미쳤구나!

(사연 생략 사진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우리 '지구 열망까지' 여자를 못 사줄 것 같은 절망을 느끼며 밤샘 풀림하다. 몸살이 났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아쁘다며 면역력 올려주는 뜬을 따주고 게 시는 장면 아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다 겪고입니다. 잘 들으세요, MAXIM에 남지 못한 몸 찍어 보내면 평생 동정입니다!

2011

MISS MAXIM[👑] CONTEST

MAXIM WANTS YOU!



1. 온라인 콘테스트 총 상금 600만 원!
2. 예선 통과 시 MAXIM 한국판 화보 모델로 활동
3. 34개국이 참가하는 <MISS MAXIM 세계 대회> 참가 후보 자격 부여

(※세계 대회 입상에 따른 특전은 MAXIM 마크 본사가 제공합니다.)

- www.maximkorea.net 에 들어가서 MISS MAXIM 참가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지원자가 직접 찍은 자신의 사진 10장을 등록한다.
- 사진 등록과 함께 간단한 프로필과 '독자들에게 한마디'를 기재한다.
- 참가 신청은 2011년 연중 계속 받는다.
-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는다.
- 닉네임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 온라인 예선 참가 시 약간의 포토샵도 허용한다.
- 통통해도 좋다. MAXIM은 밀라겐이를 싫어하니까.
- 온라인 예선은 MAXIM 독자들의 호응에 따라 결정되니 섹시한 사진이 잘대 유리하겠지?
- 대회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소정의 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금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 매회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소정의 상금 10만 원 (www.maximkorea.net) 참조.
-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 참조.
 - 흥진 MISS MAXIM 세계대회 입상자는 뉴욕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특전을 누렸다. 당선에게도 기회가 있다
 - 예선 통과가 안 돼도 다른 사진으로 다시 참가할 수있다.



www.maximkorea.net
GOGO!!

BEAT THIS CAPTION

오늘 밤
죽어줄게



1 이 순간 무슨 말을 했을까?
여기에 어울리는
센스 있는 말풍선을 달아보자.

2 응오는 우편번호 12-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caption@maximkorea.net 또는 QR 코드를 스캔한 후 댓글을 달아라. 마감은 3월 11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니 부지런히 움직일 것.

3 답당 예대타가 '부위쿠~' 하는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맨즈클래식 토닝 로션 개수를 쓰겠다! 판단은 MAXIMI 할 테니 딱치고 일단 캡션부터 달아라. 일겠네!

이게 정말 최선이었나?



AND LOSERS...

→ 인형 말고 살아 있는 게 필요해. -윤성림
정말 '살아 있는 것'이었다면 당신은 평생 할한 신세였을 거다. 다행인 줄 알아. 이겼어~

→ 왜 그날야근과 미리 믿음 못해. 믿음~뉘욱이 당신 같은데 말하겠나? 캡션과 너네임의 콤비네이션 피라사시 하고는!

→ 마이 로리피용~생리 타졌다능~! -후후오빠
오대야! 아~리든 이렇게 쓰기도 어렵겠다. 더러운 로리피후 생략!!

→ 이 사람이 저한테 켜 캐러하고 친도연입니다. -김영석
팩이네 그게 자랑이야?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웃웃.

→ 나의 플레이를 건질 수 있는 말이 필요해 -오윤석

→ 그런 플레이를 건질 수 있는 돌은 없거든

→ 지금 애가 나오려 하잖아~ -김세원
후. 세상 살기 힘들지? 그래도든 기운내라.



LAST MONTH'S WINNER



이번 달은 상상하진 않았지만 제 1차제(대리윤?) 캡션을 써지른 응오씨가 많았다. MAXIM은 결코 로리피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색시란 여성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엔 굳이 꼬꼬마를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그보다 이따의 관심은 다소 과격할 것으로 선정했다. 예컨대! 취맥을 사랑하는 MAXIM 편집부로서는 전용대 독자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풀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취맥의 자명 뒤 집짐을 빼앗아간 사림에게는 피의 복수를 할이 마땅하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과격함보다는 MAXIM다운 유머가 돋보일만한 멋진 말풍선을 보내달라. 중복 응오도 가능한다! 이 정도 수준은 너무 하잖아! 라는 사람 일지도 생각해주시는 매너 좋은 MAXIM 독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어!! 이번 배때기 속에 오늘 먹으려고 아껴 놓은 차킨이 들어 있던 말이야!" -전용대

Janty™

OVALE™



BRAND NEW
STYLE

편하게, 더욱 간편하게 스마트한 전자담배를 즐겨라!

OVALE eGo-T™



OVALE™

Experience the Tank System.

OVALE eGo-T™

※위 사진 속의 파우치와 액상은 별매품입니다.



<http://www.ovalekorea.com>

경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대상 자재의 건강을 해칩니다.
간접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 타르, 벤젠, 비닐코롤라이드, 벡스, 카드뮴 등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 H : 10mg, M : 11mg, L : 6mg



오벨 코리아

SHRIMP CRACKER

새우 왕국에 대한 도전



새우 왕국 농심에 걸려 도전장을 던진 자가 있다. 바로 웨이퍼이다. 새우 왕국의 대장 새우왕에 대적하자는 버거였던 걸까? 일새우칩이 그나마 믿만하고 새우파에서 가장 약해 보였는지 이 녀석을 상대로 골라잡았다. 작형 또한 일새우칩을 가늘게 '맛세우칩'! 이긴 정면 선전모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0

농심 새우



나 찾았어?



일새우칩

팝핑하고 진한 맛이다.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극강의 맛을 발휘하며 최고의 맥주 안주가 된다.



일새우칩

기포가 많이 들어가서 더 바삭바삭하다. 맛은 좋게 말하면 담백하고 나쁘게 말하면 심상찮다. 웨이퍼의 주특기인 1H 행사로 돌아온 승산은 있다.

그나저나 농심은 대체 새우와 무슨 관계인 걸까?

가설1. 새우 사업에 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
가설2. 여자들을 납치해 새우같이 배에 태우고 평생 새우만 잡게 한다.
가설3. 사장이 새우다.

본지에만 털어놓는 '후렌치파이 혼자된 사연'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문득 입을 열었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이원하

이제 한계!



아흥흥~ 자기야. 끈적끈적해~

행복하던 시절의 후렌치파이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상심이 크겠다.

모든 건 해체와 때문이다. 한 봉지에 같이 들어있을 때만 해도 모든 건 좋았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똑하면 우리 봉지 안에서 엉켜붙었고, 사람들이 때어 놓으려고 해도 우리 함께 떨어지지 않았다.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그렇다. 한 봉지에 같이 있을 땐 내가 물설 틈 없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떠 놀음 만날 틈이 없었다. 그런데 각 봉지를 쓰면서 뭔가 달라졌다.

잠자리 문제일까?

나도 과거인데 매일 하더라도 부스럼질 수 밖에 없다. 항상 뜨겁게 서로를 탐닉하다 보니 몸이 약해져 갔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녀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다시 한 봉지를 쓰기 위해 10인정 서명운동들을 벌일 거다.

가능하다고 보나?

물론이다. 전국의 후렌치파이 한 번 안 먹어 본 사람 있나? 내 팬이 천만이다.



후렌치파이 서명운동 참여

YOU TOO?

후렌치파이 먹는 법

이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때때 한번쯤 해봤잖아?



점 먼저 손가락으로 찌러먹었던 유형은 인내가 부족하여 분봉만 강한 '조심모사'형 인간. 그러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타입.



주변 과자를 먼저 들어먹었나? 이러 한 유형은 '에도 먼저 맛자'형의 연모이다. 나중의 성공과 관행을 위해 오늘 고생하고, 잘하는 타입이다.



더럽다. 정말. 잘먹이 강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나 주변에서는 당신을 편집증 환자, 도둑증 환자, 싸이코라고 부를 거다.



아흑



맛맛맛



맛맛맛



이렇게 붙어있어



먼저 나잡게



010-9701-0200, 02-555-0000

우리들의 퍼즐액션게임, 액션퍼즐패밀리4

다이나믹한 10가지 퍼즐액션게임들!
귀엽고 개성 강한 캐릭터!
150개의 도전모드, 30초모드!
친구들과 경쟁하는 친구 랭킹 시스템!

액션~
퍼즐
패밀리4

Family.com2us.com

메이드 카페

짤막 체험기



우리나라 메이드 카페는 주인님만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약했다.

같이 탈까? 밥 뭐든지 셋 술에 예뻐프긴 합는 법이지.

BY 갈상민 PHOTOGRAPHS BY ABC STUDIOS COOPERATION 이소이 070-4804-6319





1 본격적인 메이드 카페가 입구에 들어서니 해맑은 웃음으로 우렁찬 메이드 여성들이 에디터를 맞이했다. 기대했던 것만큼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그녀들의 메이드 복장은 몇 달 동안 돌돌이를 빙안한 수컷의 마음을 '이억키' 하고 달아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들은 메이드 복장에 대한 어색함이나 불편함은 없는 듯 보였다. 그동안 코스프레를 즐기며 다양한 의상을 소화한 경험 덕분이었다.

메이드 카페지만 메뉴는 일반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메이드가 따라주는 출처에 맞춘 케이크 한 점을 가져왔던 에디터로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일본의 메이드 카페에서는 주문을 받을 때 손배례가 주인공. 오후 등 호칭을 어떻게 부를 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이곳은 그런 것 따윈 없었다. 메이드 카페를 찾는 손님은 메이드가 나를 주인공으로 때려몰아 주길 원한다. 손님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줘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2% 부족했다.



2

남자 집사라고 쓰고 재팬인이라고 읽는디도 눈에 띄었다. 여자인가 뭐든 가라 읽었는데 만화 <흑집사>의 코스프레를 한 남자가 카운터를 지켰다. 여자 손님이 왔을 때를 대비한 포석으로 보였다. 하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지현 우 스타일의 훈남은 아니었다. 뭔가 슬펐.

3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니 메이드가 집사를 건넰다. 커피 맛은 평범하니 사방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이곳을 찾았나더니 후회할지도 모른다. 메이드가 근처에 온 김에 손님도 앉으니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빠가기를 날렸지만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곳은 바처럼 술을 파는 곳이 아니기에 알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였다. 대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진 촬영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역시 메이드 카페는 눈요기를 위한 장소일 뿐 메이드와 러브러브 모드로 넘어가면 쉽지 않았다. 물론 단상이 빠구기 날라기의 대가리엔 예기는 달랐다.

결론: 이곳은 엄밀히 따지면 메이드 카페가 아니라 메이드복을 입은 여성이 일하는 카페다. 메이드 카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진정한 메이드가 건넨다는 차를 마시며 일상의 피로를 푸는 일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실제로는 나이 지긋한 중년남이 자신을 향해 밝게 웃어주는 그녀들을 보며 낙담한 시간을 보내는 게 목격됐다.

추천: 열혈 공대생, 여자 미소 빌립 없는 오빠술로, 그리고 메이드복 마니아



일본의 메이드 카페

일본 덕후의 성지인 아키하바라에는 많은 메이드 카페가 있다. 하지만 일본도 업소마다 서비스는 제각기라 해서 '주인님' 또는 '오빠'라고 불려주지 않는 곳이 종종 있다. 메이드의 열혈이 해맑은 웃음과 비싸게 보들 앞만 메이드의 2~3배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음식보다는 메이드의 몸대 서비스 포인드로서 음식 맛은 부차적이다. 업소에서 메이드는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스튬 톤이랑 쓰고 옷이 좋더라는 코스튬이 워낙 다양해서 알뜰하다. 그러나 애니 덕후인 당신이라면 상반대로 험악한 말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혼자 카페를 방문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 근로 남자가 메이드 복장을 입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메이드 카페 방문은 곧 덕후 인증이기에 출입에 나름 용기가 필요한 곳이다.

DIRTY FANTASY

REAL FETISH CLUB

스타킹만 보면 달라지거나 개처럼 할고 무비 무비하고 싶나? 그런 당신을 노리는 업소가 바로 페티시클럽이다.

Fantasy

페티시는 신체의 특정 부위 또는 특정 상황에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걸 말한다. 단상이 코믹과 스타킹만 생각해도 골반하면 그쪽 명면의 페티시 성향이 있는 거다. 상단 경우에는 남이 찍을 때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찍을 때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코믹을 읽거나 스타킹을 신은 채로 찍을 때는 여자가 읽나? 스타킹? 이런 수컷들을 상대로는 업소가 페티시클럽이다.

Exercise

일단 찍을 때는 건 금지다. 대신 다양한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다. 스타킹 신은 여자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DDR을 칠 수도 있고, 책상 밑에서 여자 다리를 흔들며 수도 있다. 특정 신체부위를 채다만 볼 수도 있다. 남자가 복장을 바꿔 입고 역할 놀이를 즐기거나 복리는 벗고 찍는다. 누굴까? 누굴까? 총치백이 화려할수록 느끼는 상급 변태를 위해 인기 플레이를 보여보이는 방까지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한층 더 딱 최근 하트한 업소는 여자끼리의 플레이 관련된 물론 밀도 아예를 시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To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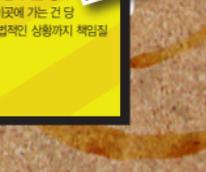
이곳이 아니라 무려런 BBO 후라이드 치킨 30리가 하늘로 사라진다. 요구하는 서비스에 따라 추가 요금도 붙는다. 그곳에 일거리는 여자를 터치하는 건 가능하지만 과한 스킨십은 불가하다. 과도하게 흥분하면 여자도 병정기를 휘두르다가 퇴장 당한다.

Identity

페티시 성향을 주변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거나,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없어 좌절하는 수컷들이 주요 고객이다. 우리 일생에서는 그저 '변태'들이다. 성적 능력의 서서히 감퇴하는 30대 이상의 남자들은 물론 젊은 남자가 자주 찾는 데 이들 대부분이 저급히 열광한 허우데는 사상이 놀란다.

SH.it

물론 업소를 떠나서 이런 업소에 방문한다 보면 단상은 영혼은 별다른 미안하다. 소위 말하는 대량치환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행위라는 생생한 사실이다. 이곳에 가는 건 당신 지류가 아니라 이후 벌어질 비싼 가격의 체험을 강요하는 하는 게 중요하다.





축의금 안내는 법

축의금 조의금 별 걱정 이제 끝이다. 축의금/조의금 상품권이 탄생했으니 이제 맘대로들 결혼하고 맘대로들 죽어라. by 유은민

정정할 바야흐로 결혼 시즌이다. 내가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릴 날은 요원하지만, 어쩌이리 먼 연봉들은 암수완쌍이 되어 창첩정을 돌리고 자릴인고, 카드청구서보다도 더 지긋지긋한 이놈의 결혼 소식. 그대는 어떠한가? 이미 3월말 달력에 표시된 결혼식만도 서너 건이라고? 축의금으로 나감 돈만 해도 3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서 MAXIM이 준비했다. 축의금을 대신할 확! 적인 상품권을 발행하는 바이다. 이 유가증권이 널리 사랑을 이롭게 하길 바란다.



절단선

축의금 상품권

귀하의 결혼을 상당히 축하합니다.

50,000 ₩

(金 五萬원 정)

본 권을 제시한 이에게 식권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축의금 조의금 별은 본 권은 상가 금액의 축의금과 같으며, 수취인은 타인의 결혼식에서 본 권을 축의금 대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권 이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뒷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XIM KOREA

유효기간 2013년 2월 28일



절단선

조의금 상품권

고인의 죽음을 원천 예보합니다.

50,000 ₩

(金 五萬원 정)

본 권을 상가 금액의 조의금과 같으며, 수취인은 본 권 별은 후 타인의 장례식장에서 본 권을 조의금 대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MAXIM KOREA

유효기간 2013년 2월 28일

〈절단하여 사용하십시오〉

결혼식장 축의금 천태만상

어차피 사람이
남의 돈을
빌려주고



- 1.** 곡 결혼식날 지갑 안 가져왔더라 축의금 내게 좀 빌라달라는 녀석 이 있다. 안 그래도 누구 결혼식이나 있어야 얼굴 보는 녀석이 대체 언제 갈아려고? 이런 녀석일 수록 빌린 돈에 대한 기억력이 나쁘다.
- 2.** 아예 결혼식장도 안 가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못가니 일단 내 축의금도 같이 좀 내줘 내 가 곧 보내줄게 하는 녀석도 있다. 물론 잘 잡지 않는다.

● SOLUTION

"어 그제 비싼데 못 쓸 수도 있지 일단 네 것 까지 날 태우까 나중에 입금해줘" 대신 내긴 될 내? 나중에 입금해주면 그냥 명류지

- 3.** 식장에서 내가 축의금 내고 식권 받을 때 갑자기 옆에 와서 '식권 한 장만 더 받아 달라' 고 하는 녀석도 있다.

● SOLUTION

"두 장 드려요?"
"아닙니다. 한 장만 주세요
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 4.** 어떤 결혼식장에선 축의금을 내면 즉시 봉투에서 돈을 꺼내어 돈 박스에 따로 넣는다. 생색을 내야 했기에 축의금 봉투에 이름까지 또박또박 써서 넣는데도 돈을 넣을 뻔해서 돈 박스에 따로 넣는다. '이,이봐, 그러면 내가 열이를 넣는지 알 수가 없잖아!'

● SOLUTION

죽어버린다.

- 5.** 요새 좀 잘나가는 김에 과시 좀 해보고 20만 원쯤 넣는다. 생색을 내야 했기에 축의금 봉투에 이름까지 또박또박 써서 넣는데도 돈을 넣을 뻔해서 돈 박스에 따로 넣는다. '이,이봐, 그러면 내가 열이를 넣는지 알 수가 없잖아!'

● SOLUTION

'방명록에 쓴다.
'김덕배 20만 원'

이용 시 참고사항

- 본 상품권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상품권을 낸 후 "나는 3만 원만 빌 생각이나 2만 원을 거슬러 달라" 따위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서야.
- 본 권은 소지한 이에게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분실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본 권 파손시 제발행되지 않으나 파손된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을 시 재발행 될지도 모릅니다.
- 본 상품권은 영통 시책시장이나 상품권 판매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본 상품권을 시책시장에 팔 때, 시책장가 이차시가 전가됨에 시정을 걸면 있는 할것 도망치십시오.
- 본 상품권은 결혼식장에서만 축의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소의금 상품권은 결혼식 축의금 용도로 사용되는 한, 재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본 상품권은 현금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본 권 제시 후 파면하는 인건관계에 대해 책임은 창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 시 참고사항

- 본 상품권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상품권을 낸 후 "나는 3만 원만 빌 생각이나 2만 원을 거슬러 달라" 따위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서야.
- 본 권은 소지한 이에게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분실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본 권 파손시 제발행되지 않으나 파손된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을 시 재발행 될지도 모릅니다.
- 본 상품권은 영통 시책시장이나 상품권 판매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본 상품권을 시책시장에 팔 때, 시책장가 이차시가 전가됨에 시정을 걸면 있는 할것 도망치십시오.
- 본 상품권은 장폐시장에서만 조의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소의금 상품권은 장폐시 조의금 용도로 사용되는 한, 재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본 상품권은 현금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본 권 제시 후 파면하는 인건관계에 대해 책임은 창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 앱스토어에서 '맥심', 'MAXIM' 을 검색하세요!



3월 1일 대망의 출시!

iPad에서 동영상, 고화질 화보를
화려한 인터랙티브 기능과
시원한 화면으로 즐겨라!

iPad

iPhone에서 하나의 통합된
App으로 MAXIM을 만나러
무료 과월호가 짹짹할 거다

iPhone

그간 MAXIM 아이폰, 아이패드 버전의 출시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MAXIM이 줄 수 있는 답변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었다.

미국 애플사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검수 지연과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오류들을 모두 바로 잡느라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제 드디어 최적의 iPad/iPhone MAXIM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간의 기다림은 많은 무료 과월호로 보상하겠으니 잊지 말고 찾아봐주길 앱스토어에서 'MAXIM' 또는 '맥심' 을 찾으시라.

오는 3월 1일, 유려스 누나를 그리며 살며시 MAXIM을 열어보자. 아젠 잡스 형도 우릴 미치 못한다!

스카치 위스키 라벨 읽는 법

알아야 더 맛있는 건 술직히 뻔이다. 어차피 취하면 개 되고, 개가 되면 입에 달는 게 물인지 술인지 여자 입술인지도 모르니 말이다. 하지만 허세를 약간 부려야 술자리가 더 즐거운 건 사실이다. 비싼 양주 마시면서 라벨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음, 이 건 말이야..."로 시작하는 절난 체 좀 해보자.

BY 이상예
COOPERATIONS 펠릭스
라카 푸리아(탈리아인) 팔란크
렌트비엔노스, 푸리아(탈리아), 글
렌피디



브랜드 고유의 문장

브랜드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사람, 깃발 뒤 그런 걸 놓여 만든 상징 한미로 맛부린 거다. 스카치 위스키의 문장치고 빗방개 빠진 그림은 없다. 호전적인 표정이들아라 그런가?

EST

'설립했다'는 뜻의 ESTABLISHED를 줄인 말. ESTD 또는 ESTABLISHED라고도 표기한다. 죽 발렌타인 병 라벨의 ESTD 1827은 발렌타인이 1827년에 시작했다는 의미. 맥캘란은 ESTD 1824, 글렌피디는 ESTD 1887라고 표기되어 있다.

SINGLE MALT SCOTCH WHISKY

오직 하나의 증류소에서 만들어진 몰트 스카치 위스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싱글 몰트 위스키의 수요가 급증했다. 요즘 다들 먹고살 만할까 봐? 국내에도 이미 많은 증류의 싱글 몰트 위스키가 들어와 있다. 글렌피디, 글렌리벳, 맥캘란, 발베니, 싱글몰트, 라르르인, 다들 참에 이런 거 몇 병씩은 있었어요?

DISTILLED, MATURED AND BOTTLED AT...

어디서 증류하고, 숙성하고, 병입했다는 걸 나타낸다. 해당 증류소의 이름과 지역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셀카양프강 물에 중국산 남꽃계를 갈아서 증류해 만든 술을 인도 갠지스 강 주변 목욕탕에서 쓰는 나무통에서 3일 숙성하고, 한국에 가져와 구제적 소 생매장한 술을 양념으로 쳐서 만든 건 아닐 테니까.

18 YEARS OLD, AGED 30 YEARS...

숙성 기간을 표기한다. 발렌타인 같은 발렌타인 위스키의 숙성 연도는 가장 어린 몰트의 나이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각각 30년, 20년 숙성된 위스키를 섞어 만든 발렌타인 위스키는 그 숙성 기간을 25년으로 표기한다.

증류한 원액은 각각의 통에 담기는데, 통에는 숙성을 시작 한 연도를 적는다. 숙성 연도는 무척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64년 된 맥캘란 1병이 약 5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 연도가 잘못 적혔더라면 5억은커녕 5만 2천 원에 팔렸을지도 모른다.



영문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좀 길다

심중발구는 위스키의 맛에 대한 설명이다. RARE, FINE, EXTRAORDINARY, XR 같은 특 별하고 고급스러운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 더 이상 보이면 RAREST, FINEST 정도는 써 줘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초콜릿, 캐러멜, 꿀, 과일 이름 등의 초당 수준 단어는 당도에 게 이 위스키의 맛을 짐작케 한다. 추기로 어떤 통에서 숙성시켰는지의 정보도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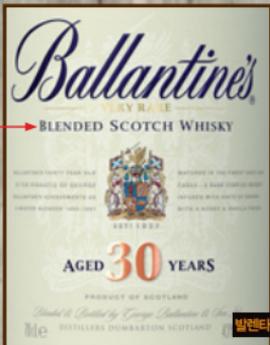
PRODUCT OF SCOTLAND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었다는 뜻. 폭의 레전드 로드 스튜어트와 명배우 소 콘래드, 성기에 통통 잘 되는 남성용 체크무니 차미와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특산품이 바로 스카치 위스키다. 스카치(테이프...는 아닌?)

43%, 50.4% 등의 퍼센티지

제2금공권 대를 글리와 비슷한... 스카치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 백분율로 표기한다. 대출 글리라고 생각하냐 아찔하지? 술도 쉽게 적당히 차미시켜, 그러다 죽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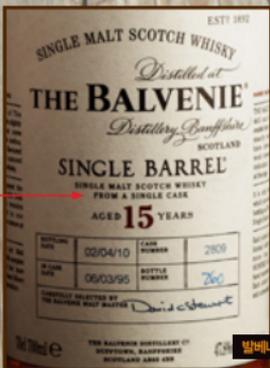
글렌피디



발렌타인

● BLENDED SCOTCH WHISKY

한국 이상의 증류소에서 만든 스카치 위스키를 섞은 위스키. 잘 섞는다는 말만 하면 도제능을 쓰는 시미이 있는데, 위스키의 블렌딩은 개뿔 외에 모든 누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다. 세계적 주류 업체 시그림의 창업자 새뮤얼 브라운은 "증류는 과학, 블렌딩은 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블렌딩은 위스키의 맛을 깨어나게 하고 품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폭탄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발베니

● SINGLE CASK

하나의 통에서 숙성된 스카치만 모아 담은 위스키 싱글 배럴(Single Barrel)이라고도 한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나 하나의 통이 만드는 개성 강한 위스키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보통 해당 증류소 플러트 마스터의 실제 서명, 통 번호(Cask Number), 병 번호(Bottle Number), 병입 날짜와 숙성 시작일을 병에 적는다.

● 글렌피딕

개리어로 글렌은 "골짜기", 피딕은 "사슴"이라는 뜻. 차원별 블렌딩 위스키에 고급 싱글몰트 위스키를 공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스카이아일랜드 지역에 글렌피딕 증류소를 설립한 찰리엄 크렌은, 100% 몰트 위스키 판매에 중점을 두길 거라 믿고 세계 최초로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을 만들었다. 싱글몰트 중 유일하게 증류와 숙성, 병입까지 한 곳에서 생산된다. 글렌피딕 18년에서는 뒤굴한 나무, 열대 과일, 말린 과일 등의 맛과 향이 느껴진다.

이 맛에 내가 이 첫 향일래!

글렌피딕의 자료 사진이다. 아무리 봐도 술창고 따는 정도도 같은데 말이지...

● 발베니

전 제작 과정을 100%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몰트를 뒤집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짐 채우기'에서 온통하는 듯하여 몰트저장장을 '발베니 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베니 싱글 배럴 15년은 하나의 버전 오크통에서 나온 알코올을 담는데, 한 통에서 최대 350병까지만 생산된다. 각각의 병에 붙은 라벨엔 오크 통과 병의 고유 일련 번호, 병입 일자 등이 표시됐다. 잘 말린 오크통 오크 말고, 잘 바닐라 등이 풍부하고 섬세한 맛 특징.

술이나 저마시.

위스키 장인 중엔 반복된 작업으로 어깨가 아로니 힘 일랑 '몽키 술더'가 있는데, 글렌피딕과 발베니를 만드는 찰리엄 크렌트 앤 산즈에선 그들의 노고를 차용하는 의미로 트러플 몰트 위스키 '몽키 술더'를 출시하기도 했다.



● 발렌타인

북서쪽에서 북태평양에 걸리는 일주의 대서양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의 품질을 지켜온 마스터 블렌더는 발렌타인의 180여 년 역사 동안 4년 동안에 교체되어 가르침을 이어오고 있다. 발렌타인은 부드럽고 우아한 맛이 특징인데, 특히 발렌타인 30년은 바닐라와 달콤한 향이 강하고 더욱 부드럽다. 시한된 탄산수와 얼음을 넣어 하이볼로 만들면 초상치도 쉽게 위스키를 즐길 수 있다.

우리 엄마, 너네 엄마도 만났을 하이볼!



HIGHLAND

SCOTLAND SINGLE MALT SCOTCH WHISKY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지방에서 나온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는 뜻, 스코틀랜드의 스카이아일랜드 지역 중 하이랜드 지방은 미네랄워터 같은 보디감의 물을 그대로 위스키에 쓰는 것이 특징이다. 글렌피딕, 맥퀘언 등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HIGHLAND SINGLE MALT SCOTCH WHISKY

ISLAY

SINGLE MALT SCOTCH WHISKY

스코틀랜드의 서남쪽 아일랜드 섬에서 만든 싱글 몰트 위스키 아일랜드의 일부에서 끌어올린 좋은 금속 맛이 느껴진다. 이곳에서 나는 보머는 특별한 향과 스모키함이 특징이다. 아드백은 세상에서 가장 개성 강한 위스키로 손꼽히는데, 훈재와 요모도 향, 그리고 핀맛이 느껴진다. 하이랜드 위스키에 술을 질러가고 있거나 모험심이 강한 사내라면 도전 해봐라. 에디티블 조드록 유행까지 경험하거나, 반응은 특 중 하나일 거다. 참고로 에디티블 병새만 알게 하고 육을 먹은 적이 있다.



Islay Single Malt Scotch Whisky

오럴섹스에 대한 여자들의 생각

질 나카다 당신의 아랫도리 앞에만 가면 '얼음'이 되는 건 왜일까.

BY 에디터 HS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에디터와 모토코리

▶ **한 연구에 따르면** 수컷 바퀴벌레도 성적 흥분을 느끼면 공수나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 분비물을 입안에 넣게 할 때 흥분이 최고조에 도달한다고 한다. 미물인 바퀴벌레도 삼입하는 차원이 다른 펠라치오의 즐거움을 아는데 당신의 매직스틱은 어떠한지.

▶ **오랄 섹스는 말 그대로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거다.** 좀 더 유식한 말로 입술이나 혀로 수컷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펠라치오', 입맛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콘닐링구스'라고 한다. 콘닐링구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남치니 이번 달엔 펠라치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갔다** 눈 맛은 남자가 풀이 어르는데 유정을 금히 해결해야 할 때 후딱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나 별밤람 실랑실랑 부는 게 절일수록 오랄 섹스가 더 구미가 당기는 법! 하지만 오랄 섹스에 관대한 여자가 그치지 않는다는데, 그녀들은 왜(도대체 왜) 수컷들의 아랫도리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는지 물어봤다.

못생겨서

그가 귀찮지 않나며 속 놀러진 풀들이를 바지속에서 꺼내 나한테 들어말았다. 까말고 못생긴 풀들이의 물골을 보니 차마 입 속에 넣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 아 사보...

K (30세, 대학강사)

냄새 때문에

렌티를 내왔는데 귀퀴하고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 그날 저녁에 먹었던 게 목구멍까지 차오른 적이 있다. 토할 것 같아서 달아오른 채하고 올라왔다.

C (23세, 카바리어)

맛이 없어서

핑핑핑핑 나오는 액체 맛이 비렸다. 고기 대신 아재를 잔뜩 먹었다. 맛이 좀 담백해진 것 같기도 하고, 흠.

Y (25세, 엔지니어)

지 흥오라고 아이스크림 핏맛이 싫어원래나 진짜 맛있는 줄 안다. 그거 다 너 흥오라고 하는 건가. 아이스크림이 이런 맛인 것인가.

H (22세, 유학생)

인정하게 싶겠지만 더럽고 냄새나고 생긴 게 불쾌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주니어를 입에 넣길 거부하는 여자들이 많다. 요놈이 알고 보면 참으로 신롱방똥한 녀석이지만 에디터도 처음으로 X을 눈앞에 마주했을 때는 살짝 충격을 받았다. 당신의 물건 크기를 예프킬라에 비유하던 'Mr. 예프킬라'의 것은 실제로 보니 작고 까맣다. 물론 지금은 눈에 익숙해져서 때론 귀여워 보일 때도 있지만 눈에 익기 전까진 그렇게 못생겨 보일 수가 없었다. 아마 그녀도 당신의 그것과 아직 덜 친해져서 입에 넣기가 망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내놓고 "왜 내 건 빨아주지 않느냐"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자들도 그 이유를 직접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녀가 당신의 풀뿔이 앞에서 인상을 찡그렸다면 아마도 위의 세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에 입으로 안 해주는 거라고 대중 눈치 까라.

아직 그녀와 당신의 풀뿔이가 서먹서먹한데 그녀의 얼굴 앞에 무작정 아랫도리를 들이치는 것은 그녀를 당황스럽게만 만들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



김아서

김아서 길면 끝까지 날아가 힘들다. 양치하는 것도 아 니고, 칫솔로 허뿌리까지 두드려 헹구어질 것 같은 기 분을 왜 그 순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다. 목구멍 가 득 들어간 욕봉에 숨이 막혀 콧물거리는 모습을 보며 상실 쓰게더라.

L (27세 배우)

EDITOR SAYS 입안에서 우뚝 불어터지듯 불어나 는 굵은 건 종지만 긴 건 영 별로다. 입에 넣을 때는 특히 더! 목구멍으로 자꾸 밀고 들어오는 매직스틱 은 헛구역질을 초래한다.

페니스가 자꾸 그녀의 목구멍을 찌르는 것 같다면 귀두의 방향을 뺨 쪽으로 살짝 틀어줘라. 이전 순 전하 그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불타는 상 상 이상으로 부드러워 딱딱한 입천장이 닿았을 때 오는 또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나를 쉬은 여자로 여겨줘

상대가 누구든 첫 번째 섹스에서는 절대 입으로 해주지 않는다. 나를 달고 달은 여자로 여겼지만 같다.

J (39세 리포터)

입으로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해줬다. 검은 자위 흰 자 위 뒤도물 뚫어줬더니 기뻐하는 소리가 뭐? 너 좀 놀았 니구? 이 생기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

S (27세 간호사)

EDITOR SAYS 그녀의 주둥이리가 문제다. 섹스와 과거를 연관시켜 가리면 친대 위에서 적극적인 기 념의 모습은 포기해야 한다. 그녀의 서비스도... 이 친 없는 거다. 섹스를 하고 난 후에는 그녀의 과거 사를 절대 캐묻지 마라.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를 그 녀의 과거를 듣는 것보단 두 번, 세 번 앞으로도 계 속 하는 게 더 낫잖아?

안성기

원천 촉 놀아진 걸 다짜고짜 입에 넣어달라고 하더라. 단단하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입에 넣고 있어야 하는 걸까.

P (28세 스타일리스트)

EDITOR SAYS 그의 톱풀이가 입안에서 크고 딱딱해 질 때면 뭘가 해줬다는 묘한 쾌감이 들려면 사용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단단해질 기 마가 보이지 않는 녀석을 입에 넣는 건 싫다. 누워 있는 이음을 세우려면 상당한 기술과 정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달래도 도저히 발뺌 일삼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 싫어서다. 남 자뿐 아니라 여자도 섹스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세 다. 왜 서지도 않는 걸 세우달라고 강요해? 그 녀의 몸 에는 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손으로 빌로 가슴 으로 톱풀이의 머리 부위가 그녀를 살짝 들 정도는 세 운 다음 그녀의 입속으로 가져가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디를 어떻게 빨아야 그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흥이 났을 땀과 말해주든가 소리라도 내줬으면 좋겠 다. 내가 헛수고하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K (25세 방송작가)

입에 넣고 사실 빨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좀 더 세계 하더라. 그래서 입에 힘을 주고 열심히 왕복 운동을 했더니 아프더라.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으면 도대체 왜 신기 하지?

P (23세 유학생)

EDITOR SAYS 오일 섹스 경험이 없는 여자들이 의외로 많다. 톱풀이를 입안에 넣긴 넣었는데 그다음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머뭇거리다 그냥 포기하는 경우. 자존심 때문에 초짜 티내기 싫어서 "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하기 싫다"는 말과 동격으로 쓰는 경 우 등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쳐주는 거다. 여자들은 때때로 파트너로부터 섹스에 대한 기쁨을 받길 원한다.

에디터도 초짜이던 시절이 있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그의 아랫도리를 입안에 넣고 베끼던 반복하고 있었는데 "사물을 입안에 넣고 굴러다니 해보라"고 그가 다양하 말했다. 얼마 안 가 그와 헤어졌지만 그가 가르쳐준 기술만이 지금도 잘 써먹고 있다. 그 래, 그렇게 하나씩 다들 좋아하더라.

그녀를 입에 얹혀놓고 이론만 주장장 살명하는 건 굴뚝이다. 친절한 과외 선생님과도 빙의하여 내친 김에 실습까지 가보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그녀의 에우를 받으면 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줄 때가 좋은지 동시에 설명해줘라. 굳이 말로 하기가 복잡하 고 조심스럽다면 신을 소리를 적절히 섞어 그녀로 하여금 '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줘라. 입안에 넣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러도 신음 소리 한 번 안 내면 괜 히 의기소침해지더라. 자연히 당신에게 서비스해주는 횟수도 줄겠지? 이런 말도 있지 않나. "칭찬은 헛바닥도 춤추게 한다"



MARCH 2011 MAXIM 31

결해주겠지만 그 순간을 좀 더 일찍 당당 가려면 일단 실례를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라. 맨 정성일 때보다는 알코올을 조금 흡 수한 상태가 당연히 성공률이 높을 테고, 약간 말말말한 상태에서 당신이 먼저 그 녀의 몸 곳곳을 정성스럽게 애무한 다음 은근슬쩍 그녀를 아래로 보내라. 한껏 달 아오른 그녀는 당신의 아랫도리에 자연스 레 입을 갖다 대게 될 거다. 여자는 분위 기에 약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 에도 잊지 말 것. 그런데도 그녀가 머뭇거리던 '씻었을 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다. 집에서 나 오기 직전 샤워를 하고 나왔더라도 그녀 는 못 봤으니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거다. 일단 M에 도착하면 샤워실로 직행해 그 녀가 보는 앞에서 톱풀이에 묻은 물기를 털탈 털어줘라.

이런 이유도 있다.

병에 걸릴까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교과서에 나왔던 사진이 자주 떠오른다. 내 입에 물린 걸은 게 생각엔 어때?

L (20세 대학생)

초침이 때문에

그에게 입은 하지 않았지만 남친이 나와 관계하기 전에 항상 초침을 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별 상관없었거나 싫어 하를 갖다 했는데 뭔가 심쓰러한 것이 있다. 잠시 후 입안이 얼얼해지더니 마비증상이 왔다. 그럴 땐 꼭요면 씻고 잊어주세요

S (34세 스포츠 운동)

턱이 아파서

턱관절이 어떤 질환과 평소에도 오ջ은 같은 딱딱한 음식을 잘 못 먹는데때문에 딱딱한 건 아니니까. 그의 삼켰을 입에 넣을 때도 단단한 것이 필요하다. 한번은 둘 다 다이어트라 평소보다 격렬하게 애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턱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입이 안 다물어졌다. 너무 창피해서 그 뒤로 오할 섹스는 자제하고 있다.

L (27세 와인바 운영)

교정기 때문에

아직 치아 교정이 덜 끝났는데 분위기가 이렇어 입으로 하게 됐다. 입을 크게 벌리다 그런 창사가 빠져버린다.

P (22세 대학생)

EDITOR SAYS 이처럼 오일섹스가 꺼려지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자들은 '파트너가 원하니까 참고 한다' 고 했다. 그녀의 펠라치오에는 어느 정도의 봉사 정신도 뒷받침 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나 당신도 그녀를 위해 더 많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해하지 말아야 할 건 펠라치오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다. 당신의 록 튀어나온 아랫도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굴지 말고 그녀가 당신의 아랫도리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 오일섹스는 몇 번 힘을 맞춰본 다음에 시도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다. 당신의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그녀가 먼저 당신의 아랫도리에 키스 세례를 퍼부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먹일까봐

입으로만 했는데 쌓 것 같고도 말했다. 피르로 딸더니 뜨거운 액체를 분사했다. 입 안에! 더 기가 막힌 건 내 머리를 꼭 붙잡고 못 빼게 하고선 원지 않는 단박질 섹션을 시킨 거다. 뒤가습살은 우리 집에도 있거든?

K (33세 클럽스타)

무릎이 아파서

장시간 꿰어앉아 있다 보니 무릎이 시리고 아팠다. 서빙스를 무사히 마친 뒤 색사하게 침대로 옮겨가게 하는 타이밍에 그만 절뚝거려 침대로 아팠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린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L (23 휴학생)

EDITOR SAYS 살색동영상에서 그런 거 많이 봤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상태에서 정액을 입 안에 넣고 여자는 그것이 상수리도 되는 마냥 골격골격 받아 삼키는 장면 말이다. 그래서 정액에는 단 것이 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무슨 맛인지 늘 궁금했다. 하지만 주위의 증언을 들어보면 '진짜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 이라고 하라며 포기했다. 게다가 거대한 맥시틱이 입 안 가득 들어차 있는데 엄청난 양의 액체까지 삼키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 기도가 막히면 어떡하냐! 현실에서 그녀가 허여할만한 액체를 순순히 먹어줄 가능성? 글썄. 웬만큼 비위가 좋지 않고서야 힘들지 않을까? 만약 당신이 구리에 능하다면 정액 다이어트가 좋다고 이빨을 까보자. 여자는 다이어트라면 뒤로 먹잖아?

EDITOR SAYS 당신도 맨 바닥에 무릎을 대고 피스트 운동을 해봤다면 그 신인 아픔을 잘 알겠다.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려고 한다면 황급히 쿠션이나 베개를 가져다 줘라. 그녀가 자신의 무릎 밑에 스스로 쿠션을 깔기에는 좀 씩스러울 거 아닌가 당신의 배려에 감복한 그녀는 평소보다 열정적으로 당신의 품을이를 사랑해줄거다. 

이도 저도 아닌 것인데 그녀가 도무지 당신의 품을이를 입으로 가져가지 않거나 혹은 이동에서만큼 꼭 그렇게 그녀가 그럴 골격골격은 끝을 봐야만 직성이 풀려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 방법만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MAMA! 이번엔 시뮬레이션 한 번 도둑해 내니 잘따라와라. 우선 우측의 가슴을 질러선내 따라 질러라. 미리 입에두지만 오른쪽의 가슴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가슴을 질러 이쪽 한쪽 장지해내 보고 평안한채 그녀에게 보여줘라.



남성의 정액에 관한 최신 연구

최근 영국에서는 남성의 정액이 다이어트와 피부 마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학계와 의료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케임브리지 의과대학 교수진은 최근 3년에 걸친 연구와 임상 시험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임상 시험에 참가한 남녀 200쌍을 반으로 나누어 1년간 1실험군은 성관계 시 구강성교 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2실험군은 반대로 구강성교 행위를 금지했다. 1년 후의 검사에서 1실험군의 여성들은 2실험군의 여성에 비해 세포 텔로미어가 현저히 길어져 구강성교가 피부 및 신체 노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1실험군 중 피부 트러블을 겪던 여성은 증상이 완화되거나 완치되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인 것은 체중 및 체지방률의 변화 추이다. 2실험군(구강성교 금지) 여성이 평균 1.2파운드 정도의 체중 증가세를 보인 반면, 1실험군(구강성교 권장) 여성은 무려 1.5파운드 가량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 1실험군 중에 체중 감소가 없었던 여성 실험자의 경우도 대부분은 근육과 지방의 구성물에서 근육 비율이 증가하고 지방 비율이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1실험군(구강성교 권장) 여성 안에서도 개인별로 체중 감소 및 체지방률 개선에 높은 편차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구강성교 시 흡속으로 섭취하는 정액의 양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액에는 한 번 사정할 때마다 150mg의 단백질, 11mg의 탄수화물, 6mg의 지방, 3mg의 콜레스테롤, 그리고 사정량의 7%에 달하는 칼륨과 3%의 구리·이연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음식을 비유하면 완전식품이라 할 수 있는 뉴트리션이다. 이러한 성분은 1년 동안 꾸준히, 다량을 섭취한 여성은 별다른 운동 없이도 근살 없는 탄탄한 몸매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정액을 삼켰다고 밝힌 여성의 신체에서 더욱 현저한 체지방 감소도 보인 것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물론 운동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험을 주도한 볼 시트(Bowl Sheet) 박사는 "헬스나 조깅 같은 운동을 별도로 한 건 아니지만 갖은 성관계 및 구강성교 자체가 매우 큰 운동 효과를 준다. 섹스는 최고의 유산소운동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의료 학술지에 게재됨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앞다투어 이를 응용한 다이어트 약품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신약 개발은 주로 사람의 정액과 가장 성분이 비슷하고 부작용이 없는 고양이의 정액을 사용한 예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보호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신약의 가격은 1명(1000명)에 1,000파운드(약 180만 원)를 상회할 것으로 알려져 서민에게 널리 보급되는 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한 교수진은 "아무런 좋은 신약도 사람의 정액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WWW.MAXIMKOREA.NET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진정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MAXIM HIGH QUALITY
고화질 화보를 소장하라!



누네 집에 아가 있지?

수시로 타지는 홈페이지
이벤트와 마구마구
쏟아지는 선물 세례



시시한 자연풍경 비탕화면 따윈 개나 줘라.
MAXIM 월페이퍼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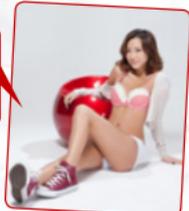
잡지 책에선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 컷과 기사 감상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연예인보다 색다른
MAXIM 여성 독자
모델들의 화보
플 버진 감상



- 2권 이상 무료 배송
-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maximkorea.net 으로 오라!

RATED

GRAMMY AWARDS

리한나와 드레이크의 무대
당신 가슴에도 불이 활활.



2011 GRAMMY AWARDS 그래미가 부러운 이유

아이고, 배아 BY 이영미



다비드레와 에이넬의 앙동 공연



Images Getty Images 3

2011 GRAMMY AWARDS 그라미가 부러운 이유



리한나... 이젠 버뮤더 바, 비극적 바보



나보고 드보자이래.
어제
어제

할머니를 포시고 온 노년 가수 케이티 페리



내가 바로
비극가세요

미야 아니고
가게



당도해습니다.
당도
미야니

레이디 가가의 요양비 입장



시아라의 레드카펫 쇼킹

스 티브 타이틀러링 스톤스와 비브와 스트라 이랜드, 밥 딜런이 무대를 장식하고 디터드 레와 에이미애이 활동 공연을 한다. 족내 나는 미스너 저스틴 비버와 색사남의 상징 이새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레이디 가가가 일을 까고 나오는 충격적인 박학가세 퍼포먼스를 귀여움과 색사남, 실력까지 갖 춘 리한나가 멋진 쇼를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라미 시상식에 매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자 아티스트들의 매력적인 치장 때문이다.

갈잡은 패션 관련 미디어에서 워스트 패션이나 패션 테라리스트니 써대는 건 그냥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즐겁고 자신감있고 넘치고 보는 사람도 호호하듯 되는 것 게다가 리한나가 그런 반이 무서워서 저렇게 예쁜 영입비를 풍공 싸며어 감추고 다닌다. 세상은 그녀의 영입비만큼 여유워질 거다.

‘숨막히는 뒤에 전문가’ 박성기라는 이름이 생각난다. 이름부터가 생기. 하여튼 세상 모든 사물과 생물에서 숨막히는 뒤에를 찾아내는 초능력을 지닌 그 기사는, 다행히 지금까지 질식사 안 하고 잘 살아 있다. 색사한 것 아찔한 것을 많이 봤고 간질이나 빠지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네. 우리나라 연예인은 유독 노출에 예민하다. MAXM이 연예인을 화보 모델로 섭외할 때 매너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노출’이다. 물론 그들이 여지나 아니든 정돈(해)하러나, MAXM 예디가 더 놀랄 정도로 짧고 뾰록 붙는 의상을 입고 TV에 나와 다리를

쭉팍 찢고 성행위에 가까운 몸부림을 치면서 MAXM 화보는 남성지라서, 이해서 안 된다고 거절하니 이 얼마나 아불성살인가. MAXM 화보에서 그렇게 찬박하고 아한 거 하시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할리우드, 뉴욕, 유럽의 새로운 트렌드라던 환경에서는 한국 연예인과 패션피플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영화제나 시상식의 레드카펫 분위기를 많이 바꾸었다. 가슴골이 조금만 노출되거나 등이 피고도 길이가 짧은 치마를 입으면 둘이라도 던질 것 같은 가식적인 분위기도 예전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들이 ‘아찔’과 ‘파격’으로 도배하고 ‘히의 실종’이니 ‘오인’중결자니 하는 유행어(종) 수식어를 달아주거나 우리나라의 레드카펫은 아직 뭔가 심심하다. 2011 그라미시상식에 등장한 사탕 아이스들을 보며 올해 연일 각종 시상식에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더 분발하길 바란다. (재)스 객슨이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퍼포먼스에서 갑자기 유두를 노출한 것처럼 될까봐 불안한가? 걱정 마,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불멸의 챔피언이 있었잖아

MAXM 화보에 등장한 역대 그라미 어워즈 수상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WINNERS

2011 그라미 어워드 수상자 명단

올해 그라미는 레이디를 선택했다.

- 올해의 앨범상 아카데미 파이더의 (The Suburbs)
- 올해의 레코딩스 레이디 앤터블럼의 Need You Now
- 최우수 팝 앨범상 에이미의 (Recovery)
- 최우수 록 솔로 퍼포먼스 에이미의 'Not Afraid'
- 신인상 에스페란자 스팅턴
- 올해의 노래상 레이디 앤터블럼의 'Need You Now'
- 최우수 컨트리 앨범상 레이디 앤터블럼의 'Need You Now'
- 최우수 팝/록 앨범상 레이디 가가의 (The Fame Monster)
- 최우수 록 앨범상 뮤즈의 (The Resistance)
- 최우수 여성 컨트리보컬상 미란다 램버트의 'The House That Built Me'
- 최우수 퍼포먼스상 트라비스의 'Hey, Soul Sister'
- 최우수 일렉트로닉 댄스 앨범 라 무의 (La Roux)
- 최우수 일렉트릭 앨범 존 레전드&쿠치의 (Wake Up!)
- 최우수 남성 팝 보컬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 최우수 솔로 록 보컬 퍼포먼스 폴 맥카티니의 'Water Street'

- 비욘세
- 리한나
- 레이디 가가
- 파가(블랙 아이드 피스트)
- ...등이 있다. 더 많은데 기억이 안 난다!



PHOBIA ON STAGE

연극이 미쳤어요!

무대 위에 펼쳐진 공포증 종합 선물 세트! BY 김민욱



운전 공포증

RANK
5

운전 도중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면 생기는 현상으로, 실제 정신과 환자 중 많은 이가 호소하는 증상이다. 아주 작은 계기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조수석에 앉은 비람둥이 남편을 죽이고 싶은 욕망을 느낀 주부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상상을 한 이후에 운전대만 잡으면 같은 상상이 떠올라 운전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의 삼식이나 교통사고 이후에 운전 공포증을 겪는다.



백지(白紙) 공포증

RANK
4

글을 써야 하는 이돌인 작가나 기자, 기고자 혹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포증이다. 자유롭게 써야만 하는 것도 하얀 종이만 마주하면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파며, 속이 메스껍고 구토까지 나는 무서운 병이다. 어린 시절 받아쓰기 때문에 울렁증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백지 공포증을 겪은 것이다. 연극 〈이트〉는 하얀 도화지 한 장으로 예산안이나 선거노정을 밝히는 내용이다. 백지 공포증 한 자리만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선단(先端) 공포증

RANK
3

말 선(先) 끝 단(端) 쉽게 이해 불가능한 것을 눈 뜨고 못 보는 공포증을 말한다. 주사바늘, 칼, 드라이버, 송곳은 물론이요 볼펜, 칫솔 등의 생활용품도 가까이 하지 못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 증상이 심한 여자는 당신의 물품들을 보여 불안 증세를 느낄 지도. 연극 〈닥터 이라부〉의 김철근은 조폭인 주재에 바로 선단 공포증을 앓는 환자다. 칼은 고사하고 물품이 트레킹도 불가능하니 이제 끝났어!

신(神) 공포증

귀신, 악마에 대한 공포증은 고대부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포증이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름을 외우기 힘든 많은 종류의 신들이 인간에게 자유를 걸어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는 내용뿐이다. 아누엔 신과 인간의 막대한 정도? 연극 〈오이디푸스〉의 오이디푸스는 이런 자유를 제대로 뒤집어 쓴 사례. 태양신의 저주에 따라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이고, 어머니와 근친을 벌이나, 일본 악의 막장 설정을 기호하 뛰어넘는다.



RANK
2

공포증(Phobia)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포보스(Phobos)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로, '과장된 공포'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심한 공포와 불안 감에 극심한 불안 증상을 보이는 병이다. (스키릿 거든)의 김주원은 엘리베이터 공포증이며, (노다데 칸타빌레)의 차키기 센베이는 비행 공포증 때문에 해외 유학을 포기한다. 〈영양정 몽크〉의 몽크는 강박증 중 인지 공포증을 심하게 앓는 환자다. 공연에서도 공포증은 인물과 인물의 단선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독특한 상황을 설정해 이야기의 재미를 극대화한다.

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

연제 오르본
어디서 상영이든음 1단
문의 02-501-7888

자수현의 동명 소설 〈내 이름은 김삼순〉이 원작으로, 이미 2006년 드라마로 만들어져 히트를 친 작품이다. 무한한 피라미드 심음에 상연한다. 이 무렵이고 엔비과와 100만 원 상금이 담긴 벨로카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다면 시간을 내도 좋을 듯하다.

연극 〈이트〉

연제 2011년 3월 30일까지
어디서 대원로 예술마당 3단
문의 02-764-8760

〈이트〉는 2004년 초연 이후, 캐스팅과 제작진이 바뀌어 다섯 번째 공연하고 있는 작품이다. 앙트와외의 2인 1역만 2인 1역에 가까운 그 리움 두고 규태, 수현, 민수가 벌이는 강릉으로 '정경현'에 출연한 무엇보다 기 대한 질문을 던진다. 어려운 주제지만 코미디로 풍자해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연극 〈닥터 이라부〉

연제 2011년 3월 29일까지
어디서 대원로 행복마당 3단
문의 02-747-2070

일흔 작가 오쿠다 헤데오의 〈공중그네〉, 〈인더블〉이 원작인 연극이다. 닥터 이라부의 연달 클라닉에 찾아오는 선단 공포증, 자의의 괴상, 지속 발기증의 환자들이 주는 재미와 이라부 박사의 글을 강타하는 차병이 웃음 포인트. 이라부가 담긴 소품과 관련한 장전 전람회도 지루할 틈없이 흥미를 유발한다. 가볍게 볼 수 있는 트랜드한 작품이다.

RANK



지속 발기증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웬지 부럽다. 발기 부전증과 정반대 증상을 겪는 지속 발기증은 주로 남성에게만 일어난 대증. 의학적으로는 품목에 집결한 혈액들이 정맥을 타고 빠져나가지 못해 생긴다. 〈닥터 이라부〉의 김삼순도 지속 발기증으로 병원을 찾은 축복을 받은 환자.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나!

자위가 섹스보다 좋은 이유

하늘에 게신 투팍 형님은 “어쨌든 여자도 딱 한 번 지겠다
시간과 돈을 낭비할 바에는 딸딸이 한 번 치고 맑은 정신에
간실적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적이죠. WORDS BY 장미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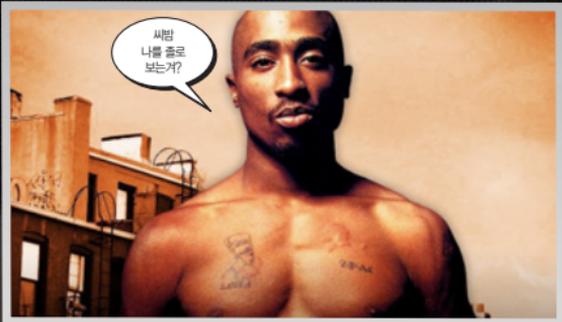
인터넷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필방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거다. 비니를 쓴 흑인은 손을 내젓고, 사진 밑에는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있다. 이 주옥같은 말을 남긴 주인공은 90년대 미국 서부 힙합의 제왕 투팍이다. 활발한 문외한이라도 한 번 들어봤을 법한 유명인이며 에이넵과 더불어 역사상 가장 많은 힙합 음반을 팔아 치운 스타 중의 스타다. 섹스와 폭력에 얽힌 사건으로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했을 정도로 거친 래퍼로도 유명했다.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그는 느닷없이 날아든 괴한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에 불과했다. 필방의 원본 인터뷰는 만 23세에 촬영된 것이다. 쇠도 씹어 먹을 열기왕성한 젊은 나이, 인기 절정의 스타, 미끈한 훗마를 연상시키는 멋진 몸을 가진 남자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도 하나 받지 못하는 루저 놈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 댄 구글의 유튜브노심의 도움을 빌려서 ‘투팍이 여자에게 말한다(Tupac Talks About Women)’ 라는 문장을 입력해라. 연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흑인의 영아가 그저 외계어처럼 들리는 명사를 위해 대략적인 내용을 물어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를 돈을 내는 봉이나 자기 뒤따라다니 해주는 줄로 여겨는 년을 아니 더 나이가 신보 상송의 도구, 아니 호구로 보는 잠편들처럼 놀아나지 마라. 그것들의 양내에 놀아나다 결국 감방에서 인생 중진 애크 많이 왔다. 정신 폭바로 차리고 거시기 바지춤에 넣어두고 잘 간수**

해라. 쓸데없이 싸들이다닐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말이나 한 번 잡고 정신 차려라.” 어떤가? 느낌이 확 오지 않나? 다른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내가 상처받았거나 여성 혐오자 라는 건 오해다. 나는 존중할 만한 자격이 있는 흑종인 여자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큰 보장이었을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자들이 내가 또 자마지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이다. 그년들은 누가 옆에서 “저 사람이 투팍이오?” 라고 귀찮게주면 안면을 급세 교체하는 가장스러운 계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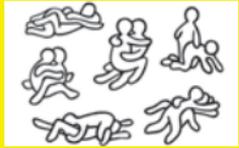


세상을 뒤엎은 투팍의 명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발아락을 화이트데이에 사탕 받아줄 여자가 없다고 애꿎은 세상 여자를 중용할 필요는 없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어찌피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일 확률이 크다. 카시 짜는 이벤트를 짜내느라 해를 굴리지 마라. 실랑 당아리에 뚫 모를 영아나 프랑스어를 휘갈 거 놓고 비싸게 파는 놈들에게 상상한 선지 같은 돈을 바릴 수도 없다. 그내외의 불확실한 락질이 그만 한 가치가 있는가? 투팍의 ‘내가 왜 집년 소릴 듣는 줄 아니?’(Wonder Why They Call U Bitch?)를 들으며 고민해봐라. 그래도 아리송 하다면 팬티 속 또 다른 당신의 무장을 잠시 해제한 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흔히 섹스를 '여자들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형상 하고 싶은 것은 아니며, 남자들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지위위위는 남자로 언제든 할 수 있다. 일본처럼 '사정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진 않았지만 초고속 인터넷망이 지배하는 우리나라는 당일 출시된 일본의 따끈한 야동을 바로 감상할 수 있는 '사정 선진국'이다. 열악한 사대를 관통한 우리 선배들은 오로지 사정을 위해 가족 물래 사건을 짚어서 화장실에 달려가는 결단력, 원피스 사진 한 장을 보기 위해 몇 분을 기다리던 인내력, 완성된 작품을 버벅대는 프린터로 인쇄하며 후대에게 물려주는 차질함까지 갖춰야 했다. 그에 비하면 당시 돌풍이던 열마나 풍요로운 사대를 살아갈 수 있는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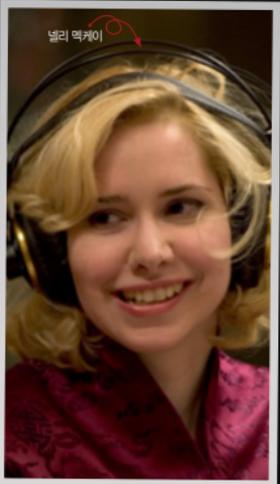


물론 지위가 섹스를 대체할 순 없다. 남녀의 한계 전후 행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100% 재현할 수도 없다. 대신 지위만의 장점은 존재한다. 남자의 경우 사정 직후의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진다. 이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다면 시간 대비 효율이 대폭발할 거다. 여자도 딱을 칠 때는 여자의 쾌감이 찾아질 때까지 계속 부둥켜안고 으르러 날라야 했던 아까운 시간이 말이다! 그러나 지위가 끝난 후 찾아진 정신을 활용하여 잉여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인이 사용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재생 목록에 야동과 당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함께 올려두면 되니 어려운 일도 아니다. 미국 비영리재단 TED의 강연 정도면 발사 후 맑은 정신으로 감상하기에 그야말로 베스트 강자다.



일단 TED 영상의 러닝타임은 길지 않다. 돌풍이 감속한 곳의 천연 광천수를 길게 낸 치킨 몸으로 장거리 주행을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10~20분 남짓 한 TED의 명강이라면 10cc의 정액이 빠져나간 당산의 허전함을 교양으로 채우기 적당할 거다. 이곳엔 화제를 대표하는 스타 학자, 노벨상 수상자, 열고이나 보는 같은 유명인사 등이 출현한다. 이들 중 벨리 메케이의 강연은 당시 마음에 쏙 들 거다. 팝 재즈 가수인 그녀가 아이작을 결집인 미니 콘서트 영상이다. TED의 모토인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란 말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퍼포먼스임은 두 번 설명할 입 이쁘니 일단 보고 해! 하자.

TED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이름을 입력하라. 한글 자막을 지원하지 않거라. 자막을 필요도 없다.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못된 편견을 유쾌하면서도 기묘하게 조롱 조롱 비꼬는 '진주의 열매(Mother Of Pearl)'나 복제인간을 둘러싼 일련의 소동을 배려 템포로 스케치한 '콜론(Orrin)' 같은 곡에서 드러나는 재기 절망함은 보는 내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할 거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순간은 벨리 메케이가 이를 좇아 죽은 자신의 강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다. 그녀는 소중한 존재를 잃은 여자에게 찾아오는 녹록한 샌더넬리기에 빠지지 않는다. 빈래동물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노래한다. 이런 여자야말로 투박이 예리한 '준중반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여자'다. 훌륭한 여자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려면 사랑 바꾸기를 단져줘야 겨우 유지되는 시시한 연예계에 시간을 끌 시키는 없다. 단지 섹스가 하고 싶은 거라면 그냥 말 한 번 잡고 말라. 남는 시간에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스스로를 길고 닳는 편이 당신에게는 더 도움이 될 거다. 돌풍이든 지적 수준이든 워든지 같고 뒤따라 나중에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법 아니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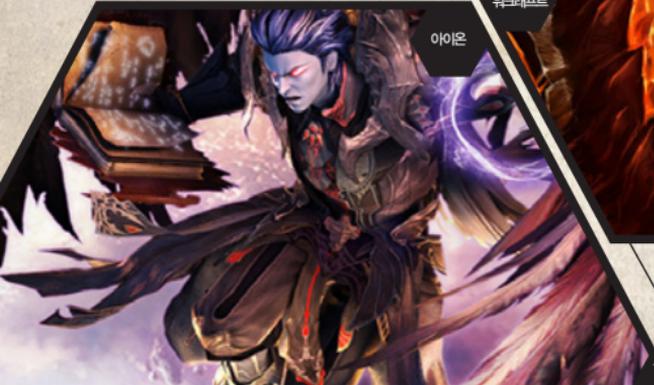
온라인 게임 성적표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임들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와우, 테라, 아이온 3인방을 능가할 녀석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고로 지금을 기준으로 이들의 성적표를 한 번 매겨봤다. by 리상민



테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이온



게임성성 보라기



장르: MMORPG 제작/유통: 블루홀 스튜디오 NHN(한게임)

서비스 날짜: 2011년 1월 25일

한게임이 내놓은 화상계 (테라)는 압도적인 그래픽과 프리 타겟 전투 시스템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지난 1월부터 유저들의 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첫날 접속자가 16만 명 이후로도 평균 5~6만 명의 접속자수를 꾸준히 유지했으니 상용화는 '일단 성공'이란 평이다. 이에 고무된 한게임은 올해 (테라)로 최소 8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거라고 호기롭게 밝혔다. 하지만 한게임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게임 수입을 정으로 여는 미연의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테라) 역시 '첫 꽃잎이 개 꽃밭'이 될 확률이 높다. 벌써부터 유저들이 '유료 베테타'가 된 것 같다'는 불만을사를 늘어놓고 있으니 말이다.

GOOD 최고의 그래픽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테라)의 그래픽은 게임 전용으로 나온 콘솔 게임을 압살할 정도다. PS3의 (마일스 판타지) 시리즈를 온라인 게임으로 옮겼다면 오버캐치된 아중급한 콘솔 게임과는 비교를 불허한다. 중간 정도 옵션을 선택해도 (오우)를 비롯한 여타 온라인 게임을 관망시킬 수준이다. 요구하는 컴퓨터 사양이 높지도 않다. 인텔 6 CPU, 램 4GB, 지포스 260GT 그래픽 카드 정도면 갖춰도 무난히 돌릴 수 있다. 게임 스크린 샷 하나하나가 일러스트처럼 보일 정도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프리 타겟팅 전투 시스템 호불호가 갈리지만 다른 온라인 게임의 전투 방식과 명확히 구분된다. 온라인 게임을 처음 접하는 유저들은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몬스터 타겟팅, 조작 방법 등을 익혀야 보면 게임의 흥미도 반감된다. (테라)의 프리 타겟팅 전투 시스템일뿐 아니라 프리 타겟팅 전투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몬스터가 필드에 있으면 공격하면 그뿐이고, 몬스터의 공격 역시 피하면 그만이다. 액션 게임이나 액션 RPG처럼 눈에 보이는 타겟과 전투를 하기 때문에 유저의 컨트롤이 더욱 중요하다. PSP의 맵솔 게임 (몬스터 헌터)처럼 장비빨이 좋아도 컨트롤이 하절하면 골로 가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을 편이다. 파티 플레이에서 재미는 배가 된다. 혼자서는 칼집도 못 잡아넣을 몬스터를 유저들이 때로 때려 써는 쾌감은 꽤나 쓸만할 편이다.

트리아 자유 같은 슬로 플레이 제이무리 강타하라도 계속 먹다 치다보면 질리기 마련이다. 하물며 게임 속에서 동일한 퀘스트를 반복한다고 생각해보라. 아무리 뛰어난 그래픽을 차별했다고 해도 끝 보기 싫어진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다. (테라)가 지니고 있는 파티 플레이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하더라도 슬로 퀘스트 반복이 꼭 끊어지지 슬로잉을 즐기기가 힘들다. 결국 유저는 애초에 파티원을 찾거나, 혼자서 진행 가능한 퀘스트를 반복해서 그만큼의 경험치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라이트 유저의 불만이 폭발한다. 짬 내어 게임을 즐기려는데 파티 찾는다고 시간(2) 다 가고, 파티를 구하기가 힘들다 비슷비슷한 퀘스트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전쟁 유저가 무슨 모르פות인 줄 아나? 슬로 퀘스트를 대륙 놀리거나, 파티 전용 퀘스트를 심플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테라)는 얼마 수순을 밟게 될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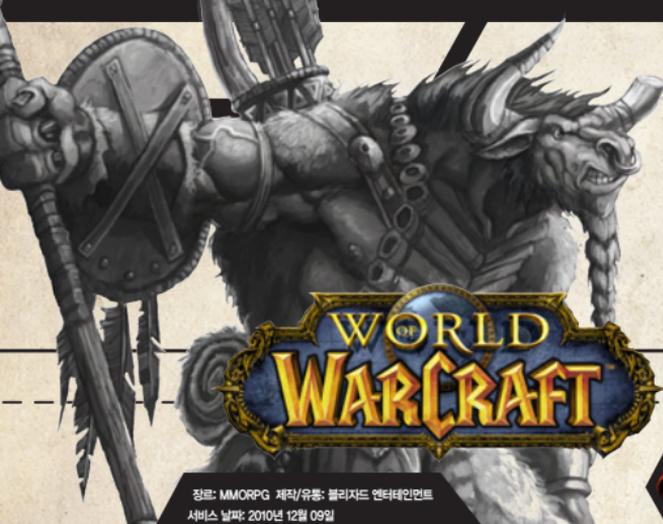
그놈이 그놈! 돈을 차버는 티가 딱히 나는 압도적인 그래픽을 문체 상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다 배경 세에만 쏟아 부었는지 게임에서 만나는 몬스터의 생김새가 다 거기서 거기다. 게임을 시작할 때 처음 마주한 몬스터 중간 레벨 이상에서 만나는 몬스터가 똑같이 생겼단 말이다. 다른 거라고는 몬스터의 이름과 아주 소소한 장식뿐이다. 심지어 최상위인 스테이션 단정의 몬스터까지 사정은 마찬가지니 이젠 도가 저지러다. 물론 콘텐트 업데이트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유저에게 돈을 받아먹는다면 이 정도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최소 2~3개월은 게임에서 새 세로움을 접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테라) 아들은 새를 가는 개를... 매번 보던 놈이 지겨워서 게임을 접고 싶을 정도다.

그 외에도... 온라인 게임 유저가 바자런히 퀘스트를 수행하고, 인스턴스 단정 플레이에 만족하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다. 유저끼리 확률하게 전투를 벌이거나, 레벨 정도는 서로사문화게 줄길 수 있 게끔 준비했어야 했다. 그래서 유저가 콘텐트를 즐기는 동안 게임 업데이트할 시간을 벌 수 있는 법이다. (테라)는 일단 돈부터 벌고 싶고 그때부터 콘텐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직관적 밸런스도 엉망이고, 근거리와원거리 직업군의 상성도 맞지 않는다. 벌써부터 결제를 환불하려는 유저의 한숨이 여까지 들러온다.

추천
- 화려한 그래픽을 좋아하며 아주 잠깐 온라인 게임을 즐긴 사람
- (플레이드&소울)과 (디아블로3)로 넘어가기 전에 할 게임이 없는 사람

비평: 그래픽은 훌륭하고, 전투는 재미도 있다. 하지만 길이가 아직 짧다.





WORLD OF WARCRAFT



장르: MMORPG 제작/유통: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날짜: 2010년 12월 09일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온라인 게임 (외우)가 또다시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리치왕의 분노)에 이은 이번 확장팩 (대격변)은 사실상 게임 자체를 리뉴얼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리치왕이 몰락한 후 신연의 틈에서 부활한 데스윙이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대격변)은 출시 한 달 만에 470만 장 이상 팔아치우며 PC 게임 1개월 판매 기록도 갈아치웠다. 온라인 게임인 주제에 어지간한 콘솔 게임을 뛰어넘는 화면 연출, 그리고 방대한 세계관을 자랑하기에 오늘날 외우자들은 모너터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GOOD

씩 들어고친 콘텐츠 (대격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지역과 퀘스트를 모조리 뜯어 고쳤다든 거다. 데스윙이라는 맛간 용이 아저르스를 침략하면서 와우 세계가 대격변한 모습을 유저가 온몸으로 느끼게 해 준다. 덕분에 유저는 리치왕이 맥심신 당한 이후의 상황을 필드에서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스토리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레벨 80 이상의 유저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 길리아스, 울드 등의 지역을 오픈하면서 새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고의 몰입도

지난 확장팩부터 도입된 와우의 위상 변화 시스템은 (대격변)에서도 유효하다. 유저가 게임의 퀘스트를 진행하면 유저 사선에 맞춰 환경이 유기적으로 변한다. 한마디로 콘솔 RPG 게임을 진행하는 듯 편집된 화면에 적절한 동영상을 삽입하여 유저의 게임 몰입도를 더욱 높인 셈이다. 실제로 이런 재미 때문에 (외우)는 스토리를 이해하고 즐기기에 퀘스트를 수행하는 유저가 많다. 그저 레벨 업이나 돈을 벌기 위해 퀘스트를 주구장창 반복하는 다른 게임과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이다.

BAD

패적해진 게임 진행 경험치 보상이 대폭 늘어났다. (외우)는 만렙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렙부터 즐길 수 있는 모험거리가 넘쳐난다. 만렙이 끝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위해 출발점인 셈이다. 하지만 와우 역시 출시된 지 꽤 된 게임이라 자렘 유저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들이 빨리 레벨을 올려 게임의 참 재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경험치를 후하게 주는 시스템으로 바꾼 거다. 단전 찾기 기능으로 파티원 구하기도 쉬워졌고, 연계 퀘스트를 단전에서 받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대폭 줄었다. 오리지널 유저가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면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다.

레이드 위주의 게임 방식 (외우)의 참재미는 대규모 전투인 레이드에서 맛볼 수 있다는 데가 있지만, 그런데 게임 자체가 지나치게 레이드 중심이다 보니 유저간 대결에서 종종, 직업별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추천

- '오래된 게임도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 게임의 스토리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스토리를 알기 위해 퀘스트를 수행하는 사람
- 솔로링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

별점

아직까지 (외우)만큼 탄탄한 스토리가 펼쳐주는 온라인 게임은 없다.





AION

THE TOWER OF ETERNITY



장르: MMORPG 제작/유통: 엔씨 소프트
서비스 날짜: 2008년 11월 11일

《테라》의 등장으로 비록 긴장한 아이온은 부라부라 '2.5 주신의 부름'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그래픽 업그레이드 신공까지 사용했지만 《테라》의 프락서니를 본다면 아이온은 당분간 마음을 똑 놓아도 될 것 같다. 그나마 이제야는 엔씨 9구단 창단하는 마당이니 그들의 불법 오토 유저는 좀 속이주면 좋으련만!

TECH 고급 그래픽 옵션 설정 《테라》 덕분에 눈이 하늘에 가 박힌 유저를 위해 《아이온》 역시 그래픽 엔진을 개선해 고급 그래픽 옵션을 제공한다. 2008년에 나온 게임치고는 지금도 충분히 하위급 만한 수준이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영망비가 좋아져 게임할 때 눈에 한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이런 옵션질을 하려면 보다 높은 PC 사양이 요구된다. 당신 PC 사양이 낮다면 닥고 그냥 예전처럼 플레이해라.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자기 입맛대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걸 넘어서 캐릭터의 움직임 역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 게임에서 '모션 카드'를 입수해 여기에 담긴 새로운 움직임을 배울 수 있다. 예쁘장하지만 했지 다소 심심했던 당신 캐릭터의 움직임을 한결 다채롭게 꾸밀 수 있다는 얘기다.

도우미 시스템 노래방 도우미처럼 노래를 불러주는 알차진 자립 유저가 고풍 유저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고풍 유저도 이런 도우미 시스템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장사다. 덕분에 자립 유저가 파티플레이를 못 해서 애를 먹던 일은 많이 줄었다.

TECH 현실과 노가다, 그리고 오토봇의 압박 《리니지》부터 아이온 NC 소프트의 전담팀게 아이온 역시 현실과 노가다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실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불편함의 정도는 상당하며, 현실을 할수록 게임이 쾌적해지니 지르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레벨 300이 넘어가면 반복 퀘스트의 탈을 쓴 노가다를 계속 해야 한다. 아이템 장사를 할 게 아니라면 정말로 투 주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할 거다. 여기에 곳곳에 산재한 오토 캐릭터들은 게임하는 재미를 똑 떨어뜨린다. 이젠 뭐가 공장도 아니고...

추천

- 권트룩보다는 단순순회(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 한질로 관하게 《리니지》보다 나은 그래픽의 게임을 즐기고 싶은 사람

별점:

그래픽은 여전히 객관은 수준이다. 민첩하지만 즐겁다.





저온)
 니트 상의 시스텔
 데님 쇼츠 에디터 소장
 언더웨어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오픈 힐 게스
 목걸이와 팔찌 모두 제이미앤벨
 반지 오프시아



가전D)
 흰색 니트 코데즈컴바인
 강장색 데님 쇼츠
 에디터 소장
 언더웨어 코데즈컴바인
 데님 슈즈 게스
 목걸이와 반지 모두
 제이미앤벨



촬영
장두아기



민정))
시스로 컴퍼니 플레인모나코
주황색 오픈 힐 게스
목걸이, 팔찌, 반지 모두 제이미엔벨



민선))
종우니 티셔츠 코데즈컴바인
오픈 힐 게스
목걸이, 반금, 팔찌 모두 오로시아

PEEKABOO: JQT

태10틀곡 '피카부'로 (포켓몬스터)의 피카츄를 인드레메다로 보내버린 JQT가 MAXIM에 등장했다. 그녀들의 매력에 빠진 당신이 '피카부'를 무한 반복해도 놀라지 말 것!

BY 김성환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영희 FILM 윤민숙
ASSISTANTS
서민정/라리, 조유림

1. 매력은?
2. 이상형은?
3. 불모지는?
4. 최근 가장 노력하는 부분은?
5. 본인과 닮은 포켓몬은?



A 가진

- 1 카리스마 X2
내가 바로 진짜 카리스마다
- 2 (커피프린스)의 공유



- 3 나르샤
- 4 랩과 피포먼스
- 5 피카츄 말이 필요하냐?

간장색 민소매 티셔츠
코데즈립바인
흰색 민소매 티셔츠
칼빈클라인 진
운동화 나이키
말피와 반지 모두
제이미앤벨

A 지은

- 1 편안함. 대화하면 호감이 저어른다.
- 2 (시크릿 가든)의 현민



- 3 이효리
- 4 노래
- 5 오, 모르겠어! 노코멘트.



햇핑크 민소매 티셔츠 프래디
햇핑크 운동화 나이키
구슬 말피 제이미앤벨



A 민정

- 1 카리스마,
도발적 카리스마가 있다.
- 2 (아이리시)의 이병헌



- 3 비운세
- 4 랩
- 5 피아노 귀엽다.

브이네 민소매 티셔츠와 운동화
모두 나이키
스즈 에디터 소장
뱅크 오브시아



A 민선

- 1 동안. 칭고로 난 맥내가 아니다.
- 2 (그린 호넷)의 주길분



- 3 핑클과 브라운 아이드 걸스
- 4 개인기
- 5 꼬부기 말이 느리다.

민소매 티셔츠 아디다스
언더웨어 칼빈클라인 언더웨어
민트색 운동화 아디다스
슬 말피 제이미앤벨

JQT의 라이벌은 누군가?

4인조 걸그룹 모두

같은 시기에 데뷔한 시크릿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배가 아픈 법도 한데? 좋은 지극체다. 우리도 조만간 그들 못지않게 질나갈 때가 올 거대웃음.

타이틀곡 '피카부'의 도입부 때문에 노래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 무대 퍼포먼스가 강하기 때문에 가벼움을 어느 정도 눌러준다. 그리고 곡 전체가 '피카부.'의 무한 반복은 아니잖아(웃음).

지난 음반보다 성숙해졌지만, 귀찮게 색사하지도 않은 다소 어중간한 스타일이다.

이번엔 시크너 도시 여자 콘셉트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조금 아쉬운 감은 있다(웃음).

MR 제거 영상이 화제였다. 가창력이 기대 이상이다.

얼마 전에 <김정은의 초콜릿> 녹화를 마쳤다. 실력을 더 쌓아서 이런 음악 전문 프로그램 무대에서 JQT의 가창력을 선보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JQT의 음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약처럼 중독성 강한 음악. 당시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줄 거다.

이번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은 선물은?

남자 친구 우리 모두 2008년 5월 이후로 남자 친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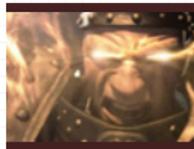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MAXIM 독자에게 한마디해달라.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별 걱정을 다한다.



4인조 걸그룹 망연 모음



함승연

"머리가 짙어서 앞면 모자는 안 맞는다." 카라를 먹어 살린 승연 짜증이 아니었다면 어릴 그날... 당시의 군대에서 하이바 안 맞고 고생해본 아이의 심정을 알거나 하냐

유하린

"살이 안 빠져 고민이다." 재빨 좀 빠래 MAXIM은 육력을 지닌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야 우리 표지 모형을 할 것 아닌? (웃음?)

장지영

"몸플렉스가 썩지 모르겠다." 얼마 안 남았다. 누군들 그 나이에 몸플렉스가 있었겠냐. 시간이 약이다. 당선도 원조 아이돌 핑퐁의 이진 꼴이 날지도 모른다.

타이라 지연

"(제)가 뽀빠 좀 강하지 않아요." 본인에게가려하니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예쁜 면 뽀빠내 맨날이 쓰레기래

그의 노사연

"내가 율야와 다른 것이 뭐 있냐." 소녀새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기도 어렵겠다. 딱치고 일단 가을을 봐라. 율야를 잡자려는 저팔게 한 마리가 당그러나 서 있을 거다.

코미디 한이

"살이 빠져 고민이다." 22인치 케미러에 군살 없는 복근을 가진 당신이 실뽀서 고민이라면 지금도 열심히 초콜릿을 먹어고 있는 오크너는 어찌 살만 말인가.

최소연

"나는 지금 가장 예쁘다." 드라마 <대장금>의 주옥같은 대사가 떠오른다. "예쁜 걸 예쁘다고 말하는데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하라면..." 그걸 누가 날 뒷까졌나.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예쁘니 말이다.

가린 민규리

"화장 안 한 얼굴이 더 예쁘다." 그런 당신 생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당신의 만능을 볼 일이 없다.



PEEKABOO

Maxim Sp

이달의 스포츠 소식

한화 안영명 복귀



등 떠밀어 내보낸 선수들 다시 영입한 한화

한화는 기아로 이적한 이범호의 보상 선수로 우완 투수 안영명을 선택했다. 안영명은 작년 7기와의 장승우 트레이드 패키지로 팀을 떠났다가 1년 만에 친정 팀으로 복귀하게 됐다. 그는 지난 시즌 7기에서 34경기 출전해 3승 7패 평균 자책점 5.75를 기록했다. 기록만으로 보면 고만고만한 선수인데 7기에서 한 때 그를 마구리에 기용할 생각까지 한 걸 보면 야구 팬이 아닌 감독에게만 보이는 포스(?)가 있을지도 모른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한화와 기아는 팀의 긴박타자인 장승우와 이범호를 맞바꾼 셈이고, 엄한 안영명만 팀을 오가느라 고생했다. 역시 운동선수는 야구를 못하면 뭘이 고달랐다.

나도 분데스리가 진출



제주 유니티드의 구자철 볼프스부르크로 전직 이적

제주 유니티드의 입출 구자철이 볼프스부르크로 전직 이적했다. 이적료는 약 2억 원 정도이며 계약 기간은 3년 6개월이다. 아시아권에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 구자철의 해외 이적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스위스의 프로팀 명보이스로 이적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독일행이 결정됐다. 거칠고 날씨가 좋지 않은 스위스보다는 볼프스부르크가 이적이 자유할 만연에도 잘 맞을 것이다. 그나마도 팀부르르의 손흥민에게 이어, 볼프스부르크의 구자철까지 분데스리가를 중계방송하는 MBC 스포츠 플러스는 아주 신이 났겠군.

키워드로 살펴본 2011년

1 난데없는 FA 지름, 꽃병호 영입은 옳은 선택이 될 것인가?

이범호는 기아와 계약금 8억, 연봉 4억, 총 12억 원에 계약서 도장을 찍었다. 연봉 4억은 팀 내 최고 타자 최희섭의 연봉과 같다. 똑 까놓고 말해 수비 하나는 만능스럽지만 3루수로 풀타임으로 뛸 때 한 번도 3할을 넘긴 적은 이범호에게 이 금액은 과하지 않았을까? 매해 꾸준히 20홈런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그런 칭주 구장을 홈으로 쓸 때의 이야기다. 그가 광주 구장에서 그만큼의 홈런을 때려줄 거란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 결국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이 따라 그는 기아가 되도록 까이거나,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히어로가 되게 나올 중 하나다.



한화 배반포대

2 CK포 부활 여부, 2009년 김준호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김상현은 올 시즌 풀타임 지명타자로 팀 최몰이 높다. 3루를 맡기에는 이범호에 비해 수비가 불안한데 다 무릎 부상이 재발할 염려도 있다. 그가 수비 부담을 줄이고 타격에 매진해 2009년 당시의 타격 3관왕(출루, 타점, 장타율)급 성적을 기록한다면 그것으로도 기아가 이범호를 영입한 건 큰 초이스가 될 것이다. 최희섭에서 김상현으로 이어지는 CK포 부활한 상황에서 이범호의 한 방이 더해지면 중심 타선의 위력은 배가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2010년처럼 고작 79경기에 출전해 2할대의 타율에 허덕이던 김준호는 기아에서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할 거다. 그리고 2009년의 영광을 추억하러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겠지.



3 용병 농사, 기아의 탁월한 용병 투수 선구안은 계속 될 것인가?

올 시즌 제각각한 이적료나 로페츠는 지난 시즌의 평균 성적(356,101타, 18승 5패 1세이브, 삼진 212, 평균 자책점 3.84)만 기록해줬도 충분하다. 관심이 가는 인물은 올해 서른 살인 좌완 투수 블레이크리다. 메이저리그 경력은 1승 3패, 평균 자책점이 9점대에 육박하지만 통산 미아나리그 성적은 나쁘지 않다. 평균 자책점이 4점대고 90년당 삼진이 1.74개, 볼넷은 3.58개로 괜찮은 탈삼진 능력과 제구력을 갖췄다. 눈에 보이는 성적 자체는 평범하지만 지금까지 리오스, 그레이시어, 구름스, 랜들을 속이낸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 투수 선구안을 떠올리면서 블레이크리에게도 기대감을 품게 된다. 물론 이런 투수에 국한된 얘기가. 용병 타자를 고르는 기아의 눈은 최악이다. 이 선수 하나만 설명 끝이다. "3할을 원하나, 30홈런을 원하나?"라고 나불대고 홈런 1개도 치지 못한 역대 최장(?) 타자 손 해에



오뎅 밟지?

프로야구 개막이 멀지 않았다. 9구단 창단 소식도 들려오니 올해도 프로야구 싸움은 흥하겠구나!

구단별 전망 1탄



1 류중일 감독 체제, 순혈주의는 성공을 거둘 것인가?



상성은 올 시즌 선동열 감독에게 자진 사퇴를 권하고(?) 삼성 라이온즈 출신 류중일로 사령탑을 교체했다. 삼성에게 첫 우승을 안긴 '김용봉-선동열' 체제. 한미리도 '투수력'으로 잠수를 취어했던 야구 스타일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번 감독 교체를 기점으로 삼성 프런트의 우승 압박은 더 가세될 거고, 그동안 승을 고르던 삼성이 FA의 큰손으로 다시 현실 활황도 높아졌다. 하지만 야구는 투수勝負이다. 그간 오승환, 배영수를 비롯해 중간 계투를 흡사시켰지만 선동열 전 감독은 기존 전략을 풀기동해 두 차례의 우승 한 차례의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2 재활용 성공 여부, 카도쿠라의 재활용은 성공할 것인가?

SK 와이번스가 내친 카도쿠라(279.20명, 22승 11탈, 삼진 24, 평균 자책점 4.02)를 삼성이 냐다 물었다. 야심 감성군 감독이 내친 카도쿠라가 삼성에서 보란 듯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팀을 바퀴 제ake한 용병 투수 중 삼성 사례는 기

아에서 두산으로 옮겨 대박 난 게리 레스와 다나엘 리오스뿐이다. 게다가 올해 38세인 카도쿠라는 작년 시즌 반환점을 돌고 나서 급격히 재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올 시즌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진다면 삼성 측에서는 왜산 폭탄을 짊어질 꼴이 된다. 과연 카도쿠라가 삼성 선발진의 승물을 트게 해주는 이닝 이터가 되어 줄 것인가? 아니면 야심 감성군 감독의 선택이 유효성을 증명해주는 마루타가 될 것인가? 흥미진진한 대목이다.



재활용 빅 C

3 라이언 거로, 메이저리그급 타자의 위업을 보여줄 것인가?

상성이 영입한 용병 타자 라이언 거로는 추신수가 뛰고 있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한때 나와 중심 타자로 뛴 우타 거포다. 2007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1루수로 출장해 2할 9푼에 가까운 타율에 2홈런을 기록했다. 이름값으로 따지자면 지금도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릴 만한 거물급 타자다. 작년 시즌 부상으로 마이너리그에서 2할대 타율에 머물렀지만 2007년 당시 실력의 절반 정도만 보여줘도 삼성으로서나 대성공이다. 포수 출신으로 메이저 리그에서 1루수로 주로 활약했으나 최근에는 야수까지 수비 범위를 넓혔다. 변화구와 좌투수 포락에 능하여 계약금은 5만 달러와 연봉 25만 달러 등 총액 30만 달러다.



푸쳐 핵심!

앤디 페티트 은퇴



이젠 백수... 얼마 구할.

1루 견제의 마에스트로, 이제는 역사 속으로

1996년부터 시작된 양키스 전성시대를 연 주인공이자 포스트 시즌에서 수많은 팀을 양키스의 제물로 만든 좌완 앤디 페티트가 은퇴를 선언했다. 38세의 나이에도 작년 11승 3개의 성적을 찍은 만큼 올 시즌에는 땀 흘렸지만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 통산 489경기에 출전 240승 133탈, 삼진 2,531, 평균 자책점 3.88을 기록한 그는 꾸준함의 대명사였다. 무엇보다 1루 견제의 교과서라 했던 그의 멋진 견제 동작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게 야구팬으로서 안타깝게울 따름이다.

풍운아 김병현 일본 진출



이게 바로 풍운아!

박찬호, 이승엽에 이어 김병현까지, 일본 프로야구 불 뛴 난!

재능으로 따지면 박찬호를 능가했던 최대의 풍운아 김병현이 계약금을 합쳐 약 4억 4,700만 원에 일본 라쿠텐과 1년 계약을 맺었다. 라쿠텐은 이승엽과 박찬호가 소속된 퍼시픽리그 팀이다. 이로써 우리나, 30명 이상이 같은 리그에서 뛴게 됐다. 일본은 리그 소속팀 간의 경기가 많은 만큼 김병현의 이승엽의 맞대결 경쟁도 기대해볼 만하다. 야구팬들의 수호신인 양왕 용처를 꿈꾸는 건 별 문제로 꼭꼭 삼킨을 잡는 건 기이해지기도 않는다. 올 시즌 김병현이 마루에서 한 차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야구팬으로서 바람 뿐이다.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예연!

별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챔피언스리그 16강 결과를 감히 예상이라고 쓰고 예언이라고 읽는다면 꽤됐다. 당신이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토에 당시 영웅을 올린하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MAXIMO 책임지지도 않겠다. WORDS BY 예년

프리메라리가 BIG 2

아스널(잉글랜드) vs. 바르셀로나(스페인)

예상 결과: 바르셀로나 WIN

무적한데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려면 아스널은 영야 짓을 더 막고 와야 할 것이다.

관련 포인트 이번에도 예수는 아스널을 관망시킬 수 있을까?

아스널은 바르셀로나를 생각하면 자기도 땀 흘려야 한다. 지난 시즌 아스널은 1차전 홈에서 바르셀로나와 2대 2로 비겼지만, 2차전 원정에서 예수에 놀라당하며 4골을 헌납해 1대 4로 대패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최고의 공격수 비야까지 영입해 지난 시즌 골리더이 있을 때 보다 업그레이드됐다. 레알 마드리드의 리그 연승 기록(16연승)까지 갱신은 바르셀로나는 바이어로 한 시즌을 뚱이할 강령의 포스를 풍긴다. 바르셀로나의 공격 해법은 무리뉴의 인터 일란이 보여준 강력한 압박과 정교한 역습뿐인데 아스널은 이런 추구를 하는 거리가 멀다.

리옹(프랑스) vs.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예상 결과: 레알 마드리드 WIN

챔스 앞에서 약해지는 레알 마드리드에 무리뉴라는 구현자가 등장했다. 지난 챔스차림 16강에서 추풍낙엽처럼 달락하는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관련 포인트 레알 마드리드는 16강 징크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9회 우승(현재 최다)을 빛나는 유럽 최고의 명문 구단이다. 하지만 2004-05 시즌 이후 지금까지 늘 16강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리옹 역시 작년 챔스에서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1승 무패 기록해 레알 마드리드를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는 외장, 케디라, 아데바요르 등 거물 선수들이 합류했고, 지난 시즌 인터 일란의 3관왕을 이끈 무리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그의 사전에 실수란 없다. 후세의 길은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2번이나 차지한 명장 중의 명장 아니던가!

마르세유(프랑스)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MAIN EVENT 1



MATCH-UP



예상 결과: 맨유 WIN!

1차전은 무승부, 2차전은 맨유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 맨유 홈구장에서 맨유 해리거기인 박지성의 골이 터질 가능성도 높다.

관련 포인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랑스 팀을 상대로 속 시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인 전력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두 수 위다. 하지만 주전 수비수 페르난데스의 중이리 부상이 골치거리다. 페르난데스의 빈자리는 리그 26라운드 올버튼전전에서 1대 2로 역전패하며 여실히 드러났다. 맨유는 올버튼전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허무하게 역전을 허용했는데, 채공권이 강한 페르난데스가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실정 장면이었다. 맨유의 리그 24경기 무패 행진이 끊긴 이유 역시 박지성이 아닌 페르난데스의 부재 때문이다. 페르난데스는 이번 마르세유전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맨유는 그의 자리를 대신할 선수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올버튼전에서 패배의 아이콘이 된 예번스 대신 신장 스몰링이 나온다면 그나마 페르난데스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맨유의 히든카드는 공격이다. 최근 루나-베르바토프 투 팀의 골사냥이 시작됐고 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한 박지성이 공격에 무게감을 실어줄 것이다. 지난 시즌 챔스 16강 홈에서 벌인 AC 밀란과 경기에 박지성이 1골을 넣은 바 있다. 크로스의 장인 발렌시아의 복귀 가능성도 있어 공격 옵션은 풍부하다.

마르세유는 중앙 미드필더 곤살레스가 최대 득점6골을 기록할 정도로 화려하다. 그렇지만 맨유는 프랑스 클림을 상대로 환골한 승리를 거둔 기억이 드물다. 맨유는 2006-07 시즌에는 밀, 2007-08 시즌에는 리옹을 챔스 16강에서 만났지만 양면적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맨유는 프랑스 원정에서 동선 3승 6무 2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마르세유도 지레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

인터 밀란(이탈리아) vs. 바이에른 뮌헨(독일)

MAIN EVENT 2



지난 시즌 챔스 우승을 놓고 다른 두 팀이 16강에서 다시 만났던 당시 인터 밀란은 뮌헨을 2 대 0으로 누르며 정규 리그, 코파 이탈리아에 이어 챔스 리그 우승까지 3관왕을 달성했다. 인터 밀란은 한때 리그 7위까지 추락했지만 슐틸리 보승보살한 3선 차 레오나르도 감독으로 교체 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스네이더, 세지르 등 주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조직력을 회복했고, 후표범 에투 역시 가침없이 골사냥 중이다. 다만 작년 챔스 결승전에서 홈지 2골을 쓸어 담은 해결사 밀리토가 올 시즌 통큰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근심거리다.

뮌헨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그쳐며 역대 최강 타이틀은 이미지에 약점을 했다. 인터 밀란의 예봉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비가 문제다. 경기당 실점지 2점에 육박한다. 골키퍼와 수비수가 사이좋게 실책을 범하니 감당할 도리가 없다. '로베리' 라인의 핵심인 로벤의 몸이 완전하지 못하든 정도 뮌헨에는 악재다. 믿을 구석은 한의 우승 경력력을 지랑하는 짱이 가득 찬 반 할 감독뿐이다. 그가 양자진 수비진을 가다듬고 '로베리' 라인이 부재한 뮌헨호를 멋지게 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ATCH-UP



예상 결과
인터 밀란 WIN!

인터 밀란의 공격력은 밀리토 없이도 뮌헨의 양자진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게다가 뮌헨의 간판 선수 리베리는 단짝 로벤이 없으면 양고 없는 전방이다. 인터 밀란 스워드 가능!

관전 포인트 두 팀이 작년 이어 또 만났다. 복수할전 그 결과는?

AC 밀란(이탈리아) vs. 토트넘(잉글랜드)

MAIN EVENT 3



AC 밀란은 챔피언스리그 7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 중의 명문 구단이다. 세대교체에 실패해 노년경 구단이라는 오명도 얻었지만 최근 구단주의 전폭적인 투자로 팀 색깔도 한층 젊어지고 전력도 강화됐다(구단주 베를루스coni 이탈리아 총리가 연이어 터진 자신의 스캔들을 무야하고자 AC 밀란에 대폭 투자한다는 루머도 있다). 특히 브라셀로나에서 무상으로 입대한 즐라탄, 맨체스터 시티에서 데려온 오비뉴를 중심으로 막강한 공격진을 완성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 처음 진출한 꼬꼬마다. 하지만 조별 리그에서 인터 밀란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반개보다 빠른 베일과 재간동이 레는 등 측면 지원이 간재하고, 중원에는 반 더 비르트, 모드라치 같은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버리고 있다. 베일과 반 더 비르트가 부상 후유증을 극복하고, 데포, 크라우치, 파블류첸코 등 공격진이 헛물만 키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AC 밀란이라는 대어를 잡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MATCH-UP



예상 결과
토트넘 WIN!

AC 밀란은 기동력에 문제가 있다. 빠른 경기 템포를 자랑하는 프리미어리그 출신 토트넘에 고전할 것이다. 양안한 전심 즐라탄은 챔피언스리그만 시작되면 늘 디코 템플러로 변신했다.

관전 포인트 토트넘이 비인기팀의 서러움을 AC 밀란에 화풀이할 수 있을 것인가?

기타 경기

발렌시아(스페인) vs. 샤키 04(독일)

예상 결과: 샤키 04 WIN!
샤키의 승리를 경계한다. 두 팀 모두 공격은 좋은데 수비는 영 미치지 못하다. 샤키 04에는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득점(55골)을 기록한 스페인의 전설 라우이 있다.

AS 로마(이탈리아) vs. 시르타르 도네스코(우크라이나)

예상 결과: AS 로마 WIN!
이탈리아 AS 로마의 유세 하프팀 시르타르도 양질의 브라질 용병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2003년 UEFA 우승을 올려 올랐다. 양방적인 로의 우세를 장는 예상과 달리 접

이 될 것이다. 그래도 챔스에서는 로마의 팽팽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말이다.

코렌하르(덴마크) vs. 첼시(잉글랜드)

예상 결과: 첼시 WIN!
드루스이 드루스(7기) 되고, 토레스가 토레기(가) 되었다면 첼시는 첼시다. 물론 코렌하

경 역시 조별 리그에서 브라셀로나 원정에서 밀물 작전을 놓고서도 신전했을 만큼 저력 있는 팀이다. 하나 첼시 구단주 아브라모비치의 스타일은 오로지 챔스 우승로만이다. 선수와 감독 모두 챔스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지리 보전 이 힘든 사상을 알고 잘 있다는 정도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높여준다.

Reboot To The Musician

한소아

연예인이 아닌 뮤지션의 삶을 선택한 신인 가수 한소아!
하지만 타고난 미모를 어찌 가리겠나!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김희정 FILM 김진욱 ASSISTANTS 박한영/누리, 조유림
HAIR 영신 MAKE-UP 김주연 (삼봉루즈 02-3466-6434)

그들 모양의 나트 코메조컴바인
안에 있는 김정세 민소페 티샤츠 아디다스
핏본즈 예더더 소장
큐빅으로 장식한 힐 키사



촬영장
원투하기

“난 연예인이 아니라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나의 빅토리아와 달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 정가인이 송혜교를 달
았던 이야기나 다름없다.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8년 동안 10개 이상의 드라마 O.S.T에 참여할 만큼 열심히
음악 작업을 했다. 그런데 좋고 신인이 요즘 잘 나가는 빅토리아에게 발붙는 것처럼
보는 분도 있더라. 음악적인 부분을 평가당하는 건 정말 속상하다.

지금은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한다.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닌 거다.

나만의 음악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의 벽에 계속 부딪힌대(웃음). 이전 소속사에서는
내가 쓴 곡을 퇴짜 놓기 바쁘고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곡으로 음반 작업을 했다. 고
집을 꺾으라고 1년 동안 소속사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적도 있었다. 난 연예인이
아니라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이전 소속사와는 메고롭게 계약 해지를 한 상태인가?

내 의사를 전달했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나와 악속한 부분을 제대로 지켜준 적
이 없다. 소속사에 많은 걸 배려해 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을 믿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매너저는 못 믿는다. 가족 관계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외모, 목소리, 노래 실력이면 다른 연예 기획사에서 군침을 흘렸겠다.

영입 제의는 있는데 대부분 댄스음악이다. 소속사 생활로 돌아가 예전에 했던 일들
을 반복하고 싶진 않다.

뮤지션은 자존심 빼면 시체다. 먹고살기 위해서라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쉬
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다.

25세 이후로는 연예인이 되고픈 마음을 놓았다. 연예인 될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
야 하니 쇼핑을 모델 등 가리지 않고 일했대(웃음).

술로 대꾸 음반이 나왔을 때 감회가 남달랐겠다.

너무 기분이 평평 들었다.

눈물이 많은 성격처럼 보이진 않는데?

의외로 소심한 데다 눈물이 많다. 술도 거의 못 마신다. '수발 분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마음 챙기고요 애함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정적 내가 상처를 받는다. 고치고 싶
은 성격인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을 잘 안 나간다. 사람을 만나지 않
는 게 제일 편하다.

음악이 정말 독특하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없지만 자연스러운 호흡을 가
졌다. 언뜻보면 정엽과도 느낌이 달았다.

목소리 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걸로 일고 갈 생각이다(웃음). 노래할 때 목소리
를 많이 넣어 최대한 호흡하려 노력한다. 드라마 O.S.T에 참여했을 때는 노래를 강
하게 불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울이 참benen 마치 남의 웃을 입은 기분이다.

좋아하는 여자 가수는 누구인가?

외국 가수는 사라, 백리콜린과 다이도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가수는
박정현 스타일은 다르지만 노래에 흔들 당는 모습은 정말 최고다.

당신도 나를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노래에 흔들 당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영석을 끌어주면 못하는 스타일이다.

인생에서 지루해하고 싶은 기억은?

너무 많아서 패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연재까지 음악을 할 건가?

평생 아줌마가 돼도. 애를 낳아도 음악을 할 거다.

당신의 라이벌은?

타무, 요조, 허영민만 스트레오. 라이벌이라고보다
이들처럼 음악을 하며 살고 싶다.

추천 음반은?

스팅 그리고 나베레

MAXX 독자에게 한마디

집에만 있으면 짜증난다. 가끔 혼자서라도 여행을
떠나라. 4월 즈음이면 미니 음반이 나오니 나를
길동무로 선택해달라



복숭아송신느낌의 짱새 티셔츠 원피스와
검정색 끈 민소매 티셔츠
모두 에디터 소장
(99) 빨간색 카디건 타임업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고정으로 매주 1곡씩 노래하는데 숨이 쉬이지 않을 정도로 떨린다. 혼자 실어서 부르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웃음). 박정현 씨가 그래서 더 대단하다. 온전히 노래에만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배우고 싶다.

음악으로 승부해 성공한 제2의 아이유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말도 들었다. 음악인으로서 비교하는 거라면 기본 나쁘지 않다. 오히려 아이유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에서 보여준 기태 연주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습해야 가능하다. 주는 노래만 연습하는 영무씨 같은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악기에 맞춰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가수다.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작곡도 할 수 있을 테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구다.

이번 음반을 내놓으며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 신선했던 느낌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가수의 자아실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다. 그런데 자아실현을 하면 100% 망한다(웃음). 그렇다고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만 하고 싶진 않다.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다.

토이 유희철처럼 당시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객원 보컬을 활용한 음반을 기획할 생각이 없나?

아무래도 힘들 거대(웃음). 집을 사랑하다 보니 인맥이 넓지 않다.

그런 사람이 래퍼 JQ와는 어떻게 알게 됐나?

전 소속사에서 알게 됐다. 소속사에서 나와 비발 언덕이 없어 연락했는데 흔쾌히 음반 작업을 도와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부모 보컬로 활동했던 그룹 저들 리와도 서로 연이 닿아 있더라. 세상 참 좁대(웃음).

래퍼 JQ는 사이아의 랩 선생으로 유명하고, 당신은 f(x)의 빅토리아와 달은 걸로 유명해졌다. 둘 앞에 붙는 수식어의 가수들이 광고를 꽤 모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JQ는 그 별명을 정말 싫어한다. 난 오히려 SM에 죄송한 입장이다. 기본 나쁘면 어찌나!

당신 음반에 단골손님인 래퍼 JQ와 달은은 무슨 관계인가? 사귀는 거라면 오늘날로 MAXIM은 JQ의 안ता가 될 거다. 참담한다.

사귀는 질문을 지겹도록 받는다. 이제 빈말이라도 눈이 높다고 말하고 다녀야겠다(웃음). 말했듯이 소속사에서 나와 비발 언덕이 없어 연락했는데 흔쾌히 음반 작업을 도와주셨다. JQ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음반 작업을 같이 하다 보면 사심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일하기 불편해진다. 그런 점에서 JQ에게 정말 고맙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자 친구가 있었고, 헤어지고 나서도 날 남자처럼 편하게 대해줬다.

다행이다. 당신 같은 여자랑 사귀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영혼 그까짓 걸 팔면 되나?

언제나 내 편이면 좋겠다. 남자들은 처음엔 내 편인데 시간이 흐르면 자기 의견을 고집하더라. 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온전히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은 선물은?

왜 여자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하나! 난 초콜릿이 싫진 않다. 그러므로 초콜릿 당첨

빅토리아 핏 짜 먹음 슈퍼스타가 되면 MAXIM과 화끈한 화보를 찍는 거다 물론이다. 그때는 성숙해도 마음껏 발휘할 테니 기대해달라.

STUFF

FILL YOUR INNER EMPTINESS WITH MATERIAL GOODS

OUT DOOR



BOOMBOX | TDK

붐박스 가 돌아왔다. 예전의 박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디지털 기기로서 장점을 추가했다. 쓸 만 한 포터블 스피커를 찾다면 이 녀석이 제격이다.

붐박스가 부활했다. 카세트테이프 대신 아이폰과 MP3를 연결해 음악을 들려준다는 게 차이점이다. 카세트테이프가 있던 자리는 우퍼가 차지했다. 온몸을 공중 올리는 저음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참의 짝꿍이다. 우퍼 대신 스피커만 달린 모델도 있다. 2스피커 제품은 가죽 스트랩이 있어 휴대성이 돋보인다. 여기에 속 시원한 360도의 정격 출력과 DAC의 존재는 외부에서도 탁월한 음질을 즐기게끔 제직한 제품임을 상기시켜준다. 예전의 향수를 느끼기에 충분한 생김새의 왼쪽 버튼은 전원과 볼륨 조절을 담당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라디오 채널 변경이 가능하다. 라디오 수신이나 기능 변경은 왼쪽 버튼을 좌우로 움직이면 된다. 심플한 외관과 달리 3.5mm 잭 및 RCA 입력단(흔히 보는 빨간색과 하얀색 케이블 단자, 스테레오 시몬드를 지면까지 제공하므로 MP3는 물론 기타를 연결해 앰프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나뭇잎을 즐기는 당신이라면 장만해 두어도 후회하지 않을 제품. 문의 www.tdkperformance.com

어린 시절 붐박스를 어깨에 걸치고 멧지게 노래 한 곡 뽑은 동네 형 앞에 여자들이 질질 싸여 쓰러지던 모습을 기억하나? 지금도 먹힐지 모른다! 어딜 가든 붐박스를 대동할 것

IN
DOOR

MUSIC LIFE UPGRADE

여자의 마음이 달뜬다는 3월. 분위기 좋은 음악과 함께 작업한다면 돌돌
이의 사용 빈도도 급상승한다. 집 안팎에서 베오사운드8과 북방스가 당신
에게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BY 김성현



BEOSOUND 8 | B&O

자리만 많이 차지하는 고물 스피커는 참고로 치워버려라! 당신 방이
운동장처럼 넓지 않다면 베오사운드 8만 있어도 충분하다.

가장 큰 특징은 아이패드를 장착 가능한 독 스피커란
사실이다. 거치대 형태의 스타일의 독이라 아이폰 역
시 사용 가능하다. USB 단자로 PC와 연결은 물론 3.5파이 잭을 지원해
다른 MP3와 연결해 음악을 듣는 일도 문제없다. 하지만 역시 베오사
운드 8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건 사이즈에 안성맞춤인 아이패드다. 콤팩
트한 화면으로 감상하는 커버 플로는 음악을 듣는 맛을 한층 बे가시켜
준다. 그렇다고 걸모습만 그럴싸한 스피커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시
원시원한 출력은 기본, 디지털 신호를 증폭기(앰프)에서 필요한 아날
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DAC를 탑재해 당신이 만족할 만한 음질과 B&O
특유의 날카로운 음색을 누리게 해줄 거다. 아이팟 클래식 힘을 빼달
은 십자버튼은 직관적인 생김새만큼이나 조작성도 뛰어나다. 아쉬운
점은 디소 부딪스라운 B&O 스타일의 가격이다.

문의 www.bang-olufsen.com

당신과 그녀가 집에서 아이패드로 달콤한 영화를 감상하다 몸이 후끈 달아오르면
음악 재생 모드로 전환 후 베오사운드 8에 도킹하라. 베오사운드 8에서 흐르는 감미
로운 음악은 당신의 땀방아질을 더욱 철차게 해줄 거다.

GEAR FOR SEX VIDEO

당신이 준 사랑이 그녀와의 확고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영상으로 남아 영원토록
추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준비했다. 홈에이드 살색 영상을 찍기 위해 필요한 제품을 말이다.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광희 HAIR 강수진 MAKE-UP 민혜정/살룩루즈 02-3440-6434
FILM 김진욱 MODEL 최혜연 ASSISTANTS 김희성



활영장 엿보기





COOPERATIONS 캠페인 클라이언트 진 캠페인 클라이언트 연대회에 (3446-7725) 게스트 (02-516-5611) 미루 이너웨어(02-3444-7712)

STEP 1

MUSICPLAYER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게 순서다. 삼색 비디오도 마찬가지. 교미행위를 해야 될 짝짓기 알리지 할 것 아닌가. 애플아이폰으로 일단 감미로운 음악으로 분위기를 잡는 게 순서다.

SAMSUNG
GALAXY PLAYER

갤럭시 플레이어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다. 사운드 얼라이브 음장 때문이다. 기존에 삼성에서 개발한 DNG 음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51kHz급 음향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음장을 지원한다. 그니까 좋아 하는 음악을 갤럭시 S 플레이어의 입체감 넘치는 소리로 들려준다면 로맨틱한 분위기는 한결 UP될 거다. 배터리 용량 역시 갤럭시 S보다 2배 늘어나 당신과 그니까 가사를 치를 때도 원차게 음악을 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 것

문의 www.samsung.com/sec 02-2255-0114
가격 39만 9천 원(8GB 기준)

APPLE
IPOD CLASSIC

갤럭시 S 플레이어와 정반대 성향을 가진 녀석이다. 아이팟 클래식은 용량이 정매만 일차면 80GB 이상의 용량으로 수만 곡을 담아내는 일종의 주크박스다. 여자 친구의 음악 기호를 모른다면 아이팟 클래식에 최근의 히트곡을 비롯해 로맨틱한 음악을 모조리 때라버리면 안사 오게이다. 여기에 휴대하기 편한 아이팟 전용 도 하나를 챙기면 금상첨화

문의 www.apple.com/kr 1544-2662
가격 37만 9천 원

RAZER
FELOX

가장 큰 특징은 360° 전방향 사운드를 들려준다. 거다. 포터블 스피커인 주제에 출력 이 시원시원하고 디지털 앰프를 탑재해서 음질도 나쁘지 않다. 최대 2시간 이상 재생이 가능하니 당신과 그녀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페록스와 MF3P 조합이 있다면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딱칠 분위기를 잡기에 충분할 거다

문의 www.dsgame.co.kr 02-716-8726
가격 7만 9천 원대





STEP 2

VIDEO PLAYER

그녀가 분위기에 흠뻑 취해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제 두 원소들이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고민할 타이밍이다. 우리에게겐 일본 A라는 좋은 지침서가 있지 않나? 침대에서 어떤 콘셉트로 촬영할지를 직접 보면서 고민해보자.

APPLE

IPAD+APPLE TV

당신이 아이패드로 눈문을 볼 게 아니라면 아이패드 1세대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다. 아이패드 2세대의 해상도는 아이폰 3GS에서 4G처럼 뱅글이 될 확률도 적다. 인코딩도 여전히 귀찮지만 여자 친구와 나란히 누워서 A/를 학습하는 용도로 10인치 액정은 여전히 쓸 만하다. 물론 당신이 아이패드와 애플 TV의 조합을 원성해 아이패드의 에어플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끄직한 TV로 영상을 바로 쏠 수도 있지만 총알이 만만치 않게 필요하므로 아이패드 정도로 만족해도 충분하다.

문의 www.apple.com/kr 1544-2662

가격 64만 원(16GB Wi-Fi), 16만 원(애플 TV)



SAMSUNG

GALAXY TAB2

갤럭시 탭 역시 10인치 모델의 등장을 앞두고 있다. 이 녀석의 테그라2 칩셋이 아닌 삼성의 저사 칩셋명 오리온을 탑재했다면 만족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테그라 2는 듀얼코어 CPU지만 고품질 동영상의 주된 포맷 H.264 1080p 파일 재생에서 고자나 다름없다. 때문에 갤럭시 S보다 동영상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아이패드와 달리 갤럭시 탭은 무인 코딩 재생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AV 포맷 재생에는, 그리고 당신이 감상할 AV 재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HD급 노모 영상은 제외다.

문의 kr.samsungmobile.com 1588-3366 가격 미정



LG

OPTIMUS PAD

갤럭시 탭과 사양은 비슷하면서 약 2mm 더 두꺼우며 무게도 30g 정도 더 무거워서 폭풍처럼 까였다. 하지만 옵티머스 패드는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 3D 영상 촬영과 감상이 가능하다. 3D 입체 영상 버전으로 나온 A/를 실감나게 감상하면서 동작의 디테일함을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직 3D 버전 A/ 중에 만족스러운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섹스 비디오를 위한 영감을 얻기에는 충분하다. 아, 그리고 3D 영상을 감상하려면 입체 안경이 필수니 귀찮지만 잊지 말고 챙기도록!

문의 www.lge.co.kr 02-3777-1114 가격 미정



STEP 3

RECORD PLAYER

촬영에 대한 일그림도 완성됐으니 이제는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갈 차례다. 당신이 그녀와 다른 남자가 원하는 모습을 촬영할 리는 없을 테니 적어도 삼각대 또는 삼각대에 준하는 녀석은 챙겨왔으리라 믿겠다.

JVC

GC-PX1

JVC에서 내놓은 GC-PX1은 과거의 스타일을 풍긴다. 과거 소녀에서 내놓은 영기 F77의 모습과도 닮았는데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놀랍게 스펙 하나는 괴물이다. 1062만 화소 CMOS 센서는 최대 989만 화소의 사진과 1920×1080 해상도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더 놀라운 건 최대 144장의 고속연사(3200×1800 해상도)와 동영상 고속촬영(640×360 해상도)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속사료로 유명한 카메라를 압도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당신과 그녀가 번갈아 같은 속도로 찍을 치타라도 동영상은 물론이고 연속 사진까지 남길 수 있으니 다양한 시도(?)를 거듭해도 카메라가 놓칠 거란 걱정은 붙들어 매라.

문의 www.jvc.co.kr 02-2189-3100

가격 미정



SONY

LCD CLM-V55

섹스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굳이 캠코더를 지르기 싫다면 소녀의 클립 온 LCD를 하나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NEX 시리즈처럼 소녀나 셔드 파티 카메라에 장착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촬영 화면을 확대해 볼 수 있다. LCD 화면의 각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려면 지를 만한 아이템이다. 당신과 그녀가 카메라를 세팅할 때 열심히 찍음에 매진할 때 이 녀석이 있다면 화면이 어떤 구도로 잡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던 말이다. 오셀

문의 www.sony.co.kr 1588-0911 가격 미정



니트 게스 친
줄무늬 속옷 마루 이너웨어



니트 에디터 소장
줄무늬 속옷 달린 클라인 언더웨어



STEP 4

MOVIE PLAYER

시람의 결실을 무시하(?) 촬영했다면 이제 그 결과물을 감상할 차례다. 아무래도 태블릿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휴대가 편한 울트라 슬림형 13인치 노트북으로 결과물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APPLE

MACBOOK AIR 13"

얇고, 가볍다. 그리고 SSD의 자원을 받아 체감 성능은 기존의 맥북프로와 맞먹거나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13인치 제품이지만 해상도(440×900)가 15인치 노트북과 동일한 수준이란 것도 만족스럽다. 아쉬운 건 최신 노트북인데도 듀얼코어 1.86GHz CPU를 탑재했다는 것 정도다. 그렇지만 그래픽 카드의 성능 자체는 동일 스펙 CPU의 노트북보다 뛰어난 펌이니 당분간 그녀의 빛나는 영상을 감상하는 일은 전혀 문제없다. 걱정 따위 우주로 날려버려라. 문의 www.apple.com/kr 1544-2662
가격 169만 원(13인치, 128GB 기준)



SAMSUNG

9 SERIES

삼성 노트북이라면 일단 까고 보는 사람도 9 시리즈의 디자인과 스펙에는 할 말이 없어진다. 맥북에어 13인치(0.68인치)보다 얇고(0.62인치), SSD와 4GB 메모리, 인텔 HD GT 내장 그래픽을 갖췄다. 여기에 인텔의 최신 5 CPU까지 더했으니 그녀의 색스 비디오가 제 아무리 고화질이라도 재생 시 버벅거릴 염려 따윈 잡어도 된다. 문의 kr.samsungmobile.com 1588-3366
가격 170만 원대(13인치 기준)



1 ORIGINAL PENGUIN BAG

에트펜 2의 장그러운 뭇노이 펙과 달리 스포츠하고 세련한 생강이다. 가볍고 수납공간도 넉넉해 운동하러 갈 때 필요한 재품을 챙기는 데도 손색없다. 이 가방이 레트로 스타일인지 핑지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당선이 싸구려 삼성 슬리퍼이상 후진 기풍을 예고 헬스장에 들어설 때보다 자신감을 배해 충전해준다. 게 중요하다. 알겠나?

문의 www.originalpenguin.eu

2 ADIDAS TECHFIT POWERWEB TEE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목 놓아난 티를 입고 운동하는 짓거리 그만두라. 헬스장에서 운동복을 따로 주니 필요 없다고? 그럴 일은 순간 예쁜이 눈에 당신은 그치 아저씨 무리 중 또 한 명의 아저씨로 기억된다. 옷이 날개다. 이 사람이 디자인이 날렵한 아디다스 파워웹 티셔츠는 근육이 무리하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줄 뿐 아니라, 땀을 흡수해서 운동을 한결 쾌적하게 한다. 입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다.

문의 www.adidas.com

3 JAYBIRD BLUETOOTH SPORTSBAND 2

운동할 때는 역시 블루투스 리시버가 최고다. 제이버드 블루투스 스포츠밴드 2는 헤드폰이 아닌 머리에 단단히 고정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 거슬리지 않는다. 블루투스는 물론이고 헤드폰의 헤드 부분에 조악 바튼이 있어 운동 도중 MP3나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도 없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건 덤이다.

문의 www.jaybirdgear.com

4 SPEEDO SPORTS TOWEL

스피드의 삼각 수염복은 참으로 인기 거대한 녀석이지만 스포츠 타월은 참으로 탐낸다. 처음에는 스포츠 타월 특유의 직 달라붙는 느낌이 다소 어색하겠지만 헬스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그곳을 닦은 수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스포츠 타월답게 간편하게 손빨래한 후 몇 번만 털어주면 금세 마른다. 운동할 때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땀을 줄줄 흘린다면 스포츠 타월을 여러 장 준비하는 것도 좋다.

문의 store.speedo.com

5 BELKIN FASTFIT ARMBAND FOR IPHONE 4

대부분의 운동복은 주머니가 아예 없거나 아이폰을 넣기에 도호한 사이즈일 때가 많다. 그렇다고 아이폰을 아무 곳이나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리고, 무거운 역기에 치어 자신의 수명을 다하는 일도 생긴다. 이를 때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알밴드다.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때 아이폰이 당신 손을 귀찮게 할 일이 사라진다. 물론 당신 팔이 말라 비틀어져 알밴드를 조인 모습이 무척 애처롭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문의 www.belkin.com/kr

COOL GUY'S GYM BAG

헬스장 예쁜이에게 작업하고 싶다면 동네 아저씨 같은 가방부터 치워라. MAXIMO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제품을 소개할 테니 눈 크게 뜨도록! by 김성현



6 PAUL SMITH WASH BAG

언제까지 이차세 스티일의 목욕 가방에 스킨 로션을 비롯한 세면도구를 넣어 다닐 건가? 당신이 남자들이 득실한 헬스장만 다닐 거라면 알리지 않겠다. 하지만 사각 패킷이 포인팅한 폴 스미스의 워시 백을 하나 정한다면 운동뿐 아니라 여행을 갈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명심하라. 이런 작은 소품이 정말로 여자에게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킬링 아이템이란 사실을 말이다.

문의 www.paulsmith.co.uk

7 REEBOK ZIGTECH

남자라면 한 번쯤 직책의 디자인에 마음을 빼앗겼을 거다. 그렇다고 걸보가 그럴듯한 운동화는 아니다. 미국 스포츠족부위탁이카데미-영기 발전문제는 러닝할 때 적합한 신발로 직책을 추천했다. 실제로 지그테크 및팅은 달릴 때 추진력을 높여주며, 가볍고 쿠션성이 좋아서 발의 피로를 대폭 줄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달 MAXIM의 표지 모델이자 UFC 강동현 선수가 리복 직책의 광고 모델로 나섰다. 현, 한 걸출!!

문의 www.reebok.com/KR

8 REEBOK PREMIUM FITNESS GLOVE

당신이 웨이트트레이닝에 매진한다면 피트니스 글러브 영입을 고려해보라. 언제까지 목장갑이나 맘 냄새가 진득 땀 가죽 장갑을 끼고 운동할 수는 없는 노릇. 그렇다고 맨손으로 무거운 역기를 들다 보면 흉한 굳은살이 손바닥에 자리 잡는다. 리복 피트니스용 글러브는 착용감이 좋아서 손과 글러브가 따로 노는 느낌이 없다. 쿠션 길도 좋으니 이제 굳은살은 안녕~.

문의 www.reebok.com/KR

9 NIKE PREMIER WATER BOTTLE

매일 헬스장에서 일회용 종이병투로 물을 마시는 일이 지겹지도 않나? 나이키 프리미어 물병은 생강새가 깔끔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라 손에도 착 달라붙는다. 스트랩이 달려 있어 휴대하기도 좋다. 한번에 700ml의 넉넉한 물을 담으니 물 한 모금 마시겠다고 카운터 근처의 장수기를 뺄새 나게 드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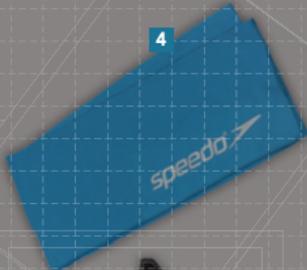
문의 www.nike.com

10 GARMIN FR60

혼자서 러닝을 하다 보면 지루한 건 둘째치고 최고 기록을 깨는 일이 요원해진다. 가상의 라이벌을 만들어 경쟁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려면 자기 기록 체크는 필수다. FR60은 당신의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심장박동, 평균 기록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까지 세세하게 체크한다. 당신이 미친 듯이 러닝을 피하는 칼로리를 통 치기 위해 얼마나 오래 뛰어야 하는지도 곧 알게 될 거다.

문의 www.garmin.com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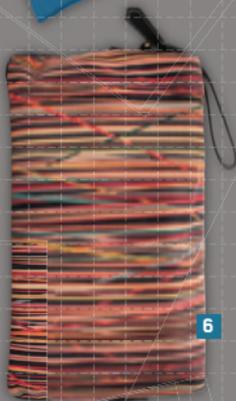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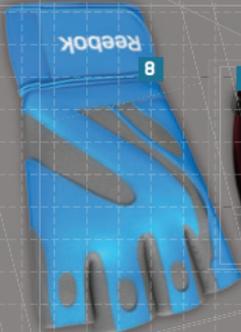
7



6



8



9



10



MOTOR

콘셉트 카는 콘셉트 카일 뿐?

2009년부터 국제 모터쇼를 휩쓸고 다니는 BMW의 콘셉트 카 VISION EFFICIENT DYNAMICS. 이런 콘셉트 카는 모터쇼에만 존재할 뿐이라고?

BMW는 EFFICIENT DYNAMICS를 2013년 말에 양산형으로 출시할 계획을 드러냈다. 정지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4.8초, 연비 24.6km/l 의 하이브리드(또는 전기차) 형태의 슈퍼카가 세상에 나오면 '지옥연비'의 슈퍼카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지 않나?



이 자의
뜻대는?



CHEVROLET SPARK VS KIA all new-MORNING

MAXIM이 둘 다 사서 타보고 알려준다.

그리고 선택해 스파크로 이름을 바꾼 마티즈와 '작은 오픈러스'라 불리는 기아의 올뉴모닝이 경차의 지존 자리를 놓고 대결 2라운드를 펼친다.
BY 유승민



MAXIM 차의 색깔을 정해주세요.

- 지난해 8월 MAXIM 사용기회 한 정명
(KIA 2010 Matz Creative vs. KIA 2010 Morning Eco Plus)



KIA all new MORNING



CHEVROLET SPARK

지난 8월호 시승 기사를 쓰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모닝에 올라 직접 두 경차를 비교 체험해 본 지 반 년이 흘렀다. MAXIM은 당시 마티즈에 좀 더 높은 평가를 내렸다. 경차의 아킬레스건인 안전성 면에서 모닝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2010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골을 넣은 건 모닝이었다. 마티즈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이 한몫 했다. 60~70만 원이 중형차 가격에서는 무의미한 정도의 차이지만, 경차 비교에 있어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경차를 찾는 구매층이 대부분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젊은 층임을 감안하면 이 가격 차이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은 뒤바뀌었다. 가격 경쟁력을 되찾은 스파크가 올뉴모닝의 열풍을 선방해낼 수 있을까?

비교표 (단위:km)	기아 올뉴모닝	쉐보레 스파크
가격	1,006만원~	904만원~
배기량	999cc	995cc
연비	19km/ℓ	17km/ℓ
최고속력	630km/h	700km/h
최적토크	9.6kg-m	9.4kg-m

● 둘 다 신디면서 비교는 무슨...

COMING UP

골치 아파, 사버려!

예... 예쁘게 꾸며주겠어!

강력한 토크와 화려한 편의기능이 뚜렷한 고급차가 아니라면 이런 할리우드인 경차를 겨우 하루이틀만 타보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MAXIM은 시원하게 두 대를 다 구매하기로 했다. 다음 4월호부터 6개월동안 연재될 모닝vs마티즈 구매기 뒤에 많은 기대바란다. 그때 그때 발생하는 자질한 사용기는 MAXIM 홈페이지와 트위터,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장 작은 차들의 결코 작지 않은 싸움, 영연맨의 서비스부터, 구매 과정 정기간에 걸친 연비 테스트, 고장 빈도, 고객 서비스까지 MAXIM이 만민할 살펴 보고 알려주도록 하겠다.

TEST DRIVE

MOTOR



MITSUBISHI MOTORS **OUTLANDER**

MAXIM이 겨울의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SUV는 바로 이거다.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박한빛누리



"어려분~ 오늘은 매력적인 SUV를 한 대 소개할까 합니다. 조수석 앞을 보시면 냉온장이 가능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TV 홈쇼핑의 한 장면이다. 이걸 보면서 '요새 홈쇼핑에선 별걸 다 파는구나' 생각이 났었다. CJ 오쇼핑에서 차를 팔겠다고 나선 다소 황당해보이는 생각의 주인공은 바로 미쓰비시 모터스다.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바로 신형 SUV 아웃랜더다. TV 화면으로 보이는 아웃랜더의 시나유 얼굴과 눈매는 2년 전 MAXIM이 시승한 '공도의 재영랜서 에블루션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판매는 대박을 쳤다. 간장게장도 아니고 린클모리 면까지 3종세트도 아닌 자동차를 모조리 홈쇼핑에서 팔아먹은 거다. 안그래도 박타지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이보다 더니볼 수 없었던 판매 실적과, 광주 시민들의 사무로 인한 전시장 철수 등 악재에 악재를 끼얹었던 미쓰비시 자동차에 들떠온 국민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FOCUS 진짜 안 흔들려?

흔들린다.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 하지만 확실하길 흔들린다. SUV라는 건 전고가 높은 탓에 무게중심이 승용차보다 높다. 무게중심이 높으니 자연히 급커브에서 원심력을 크게 받아 쓸림 현상(롤링)이 심할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지금까지 그저 버킷 시트를 장착하거나 휠 구경을 높이는 방법 정도였다. 하지만 버킷 시트는 비싸고 휠 구경을 올리면 타이어 쿠션이 약해져 승차감이 떨어진다.

아웃랜더는 차체의 무게중심을 낮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차체 전장에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무게가 가벼워진 거다. 가벼운 소재를 만들면서 강성을 유지하는 하는 것도 어렵지만 알루미늄과 일반 차체를 접합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난이도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뭐 차를 만드는 복잡한 기술에 관한 거야 잘 모르겠고 MAXIM이 할 일일?

"고ئن 그래서 얼마나 안 흔들리는데?"
울림막대보다는 강변막로의 코나가 좀 더 북잡하고 커브가 심하다. 차량 통행이 한가한 새벽 2시에 롤링 테스트에 나섰다. 쓸림이란 게 정

말하게 영상 카메라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운전자의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지만 확실하길 차가 노면에 척 달라붙어서 가는 기분이다.

심관없는 얘기가 같지만 개중에는 아웃랜더의 다소 아담한 16인치 휠을 보고 "별대안 나게 휠 구경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고 비아냥대는 이도 있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그저 씩은 넣고 타이어는 워야 긴지가 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하는 소리다. SUV는 스포츠카가 아니다. 휠 구경이 커질수록 코너링에서 안정감은 높지만 타이어가 많이자기 때문에 노면의 요철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승차감은 떨어진다. 만약 쓸림이 심한 보통의 SUV라면 승차감을 다소 포기하면서라도 휠 구경을 늘려서 쓸림 현상을 개선할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코너링의 쓸림을 획기적인 저중심 설계로 개선한 아웃랜더가 타이어를 두껍게 하고 휠 구경을 줄인 건 코너에서 절대 쓸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두툼한 타이어에서 오는 부드러운 승차감은 덤으로 말이다.



◆악몽

‘렉서스의 시대’가 있었다. 수입 명차에 대한 열망이 강해 명차 브랜드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차츰 각축전을 벌이는 동시에 막강한 토종 브랜드가 진출하고 있어 거의 자동차 시장의 끝판 왕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렉서스는 2006년, 200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의 왕좌에 올랐다.

그런 렉서스가 추종하고 있다. 엔고 현상의 원인이 있지만 같은 일본 차인 닛산에미저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왜일까? 물론 ‘프리우스 대체용’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전략이었던지도 모른다.

◆토요타가 아닌 렉서스

지난 2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토요타 코리아의 나카바야시 히사오 대표이사는 MVM을 비롯한 많은 매체의 기자들을 초청해 대대적인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찬양이다. 2시간에 달하는 뜨거운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오토카 코리아의 최주식 편집장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렉서스가 공전의 히트를 칠 때, 렉서스라는 브랜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적 불명의 명품 브랜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명품 이미지가 많이 퇴색한 듯 하다. 타깃팅이 어중간해진 것 아닌가?”

렉서스가 국적 불명의 명품 브랜드였다는 수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빠지는 지적이다. 렉서스의 광풍이 몰아쳐진 2006년 당시 렉서스는 분명 명품 자동차의 대명사였다. 중동의 부자들이 렉서스 한 대씩은 갖고 있다는 얘기를 삼삼치 않게 들을 수 있었고, 미국의 빈민가 부모들이 부의 영원을 담기 자녀의 이름을 렉서스라고 짓기도 했다. ‘뽕’ 관점은 생애에 합리적이고 수수한, 정도의 이미지였던 토요타의 아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빅 히트였던 거다. 수많은 전문가가 렉서스의 성공 요인을 알다투어 분석하고 칭송했다.

이에 자극받은 현대자동차도 렉서스를 벤치마킹해 프리미엄 라인 ‘제네시스’를 선보였다. 북에서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했던 제네시스였지만 렉서스의 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렉서스는 ‘토요타’ 브랜드가 주는 광범한 회사원이 미미의 고리를 과감히 끊었다. 렉서스의 차체 어디에서도 토요타 엠블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딜러가 제네시스도 파는 것과는 달리 토요타 딜러는 토요타만, 렉서스 딜러는 렉서스만 팔았다. 명품 이미지의 탄생에 위해 ‘토요타’가 그간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를 과감히 버리고 나선 거다. 아마도 최주식 편집장이 말한 ‘국적 불명의 명품’이란 전형적인 일본 차 토요타와의 확실한 차별성을 말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LEXUS TOYOTA

엔고 강제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로 2010년은 일본 차의 열광 브랜드 렉서스에게는 더더욱 혹독한



S 그리고 OTA

모든 일본 차에 잔혹한 해였지만 한 해였다. BY 유승민 FILM 박민우리



◆ 토요타의 렉서스

그런데 요즘은 렉서스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토요타-렉서스 분리 이미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렉서스가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렉서스가 잘 나갈 때, 이를 가능케 한 '토요타'의 전라, '토요타'의 비결을 너무 강조했다. 당시 서점엔 (렉서스, 토요타의 도산, (토요타처럼 생각하면) 류의 도사가 흡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2010년 한국에서 렉서스는 어느새 '토요타의 렉서스가 되어 있었다. 토요타가 렉서스의 고급 이미지로 상승하든지, 렉서스가 토요타의 수수한 이미지로 내려가든지 두 가지 결과 중에 지금으로선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 아니다. 렉서스는 기쁨값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삼아서 성공한 브랜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서스는 최근 몇 년 들어 '하이브리드'와 '고효율'을 테마로 집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던. 애초부터 기쁨값 걱정을 하지 않던 부자들에게 '하이브리드'는 너무나 사민적인 관심사였던 거다. 오히려 그들만의 명품 브랜드가 사민적인 어젠다에 집중하는 모습은 전에 느꼈던 매력을 반감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 만약에

토요타 같은 큰 브랜드가 하위 브랜드를 론칭할 때에는 하나의 타겟에 집중해야 한다. 하위 브랜드는 (모) 브랜드의 영역을 모두 커버하기 위한 게 아니다. 렉서스는 토요타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이지 토요타를 대체하기 위한 브랜드가 아니다.

하이브리드, 친환경, 고효율의 영역은 토요타에 맡겨두고 계속해서 고성능, 고가 전략으로 다소 시차스러운 이미지를 고수했다면 어땠을까? 프리우스 덕에 안 그래도 '연비왕'인 이미지가 강해진 토요타 브랜드를 더욱 친환경적이고 성실한 이미지로, 렉서스는 과시욕을 충족하는 명품으로 확연히 구분해 나갔다면 '합리성'과 '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카타야시 히시요 대표는 "고연비라는 테마가 렉서스의 명품 이미지를 떨어뜨리리라는 생각 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단순한 기쁨값을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백년 울은 말이다. 하지만 과연 과시욕 짙은 우리나라 부자들이 친환경의 사회적 소임을 의식하고 있을까? 아직 아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명품'이란 유희비가 높아 서민들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것일 때 더 매력적이다.

◆ 독심

그러던 와중에 렉서스는 다시 한번 실용적인 해택의 콤팩트 하이브리드카 LEXUS CT200h를 내놓았다. 토요타 프리우스의 리플 시대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하이브리드의 비문을 성급하게 렉서스로 넘기려 한 건 아닐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볼 일이다.



CT200h
공개 현황

ICON: 김동현

KOREA STUDIO GYM

UFC에서 우리나라 격투기의 역사를 새로고침 중인
한국산(産) 전격총격기 김동현이 MAXIM에 난입했다.

피가 난무하는 날 것 그대로의 싸움에 열광하는
수컷이라면 그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겠지?

BY 김상원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정희 FILM 감독 ASSISTANTS 권혁진 박민우·의 조유정

커버)

화이트 셔츠 에디터 소장
민소매 티셔츠 헬빈클라인 언더웨어
블루 진 브라운 브레스

운동복 본인 소장

국내 격투기 대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격투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50만 원의 파이팅머니를 벌인 무명의 선수가 이제는 경기당 4,500만 원을 받는 잘나가는 UFC 선수가 됐다.

그때는 정말 삶이 고달팠다. 하지만 이제 MAXIM과 화보 촬영을 할 정도니 내가 정말 많이 크긴 했다 보다(웃음).

자신 1월 네이트 디아즈와 벌인 경기에서 생긴 무릎 부상은 원래 됐나?

그것만 아니었다면 완벽한 경기였는데 이대입니다. 회복 속도가 우리러지 않는 선에서 훈련에 복귀할 생각이었죠. 다친 곳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다른 부위를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당신은 훈련밖에 모르는 비보란 스포리도 종종 듣는다.

오해해. 아직까진 인지도가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말이나오는 것 같다. 사실 얼마 전에 홈페이지도 오픈했다(웃음). 상황 설명이 필요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부담스럽지만(우물뜰다사) 같은 토크쇼에서 이야기해보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에 오르면 몸이 피려떨어릿한가?

간장갑과 살렘이 뒤섞여 삼성이 터질 것 같다. 하지만 먹고살려면 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어쩌겠나(웃음).

UFC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괴물들이 가득한 세계다. 때문 무섭지 않나?

우사의 피를 타고 나서인지 맞는 걸 두려워해본 적은 없다. 격투기가 좋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UFC는 패자에게 냉정하기로 유명하다.

경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무시무시한 신인은 쏟아지니 실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바로 퇴출이다. 경기가 지루해도 이기면 회복을 면하지만 회복한 경기를 보여줘도 언제 하면 그날로 보파리를 싸야 한다.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만약 내가 퇴출당하면 UFC는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

대신 승리하면 대가는 확실하다.

승리하면 파이팅머니만큼 승리 수당을 받는다. 선수들이든 매너이리든 눈에 볼을 켜고 이기려든다.

당신보다 긴 연승을 기록한 선수는 현 UFC 웰터급 챔피언 조르주 생피에르(8연승)가 유일하다.

5연승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한국에 돌아오니 언론에서 5연승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무조건 이겨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다. 연승을 의식했다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르는 게 약이더라(웃음).

그날 경기 때 3라운드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전 연습에서는 내가 에너지저장 백인물이다. 매일매일 연습하는 선수는 나 밖에 없고 별로 자라지도 않는다. 유독 시험에서 자라는 건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고, 체중 감량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아! 내나 내가 모르는 소비의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웃음). UFC의 약물 검사는 올림피처럼 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변 검사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그게 쫓겨하는 자는 판단에 맡기겠다.

그라운드 압박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타고난 하체 덕분인가?

주짓수에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다 보니 그라운드 훈련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 학창 시절 온종일 수확점수를 잘 받았는데 친구들이 수학에 소질이 없다고 칭찬해주면 괜히 으쓱해서 공부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타격가가 다소 아파다는 질문에 "랭킹 2위 알베스와의 경기에서 회복한 타격을 보여 주겠다"고 답했다.

농담이다(웃음). 림 서비스다. 타격한다고 거짓 말하고 태극기 다운을 성공한 후 파운딩이나 엘보 세례로 KO시키겠다. 무조건 이기는 게 최고다. 파이팅머니가 2배다!

우리나라의 UFC 해설사는 당신의 UFC 5연승이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거둔 성적보다 위대하다고 말했다.

자랑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진출 전에도 야구는 프로 스포츠의 틀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격투기는 다르다. 좋은 성적을 거둬도 군 면제는 남의 일이고,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변변한 지원을 받기도 힘들다. 동네 체육관에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 운영하는 수준이다. 초창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기술을 배웠다. 조기 추구하니 더듬었다. 한마디로 나의 UFC 5연승은 동네 조기 추구의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

이제는 사리진 프라이드 대회의 음악을 테마송으로 사용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일종의 대리만족이다. 격투기 선수로서 경향을 쌓으면서 프라이드 선수가 되는 꿈을 키웠다. 우여곡절 끝에 프라이드와 계약을 했는데 대회가 망해버렸다.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으니 대회 음악을 들을 기회도 없었다. 정말 아쉬웠다. 그래서 프라이드 경기에 출전한다는 기분도 느끼고 싶어 테마송으로 선택했다.

UFC 선수로서 추성훈은 어떤 남자인가?

한마디로 '멋지다!' 대회 당일 최고의 게임을 펼친 선수는 보너스를 받는데 추성훈 선수는 이를 놓친 법이 없다. 동양인 선수로서 정말 드로 일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젊은 선수와 평평한 사람을 펼칠 만큼 자기 관리도 발군이다. 패전 감각까지 탁월하니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선수다.



KIM DONG HYUN
KOREAN STUN GUN

출생 1988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신체 184cm, 77kg
소속사 B.S.스포츠
소속팀 부산팀매드
학력 용인대학교 유도학 학사
경력 2011.01 UFC 125 (VS 네이트 디아즈)



리복과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잘나가는 스포츠 스타로 인정받은 셈이다.

처음에는 가짜일 줄 알았다. 케이블 방송 '슈퍼액션'에서 UFC와 나를 밀리려 노력한 데다가 첫 경기까지 멋지게 이겼더니 남자들 사이에 꽤나 이슈가 됐다. 그러자 시가꾼이 엄청 달라 붙었다. 리복의 스폰서 제안도 그래서 반신반의했다.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나니 리복 직책의 모델이 된다는 것도 자랑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종합격투기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육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트(MAXM 6월호 표지 모델)도 봤잖군!

서양 여자는 골격이 큰 편인데 그녀는 동양계 체형이라서인지 골격이 크지 않더라. 예쁘고 색시했다. 세컨드로 함께 간 관장님은 그녀와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난 찍지 않았다. 난 그녀의 팬이 아니다(웃음).

항상 시절에 주먹 좀 썼겠다.

싸움은 좋아하지 않는다. 너를 명문고 출신이라 공부 잘하는 착한 학생이 있어서 싸움과 거리가 멀었다. 다행(?) 체격도 큰 편이라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혼자서 성인 남성 몇 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나?!

타격에 특화된 선수라면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있었지만 난 상대일에 최적화됐다. 두 명 이상 상대하기 힘들다. 대신 일대일 승부만 큼은 우리나라 누구와 불어도 자신 있다. 난 언젠가 한 명만 상대한다(웃음).

화이트테이페 줄 선물은 사랑만이 아니라,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비결은 뭐가?

남자의 생명은 허체가 아니라 영덩이다. 그곳에 비밀이 숨어 있다. 상체를 키워봐야 할 일이다. 영덩이의 대두근에서 진짜 힘이 나온다. 브라질 선수 영덩이를 봐라. 완전 뽀뽀하다. 이런 선수가 운동신경도 좋고 민첩하다. 영덩이를 단련해라. 강한 남자가 될 거다.

그렇다면 당신은 밤의 황제인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재분 적은 없대(웃음).

돈 잘 버는 강한(?) 남자니 여자한테 인기 많겠다.

자존심이 션 편이라 쿨대 높은 여자는 연락하지 않는다. 불만만 지러나 어색한 자리를 싫어해서 아직 친하게 지내는 여자 연예인은 없다.

여자 친구에게는 부드러운 남자인가?

물론이다. 지금 만나는 여자 친구에게도 잘해준다.

스탠건(전기충격기)이라는 별명이 인상적이다.

스탠건 전기충격기가 우리나라 말로는 꽤 무섭게 들리지만 사람 몸에 전기충격기가 닿는다고 기절하진 않는다. 유튜브에서 외국 아이들이 전기충격기로 장난치는 모습도 곧잘 볼 수 있다. 몸에 닿으면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정도다. 별명 따라가는 건진 몰라도 경기에서 상대 선수들이 도통 KO가 안 되더라(웃음). 스탠건보다 션 케이저(나나 샷건) 같은 걸로 지어야 하는데 아깝다. 그렇지만 별명이 특이해서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 6경기쯤 소화하니 '스탠건' 립이라 부르는 팬도 생겼다.

KOREA STRONG



촬영장 영방기

단, 화이트데이 선물을 고르는 일만큼은 약한 남자다.

선물은 역시 현찰이 최고다.

그릴리가 현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난 경기 파이트머나가 임금권 걸로 알고 있다.

넌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근로자다. 당장 내년엔 무직자가 될지도 모르니 돈을 아껴야 한다. 잘 알려진 복싱 선수들이 돈 권리를 못써서 늙어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인제 전성기가 끝나는 이유도 모르는 만큼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 빈틈없는 금융 설계가 중요한 이유도 그래서다(웃음).

배우 이영호와 친하다고 들었다.

인맥이 넓은 대학교 선배가 소개시켜줬다. 복싱을 오래한 격투기 마니아라서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격투기에 대한 미인드만큼은 어느 선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해병대를 제외한 당산과 현빈의 공통점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다. 다만 현빈은 여성에게 나는 중·고등학교 일진에게 최고라는 게 차이점이다(웃음).

그림 미니홈피에서 일진들의 일촌 신청도 받아주나?

물론이다. 전국의 모든 일진과 일촌을 맺은 것 같다(웃음). 가끔 싸우자는 메일도 있는데 그런 메일은 무시한다. 일진이 아니냐고 일촌 신청하면 수락한다. 꼭 정하지 마라.

팟팅어리들이 까부는 거군!

그저 귀여울 따름이다. 가끔 나를 자극하는 메일도 있는데 만날 수 없어 아쉽다(웃음).

수컷이라면 역시 걸그룹 예기를 빼놓을 수 없다.

2년째 음악이 정말 최고다. 운동할 때도 즐겨 듣는다. 분위기가 삼엄한 경기장을 향해 날려 'Go Away'를 들었다. 내 주변에서도 모두 2년제가 최고라고 말한다.

격투기가 섹스보다 좋은 이유는?

남들 앞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 난 격투기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 오르는 남자다.

당산에게 나이키란?

나이키가 뭐가? 이름 브랜드인가(웃음) 이거 아 할 또 해나 대생!

MAXIM 독자에게 UFC 선수로서 한 마디 부탁한다.

종합격투기를 많이 사랑해달라. 관심이 있다면 배우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부상고 잔인하던 편견을 지울 수 있을 거다. 선수로서 도전하는 것도 환영이다. 그게 바로 진짜 남자다!

스파일 수면까지
스모일 모델
가져 미영
MAXIM 디자이너



FITNESS GUIDE

본격 볼맞이 팔 운동!

김동현이 부자깡이만큼 부실한 당신의 팔뚝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두 팔 길고 나셨다. 덕분에 오늘부터 꾸준히 이 운동을 매일 15~20개씩 3세트를 반복하라. 당시 팔에 붙은 탄탄한 근육에 분철에 제각각 셔츠의 패시를 한결 실려줄 거다. "오오 썬나."

말발굽 만들기

준비물: 팔 디스크 지지해줄 작은 상자
효과: 상신 팔에도 드디어 권영의 말발굽!



1 상체와 다리가 약 90° 정도가 되도록 상체에 팔과 다리를 올린다. 팔은 어깨-손목-꿈 팔리-손목이 쭉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정면을 응시한 채 상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내린다. 팔꿈치와 어깨는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며 팔꿈치가 어깨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



3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동작 1로 되돌아간다.

배치기 푸시업

준비물: 그런 거 없는데
효과: 팔과 배 운동을 한 번에 잇힘



1 팔은 어깨-손목-꿈 팔리고 다리는 최대한 넓게 벌린다. 이때 상체의 무게중심은 하체를 향해 돌 영상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손목이 쭉이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바닥에 밀착한다. 이때 시선이 바닥에 일치되도록 주의한다.



3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몸을 '느낌'으로 상체를 들어올린다. 천천히 동작 1로 되돌아간다.



**BLOOD
FANTASTIC**

피는 정직하다



피 본 장소: 코

최악의 시나리오 - 멧기열

티파 신성한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이려면 모르고도 힘든 멧기열이 최악이다. 열대 모기로 전염되는 멧기열은 코피나 잇몸 출혈을 동반한다. 바이러스 성 질환이어서 가벼운 경우 10일 정도 폭 쉬면 되지만 백신이 없는 상태라 걸리면 고생길이 트인다. 발열이 3~5일간 계속되며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이 온다. 재수가 올 뵈으면 멧기 쇼크 증후군이 감리한다. 열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이르다. 이후 몸 상태가 안드로메다형 급행열치를 타기 때문에 입원은 필수다. 속으면 X 된다. 그치, 정한이향?

그게 아니라면!

무더운 날씨,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 아무런 누에게 육수수가 달렸거나, 코 후피기에 심주혈 염지손가락을 집게손가락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일단 가슴부터 쓸어내려라. 멧기열 피한 게 어딘가에 코피를 소환한 게 위외의 이유라면 모세혈관이 폭발한 거다. 네놈의 색은 피를 심장에 보내는 정맥과 산소가 담백 든 피를 공급해주는 동맥 사이의 작은 혈관이 터졌단 거다. 무더위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의 입력이 높아지면서 모세혈관의 벽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당신의 공격적 코 후피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의사 선생은 "네 콧구멍 속은 돌돌이의 거북 머리마냥 보드랍고 알개 감싸져 있기에 손가락으로 과하게 들어대면 피를 부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당신 손가락과 콧구멍은 딱을 치는 사이가 아니라 결명성하라.

무식하면 용감하지

당신 코에서 피분수를 먹고 싶다면 일정한 입력 유지가 필수다. 그러니 주변 부위를 일단 자국이 눌러주라. 그다음 할 일은 열음평질이다. 맛이 간 피 대신 상상의 피로 바꿔주는 일은 도와를 거다. 그리고 코피가난다고, 재빨 쳐도너 처럼 고개를 쳐들지 좀 마라. 코는 입이랑 연결되어 있다. 코피를 멈추는 게 아니라 엄하게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공기만 차단하는 꼴이니 말이다. 고개만 들 줄 아는 이명향애

*혹시 비타민 K의 부족?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녀석이다. 재어있는 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정에서 직접 생산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부족하면 몸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뇌출혈 같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비지도 않았는데 피가 용암처럼 솟구치나? 평소 빗물처럼 흐르던 콧물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래떡처럼 찰진가? 기침하다 분출한 가래가 여자 친구의 그날처럼 새빨간가? 긴장 하라. 똥차처럼 막 굴리던 네놈 몸뚱이에 드디어 문제가 생겼다. BY 김상현

지혈 방법

떡 치다 발생한 사태라 119를 부르기 머쓱하다면 이렇게 지혈할 수도 있다. 물론 과한 부상이 아닐 때 가능한 얘기다.

푸쳐 핸점 # 출혈이 있을 땐 일단 상처 부위를 지혈한 후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묶어 한다. 팔을 다쳤으면 한참 가수처럼 '푸쳐 핸점 #'을 하라 소리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씨스타의 보리마냥 다리를 심장 위로 치켜 올려라.

닥치고 압박 네놈의 오일집 화장기 록일이 분명할 5분 정도 소독한 거즈나 깨끗한 천을 상처 부위에 대고 늘

러라. 깊이 않은 상처라면 이 정도 압박만 쥐도 출혈은 멎는다.

빨간기 소환 티공민 한 상처라면 진리의 빨간 악을 빌려줘라. 괴사화수소가 담백 들어 있는 이 녀석은 네놈 핏속의 적혈구와 조인해서 산소 거품을 만들어 상처 부위를 소독해줄 거다.

살마 살이 찾아졌는데 빨간기만 비르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지? 네놈은 람보가 아니다. 명성하라.

피 본 장소 X고

최악의 시나리오 - 위암 또는 극심한 폐양, 그리고 빌어먹을 그놈의 멧기열

위는 우리가 처먹은 음식이 저장되는 곳이자, 이것들이 통과로 나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다. 위의 질병은 배고픔으로 인한 역류, 식중독, 과음 등으로 생긴다. 최악의 경우인 위암에 걸린다면 위벽은 물론 주변 장기로 혈액을 펌프질하는 인력이 약해진다. 위는 선도 높은 피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직장까지 혈액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네놈의 동색은 갈수록 흙빛으로 변하고 통고에서는 피를 내뿜게 되겠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치질이었지, 더러운 놀!

네놈 통고에서 선지미당 신선한 피가 흘러나온 거라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치질이거나 통고가 가볍게 찢어진 것에 불과하다. 통 한 번 시원하게 때리겠다고 과도하게 통고에 힘을 주면 뱃속의 인력이 증가해 피통을 뿜 수 있으니 너무 놀리지 마라. 물론 뒤지기도 안 해보 순결한 통고에서 피를 뿜는 것만으로 충분히 공포스럽겠지만 말이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몸 속 기관이 맛이 가서 통고에 피를 소화한 거라면 이를 막기 위해 애쓰지 마라. 어떤 장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물론 과도한 출혈 시 투여하는 약(Tenecamic Acid)이 있지만 이걸 쓸지는 의사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통고에 피가 나서 병원에 왔다고 간호사에게 말하는 건 부끄러움이 꽃피는 일이었지만 별 수 없다. 이게 최선이다.

*좌욕의 신묘함?

따끈따끈한 물이 채워진 변기는 치질 환자와 변비 환자엔 판타스틱하다. 따뜻한 물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용기를 일깨우는 힘을 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통고를 뽀사시개로 찌르는 고통을 느꼈다면 세숫대야라도 하니 장만해서 좌욕에 매진하도록. 그렇다고 목욕탕의 온탕에서 통고만 담고 있으면 얘기는 아니다. 재빨!



피 본 장소 목

최악의 시나리오 - 폐결핵, 간경변, 그리고 또 멧기열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몸무게가 폭폭 빠지나? 덕후처럼 식은땀으로 샤워를 하여 호흡까지 가빠졌나? 축하한다. 당신은 폐결핵에 당첨됐다. 이 빌어먹을 결핵균 박테리아는 호흡 시스템을 파괴하고 폐를 못 살게 굴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당신 입에서 튀어나온 객혈로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간 조직이 일발발라하게 정산술 놓는 간경변에 걸렸다면 장과 간 사이의 혈관인 간문맥에 피가 고이며 인력이 높아지고 식도 정맥으로 피가 물리는데 이때 혹처럼 부른 정맥정맥류라 부른다! 이 타자면 목에서 피를 토하게 된다. 심하면 이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다. 한타디로 간경변이 생긴 순간 당신의 평화로운 삶은 작별을 고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거ئن 치출질, 목감기 또는 차은열이몸이 붓고 빨갈 게 되는 병! 때문일 수도 있다.

거ئن 치출질처럼 외부 자극에 잇몸이 할어서 난 피 때문에 목에서 피를 볼 수도 있다. 감기로 인한 기침은 보통 기도 자극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심한 기침으로 혈압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면 피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격렬한 미러기침 후 피를 토했다고 해서 불발이 오글 거릴 정도로 놀랄 필요는 없단 얘기다.



*가래 검사의 이유?

의사들이 당신이 뱃을 가래를 현미경으로 유심히 보는 게 왜야 했나? 그 안에 피가 섞여 있으면 폐결핵인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짓을 감수하는 거다. 피가 섞여 있지 않다면? 당신 입장에서 '올레! 일단 내놈의 피가 고생할 일은 줄었던 소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지

당신이 피를 토하는 게 빌어먹을 멧기열 때문이라면 치출질은 공도 꾸지 마라. 평소에도 이를 잘 두지도 않는 놈들이 꼭 병에 걸리면 유년을 땀다. 그냥 양치질 대신 기글 정도로 만족하라. 멧기열에 사로잡힌 당신의 핑크빛 잇몸은 민감한 데다 언제든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 영하게 치출질했다면 당신 피로 시원하게 기글하는 신세를 못 면할 거다.

피 본 장소: 뽕뽕이

최악의 시나리오

- 당연히 성병이다.젠장! (오망찜을 했으니 그나마 덜 억울하겠다.)

뽕뽕이는 피와 살로 만들어진 녀석이다. 아리따운 여자를 봤을 때 도도하게 고개를 쳐들기 위해서 뽕뽕이에는 잠시 동안 피가 세차게 흐른다. 그렇기에 뽕뽕이는 피가 물렸을 때의 압력에 잘 버틸 수 있게 뽕뽕하게 설계됐다. 하지만 뽕뽕한 뽕뽕이도 성병에는 정사 없다. 성관계로 전염되는 클라미디아에 걸리면 당시는 콧발 오줌과 고름 세러머니를 보게 될 거다. 오웬 게다가 면역력이 없는 질병이라 완치될 다음에도 일한 데서 뽕뽕을 놀리다가 또 감염된다. 당신이 오줌을 눌 때 짜릿한 통증과 함께 평소 볼 수 없던 다이아몬드 붉거나 아이스티 색의 향연을 목도했다면 문제가 생긴 거니 병원을 찾이라. 참고로 양형색 갈색 소변은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물을 많이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면!

네놈이 DDR을 과하게 치거나 질의양자를 많이 했다는 소리다.

너의 DDR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바 아니지만 어찌됐건 과도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네놈의 노력 자체는 가상하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딱을 칠 때 피를 보는 건 대부분 여자 몫이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피를 보지 못할 법은 없다. 당신이 격렬하게 딱질을 하다 허공에 단백질을 발사하기 위해 뽕뽕이를 과하게 다루거나, 공장의 품질 테스트처럼 수직 잡고 뽕뽕이에게서 유방 뽕뽕을 감으셨을지도 모를 일 아니면 그게 그렇지만 신전수선차 겪은 비누기와 의사는 모든 걸 이해할 거다. 그러니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 암, 그렇고말고!

무식하면 용감하지

방임은 곱물. 통증이 없어도 오줌 색이 이상하다면 MT에서 여자를 덮치는 속도로 병원에 달려가라! 한 번 정도야 그렇다스 차더라도 반복되면 문제가 생긴 거다.

*혈뇨의 정의?

혈뇨는 소변에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배설되는 거다. 우리가 혈뇨라고 부르는 선홍색 소변은 적혈구가 분당 10,000개가 넘어섰다는 얘기가. 이 중에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확인할 가능한 혈뇨도 있다. 현미경적 혈뇨라고 부르는데, 소변에 적혈구가 소량 섞여 나오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건강검진, 신체검사 등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피 본 장소: 눈



최악의 시나리오 - 당신 대갈통의 문제 또는 결막 출혈

눈에 출혈이 있다면 화이트티에 띄운 찻는 것 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레일' 피눈물을 흘릴 지 모른다. 당신 눈은 눈꺼풀 이외에도 여러 겹의 실드로 보호된다. 물론 눈알을 둘러싼 뼈가 박살나면 피를 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눈알을 둘러싼 결막 및 출혈은 당신 눈에 육안으로 확인할 만한 붉은 얼룩이 생겼다 거다. 그리고 눈꺼풀 아래혈관이 딱딱딱딱 붙어 있는 곳의 출혈은 결막의 파손을 의미할 수 있지만 눈알의 직접적인 상처는 아닐 수도 있다. 두루뭉술하다고? 사실 눈꺼풀 따가 나는 원인을 막 잘라 말하면 어렵다. 왜냐고? 폭발적인 기온과 동시에 눈에서 피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마초 때문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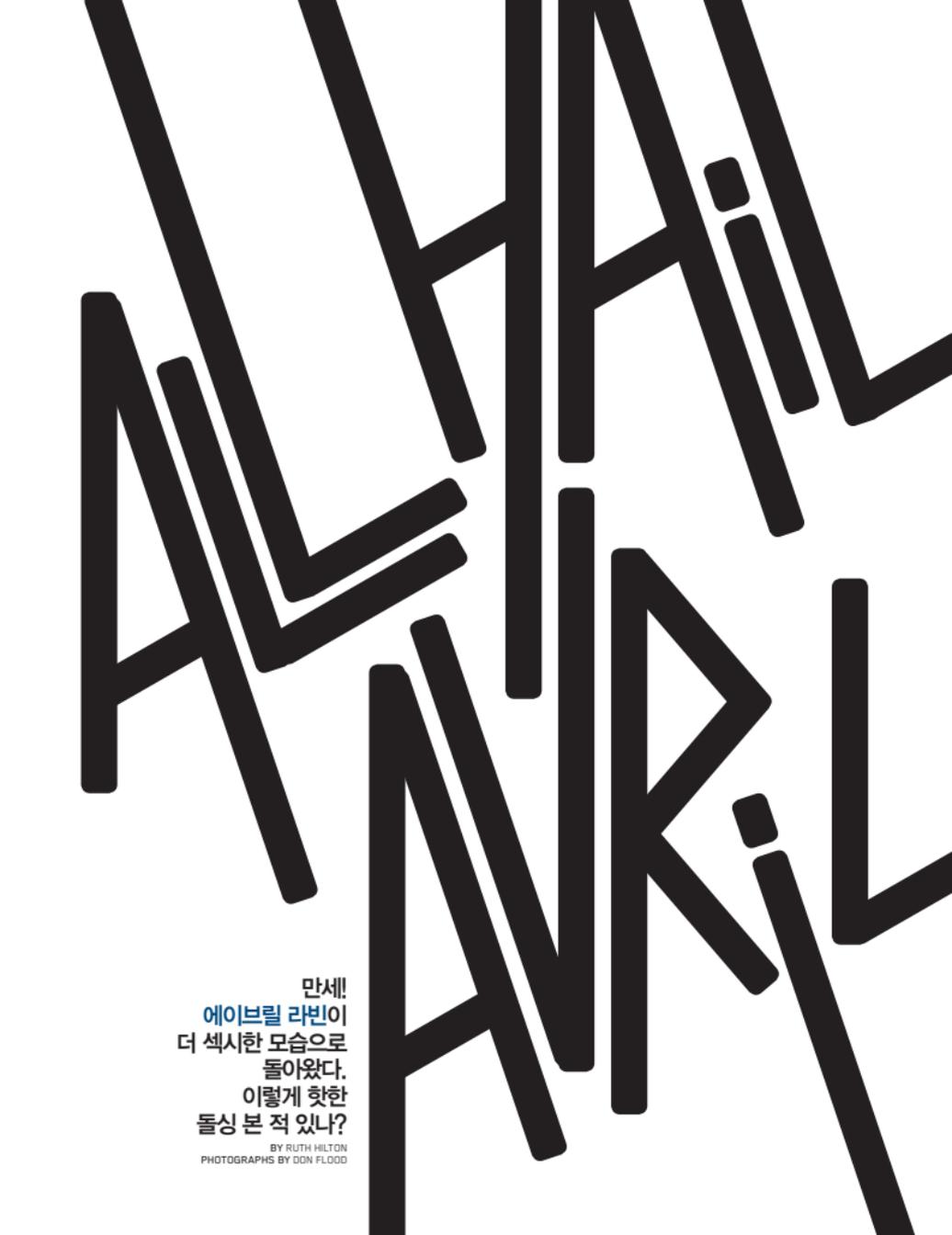
당신이 모태 솔로의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남자의 자각 감성만처럼 대마초를 신나게 피워줬다면) 감병으로 고고상하기 전에 토끼 눈알을 얻게 될 거다. 대마초의 알약이 마시거나 성분은 네놈의 뇌를 돌아다녀며 눈의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그 때문에 눈알이 빨갛게 변신한다. 감병에서 심신을 가다듬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마라(응?).

무식하면 용감하지

여자의 눈물만큼 인공 눈물은 믿을 게 못 된다. 눈알이 건건건데 괜히 그럴 걸 까맣다긴 돌아오는 건 사뭇한 토끼 눈물이다. 더 큰 문제는 당신과 토끼의 공통점이 사뭇한 눈결과 짙은 사정 시간 이외에는 눈을 씻고 씻아 봐도 없다 거다.

*모세혈관의 자가 복구 능력?

엑스맨의 울버린만큼은 아니지만 조직 내부에 그물처럼 촘촘하게 얽힌 당신의 모세혈관 역시 자가 복구 능력이 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약 2분마다 혈액이 응고하는데, 모세혈관에 과하게 작용한 혈판 때문에 생긴 상처를 복구하거나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다.



만세!
에이브릴 라빈이
더 섹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핫한
돌싱 본 적 있나?

BY RUTH HILTON
PHOTOGRAPHS BY DON FLOOD



셋째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처럼, 셋째의 위용은 굉장하다. 그녀의 세 번째 MAXIM 화보 촬영이 이를 증명한다.

나이 17세. 예쁜 얼굴에 결코 가깝지 않은 눈빛의 한 백인 소녀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데뷔 음반 (Let Go)을 발표한 지 벌써 9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 21세 청창한 나이에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해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한 그녀는 2009년 이혼을 발표한다. 그리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라 "어전히 우리전 남편과 그녀에게 우정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는 멘트를 남겼다.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풍기는 싱어송 라이터 에이브릴 라빈은 전보다 더 자신에 찬 모습이었다. 그녀 염구리에 새로 새긴 "FUCK"이라는 타투만큼이나 과감하고 멋진 그녀의 MAXIM 화보 중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 탄생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MAXIM 촬영이다. 그리고 이번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볼 때 마다 더 색채될 수 있나?

나도 못하고 내 여성스러운 모습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다. 첫 촬영 땀 나이가 19세였다. 무척 긴장했다. 내 기억에 그때의 난 좀 말괄량이였던 것 같다. MAXIM과의 촬영은 언제나 즐거웠다. 나에게 큰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MAXIM은 진정 어지 있는 매거진이다. 진짜 멋지다!

역시 할 볼 줄 안다. 여자를 색시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자신감과 당당함.

당신은 모든 것을 갖는다. 이번엔 나온 새 음반에 대해 얘기해보자.

거의 2년 반을 매달려 작업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겪은 일도 많고, 그 많은 것을 고스란히 음반에 담았다. 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앨범이다.

당신 노래는 대부분 남자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음반도 '보이'로 도배할 생각인가?

이번 음반은 남자 타령이 아닌 내 최초의 작업이다(웃음). 내 사적인 인간 관계에서 영감을 받았나? 그렇다. 내 경험이 담겨 있나? 물론이다. 내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나? 당연히.

당신이 성공한 이후에 예상처럼 등장한 신인 여자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예를 들어

케이티 페어나 레이디 가가, 케사 같은?

현재의 음악 시장은 아주 흥미롭다. 80년대풍이 강하면서 비트가 주를 이룬다. 많은 소녀들이 앞서 말한 아티스트들의 독특한 이미지와 복장을 좋아하고, 그런 신나는 음악을 즐긴다. 나도 케사를 무척 좋아한다. 그녀는 파티 하기 좋은 신나는 음악을 들려준다. 가사도 무척 웃기다.

10대 스타 중엔 놀라울 정도로 망가진 케이스가 많다. 당신은 어떻게 그 진황을 피해갈 수 있었나?

나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지 잊지 않는다. 나는 약간 깃간. 그 전형적인 할리우드 스타일 페인을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

혼자 잘 노나?

음, L.A.는 피파라치 천국이다. 내가 유일하게 사진을 찍히는 남은 친구들과 바나 클럽에 가서 마음먹은 날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클럽에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인데 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말이다.

타블로이드지에 당신 이야기가 실리면 그걸 보고 클릭대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신장이 곤두서는 쪽인가?

그냥 웃다가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 "진짜?" 피라시 매체들은 대체로 자기에 궁중에서 가식거리를 빨아내니까 아이 사람들도 그럴 알고 있을 거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별로 신경 쓰지 않나 보다. 그런가?

신경 쓴다. 하지만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도 안다. 나는 내 음악을 창조하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여기에 왔다.

당신에 대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의외의 면이 있나?

그렇다. 나는 무척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다.

자녀 촬영 땀 못 보면 새 타투가 생겼다. 그것들에 대해 말해달라.

(팔 안쪽을 가리키며) 이런 애비 던(Abbey Dawn)이라고 쓰여 있다. 내 별명이다 내가 만든 유투브 브랜드 이름이다. 친구, 음표, 별 모양 타투도 있다. (상의를 걷어 엉덩이를 보여주며) 아, 그런 여가에 아주 작은 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별이 더 커졌다. 총 5개의 타투가 있다. 하지만 전부 조그만 것들이다.

우린 갈비뼈 쪽에 새긴 FUCK에 더 눈깊이 간다. 이런 두 달 전에 한 거다. 기간... 6개월 전인가?

당신과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MAXIM 독자들에게 조언해준다면?

나는 클래식한 신사를 좋아한다.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꽃을 선물하고 늘 레이디 퍼스트인 남자. 좀 구식인가?





“MAXIM과의 촬영은
언제나 즐겁다.
나에게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실시간 행사
구경하기

BOAT TO ROCK

록을 위해 태어난 새세대들을 만나보자. 국카스텐, 더 문사이너스, 그리고 타바코주식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2012년에는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올 것 같다. 그래서 2012년까지만 열심히 음악을 할 생각이다.”



국카스텐

최축부터 이정길, 하현우, 진규호, 김기범

국카스텐은 인터뷰 내내 유쾌한 에너지가 넘쳤다. 이른 아침 촬영인데도 그들의 커피와 담배 사랑은 끝날 줄 몰랐고, 인터뷰 내내 터지는 개알 같은 유머는 끝없는 웃음을 불렀다. 시나위의 뒤를 잇는 정통 록 밴드라는 타이틀은 이미 확보했고, 자신감은 이미 전설이 된 오아시스를 쫓 쩌 먹은 수준인 국카스텐의 시원시원한 인터뷰를 지금 공개한다. 그들의 라이브를 듣는 것만큼이나 속이 후련해질 거다.

우리나라에서 인디밴드를 한다는 건?

하현우 음악을 순수하게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얼굴이 안 받쳐줘서일 수도 있고, 노래가 안 돼서 인디음악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음악을 하고, 공연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록 밴드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을 거다.

하현우 자기 일을 하면서 록을 하던지 자기 살을 망치면서 록을 하던지 둘 중 하나다. 우리는

싫을 방지하면서 록을 했는데 다행히 잘 풀린 경우다. 우리처럼 0년 동안 록만 하는 밴드는 그리 많지 않다.

시나위와 부활의 뒤를 잇는 록 밴드라는 경이 있다.

하현우 솔직히 부활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 부활은 록 발라드를 부르지 않나? 밴드 스타일은 시나위와 들국화와 비교되는 게 맞다. 부활 노래는 좋아하지만 국카스텐과 부활은 눈 씻고 찾아봐도 비슷한 구석이 없다.



허현우 시운드는 못, 퍼포먼스는 클래식 익스프레스 정도다. 하지만 시운드와 퍼포먼스를 합치면 우리만한 팀이 없다.

라이브에 강한 비결은 빼어난 보컬인 것 같다.

허현우 목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 최근 목이 아파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요즘 광주 MBC 문화콘서트(산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인치환 씨가 게스트로 나왔다. "지금도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라고 물었는데 "예전만 못해요" 라고 답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를 연속 공연을 해도 목이 멀쩡하던데요. 이상하죠?" 타고난 목을 가졌나 봐요" 라고 말했더니 인치환 씨가 "목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인(하지 마세요" 라고 받아주시더라. 나도 이 목이 언제까지 갈진 모르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괜찮다.

곡카스텐은 들을수록 책이 쌓이는 느낌이 든다.

허현우 내가 노래를 책이하게 부른다. 게다가 노래가 동화책이더라 보니 더 색스럽게 느끼는 것 같다.

그럼 여자팬도 많겠다.

허현우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여성이 "오빠 사랑해요" 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 덕분대 음악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잘나가는 록 밴드다. 여자를 적당히 후렸을 텐데?

이정길 흥대에 살면 가능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팀 모두 지방인이다. 공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다(웃음).

허현우 우리는 그런 짓과 거리가 멀다.

전규호 우리는 그럴 틈도 없다(웃음).

당신들은 언제 처음으로 여자와 딱을 쳤나?

전규호 난 20대에 처음 잤다(웃음).

이정길 이런 질문은 다시인사이드의 '동중(이세요?' 라는 질문 이후 처음이다(웃음). 인터뷰에서 밝히기는 어렵다. 확실한 건 우리 중 누구도 스푼트 같은 애 아닌 거다.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겠다.

허현우 예쁘게 알아야 알아본다. 막 일으면 우리 단독공연을 보여 온 사람도 못 알아본다.

이정길 우리가 방을 내놨는데 방 보러 온 사람이 우리를 알아봤다. 하지만 처음에는 방에 들어 있는 곡카스텐 포스터를 보고 우리가 열혈 팬일 거라 생각했다더라. 평소에 인건다운 모양새가 아니라서 말이다(웃음).

곡카스텐이 싫어하는 X 같은 음악은 뭔가요?

이정길 힙합이나 X 같은 음악! 일명 '개러지' 음악이다. 음악을 듣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음악이 있다. 그냥 나서처럼 주절대는 음악이 있는데 정말 싫다.

씨엔블루처럼 인디밴드의 몸을 빌린 아이들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길 그 친구들이 될 일겠나. 라이브 방송에서 기타의 앰프를 천으로 가려놨더라(웃음).

지금은 페지틴(음악방송 리라리)에서 f(x)라고 하고 루나라고 읽는다)의 합동 공연이 인상적이었다. 루나가 노래를 함 발달하게 불렀다.

이정길 사실 '비트리움'이 그렇게 신나게 부른 노래는 아니었다.

허현우 그냥 일처럼 해줬다. f(x)보다 방송국에 기대를 했다. 단순한 합주가 아닌 다양한 시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불어만 놓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재미없었다.

같이 작업하고 싶은 아이들은 없나?

허현우 2년 전 정말 귀엽다. 음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신디라박은 정말 최고다.

앞으로 곡카스텐은 어떤 그룹이 될 건가요?

허현우 우리가 기타를 한 번만 켜고도 사람들이 자지러지는 그룹이 되고 싶다. 오아시스가 자신 록 페스티벌에서 그냥 기타 한 번 쳤을 뿐인데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멋있게 찬 것도 아니라 그냥 대충 한 번 쳤을 뿐이었다.

그렇군. MAXIM이 남성지주 제일 잘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정길 어쨌든, MAXIM은 골리더라.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해 달라.

허현우 MAXIM 독자 여러분! 저희가 나왔다고 너무 사랑하십시오! 마세요. 유감입니다.

김기범 총생



곡카스텐이 영국 록의 전설 오아시스 같은 밴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허현우 나이 먹으면 오아시스처럼 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지금 <2012 신의 귀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2012년에 UFO가 오지 않고 지진도 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악기도 더 많이 사고, 더 열심히 음악을 할 거다.

곡카스텐이 우리나라 라이브 종결자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모두 그렇다.

그렇다면 곡카스텐의 라이브 실력과 견줄 만한 밴드는?

곡카스텐이 '대문 사이키즈', 그리고 '타비군 주스'의 음악가?

대문 사이키즈의 음악? 아직까지 까지 않은 우리 나라의 유일한 로큰롤

타비군 주스의 음악? 유일한 쪼다 음악 라이브를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이었네



“밴드 활동은 연애랑 100% 일치한다.”



더 문사이너스

좌측부터 백준명, 차승우, 최창우

방송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강해 보인다.

차승우 멤버 모두 자의식이 강하다 보니 속으론 싫을지언정 서로를 존중한다. 각자의 캐릭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질서다. 카오스 안의 질서라고나 할까?
백준명 우리 중에 부드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난 밸런타인데이 공연은 어땠나? 정말 오랜만의 공연이었다.

차승우 귀치니즘에 라디오까지 진행하다 보니 정제된 것들이 꽤 있었다. 간만에 공연하니 반갑고 설레더라.

그날 공연에는 커플들로 가득했나?

차승우 커플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성 관



더 문사이너스를 모르는 독자를 위해 미리 밝힌다. 더 문사이너스는 3명 이 아닌 4명으로 구성된 밴드다. 개인 사정으로 촬영에 참여하지 못한 손경호를 대신해 다른 멤버는 합성을 부탁했지만 어색한 필방이 될 위험을 MAXXI이 감수할 수 없었다. 더 문사이너스의 차승우는 (<고 70>의 주연배우답게 카메라 앞에서 여유로우이 똑똑 흘렀고, 기타리스트이자 백작이라는 별명이 더 익숙한 백준영은 진중한 카리스마를 뽐냈다. 여기에 베이스를 담당하는 사키가 최창우는 사운드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현역 라디오 DJ답게 질문의 맥을 잡아주는 차승우 덕분에 인터뷰는 일사천리였다. 다음에는 꼭 더 문사이너스 완전체를 인터뷰할 수 있길 바란다.

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녀 성비가 8 대 2 수 준이었다. 커피는 당 1상이었다. 하긴 커피이 많았던 여성 관객이 이렇게 많진 않았을 거다. 백준영 하지만 그 안에서 연인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나?

이번 화이트데이 공연은 어떤 것 같나? 그날은 남자 관객이 많을까?

차승우 그렇진 않을 거다. 3월 14일 공연에 갈 테니 사랑을 달라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는 걸 보면 여성 관객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리고 흥대인 디스코에 남성 관객이 몇 년 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경제 불황의 여파도 있겠지만 결혼 열풍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다. 정말 결혼 열풍 후 눈에 띄게 남성 관객이 줄었다. 백준영 디들 안방에서 즐기고 있는 거다.

친하게 지내는 걸그룹은 없나?

차승우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그녀들의 연락처를 얻고 싶을 정도다.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은 누구인가?

차승우 솔직히 마음만 건 늘 바뀌는 것 아니겠나? 소녀시대로 걸그룹에 입문했지만 지금은 역시 시크릿이 대세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본좌는 전효성이 아닐까 싶다(웃음).

이제 더 문사이너스는 인디밴드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다.

차승우 사실 좀 어중간한 포지션이다. 압축의 세력으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주류 세력이 되어 볼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압축의 존재가 되는 게 더 재미 있을 거다. 마음고생이나 하지도 음악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음악만이 유일하게 좋은 것이었기에 선택했다. 음악을 하면서 인생이 자꾸 열리는 것 같아서 비로잡히라고 생각했다.

압축 세력으로 활동하면 음악 생활이 더 피곤

하지 않겠나?

차승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 마음 편하게 음악을 하면 우리의 진심과 에너지가 드러날 거라고 믿는다. 백준영 스스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더 문사이너스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법이다.

여제야 음악에 음악을 하고 싶은 나이가 된 건가?

차승우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베테랑이 되면서 타성에 젖다 보니 참재미를 놓치는 일이 많이 있다. 음악을 위해 원시인으로 돌아가고 싶단 생각이 했다.

백준영 우리가 즐겨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게 제일 가치가 있다.

음악 직업은 여자와 연애하는 것과 비슷한 곱지도 모르겠다.

차승우 밴드 활동은 연애랑 100% 일치한다. 멤버 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인디밴드의 틀을 빌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차승우 우리는 단지 로큰롤과 펑크록을 하고 싶었다. 거기에 흥대, 그리고 인디밴드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뿐이다. 그저 유명이냐니 하고 반박을 한다. 인디밴드의 틀을 빌린 아이들 자체는 재미 있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진 않다. 디들 말아서 할 일이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다. 우리 역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니바퀴 안에 속해 있다. 우리가 제도권 밖에 서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록 밴드를 하면 아무래도 여자와 띄는 경우가 많겠지?

차승우 한두 번 불장난한 적은 있지만 의외로 보수적이고 그쪽에 큰 흥미는 없다. 게다가 우리는 늘 고추밭에 있으니까(웃음). 공연장을 찾는 여성 관객도 젠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준영 그런 상황을 마다하진 않았지만 애써 만 들진 않는다. 부자연스럽고 에너지 낭비다.

합합의 전설 투박도 그랬다. 별 불일 없는 여자 쫓지 말고 딸이나 잡으며 생산적인 일에 몰두 하라고 말이다.

차승우 맞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에너지를 창작 에너지로 쓰는 사람도 있다. 풀링 스포츠를 비롯해 수많은 서양 유자선 형님들처럼 말이다.

더 문사이너스를 친해들이 오인 밴드라고도 말한다.

차승우 오히려 그게 짱이 된다. 그만큼 진가를 보여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달리 우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성적표를 받으려는 '노력을 요망'이라는 도장이 함께하는 느낌이란 까? 잘라서 말하자면 친해들이 오였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백준영 하지만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디들 올빈은 언젠쯤 만나볼 수 있나?

차승우 술을 직업에 들어가 생각이다. 올해 안에 디들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아마 날 좋을 때 가 나오지 않을까? 백준영 선선할 때 나올 거다. 추위까지 전에 말이다.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해 달라.

차승우 휴지 소비를 줄이고 책을 많이 읽어라.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잠깐만 뒤진 상관없으니 읽어라.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 휴지 소모는 가뭄만 하면 되지 않나?

백준영 젊음을 과감하게 낭비해라. 그렇게 소진해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

최창우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잃지 마라. 

더 문사이너스가 본 '국카스텐', 그리고 '타타코 주스' 랍 팀은?

국카스텐
유니콘 팀 탭의 진기가 섹트릭을 알고 있다
타타코 주스
흥대 최강의 술바릇을 가진 멤버 2명이 있는 팀



“요즘에는 술버릇이 많이 좋아졌다.”

타바코주는 이제 술을 먹어도 강아지로 변신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강하게 주장했지만 실상을 파악할 방법 따위는 없었다. 사진 촬영에서는 다른 팀을 압도할 만큼 짙은 표정을 지어준 그들이 정작 인터뷰에서는 수줍음을 내비친 건 왜였을까? 평소와 다른 타바코주의 모습이 궁금했다면 당신은 번지수를 잘 찾은 셈이다.

안다멘드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 아니다.
백승화 다른 나라에서 밴드 생활을 안 해봐서 힘든 건지 잘 모르겠다. 일본에 다녀온 애들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밴드 생활하기 편하다는 말도 하더라.

안다멘드를 하지 않았던 어떻게 살았을 것 같나?
권영욱 평범하게 살았을 거다. 게임을 좋아하나까 PC영을 지냈을지도 모른다.

무슨 게임을 특히 좋아하나?
권영욱 <위닝 일레븐> 같은 게임을 좋아한다. 온라인 게임은 가끔 하는데 이른바 때만 즐긴다(웃음). 레벨 60까지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다.

요즘도 술 마시면 늑대로 변하나?
권기욱 요즘에는 술버릇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며칠 전에 권영욱이 술을 먹고 뒤에 X질하긴 했다.
권영욱 술을 먹고 흥분하면 옷을 벗는 버릇이 있다(웃음).

예전에 비해서 당신들의 이름도 많이 알려졌다. 권기욱 1,000명 중 1명은 알려나? 사실 대부분 잘 모르더라.

권영욱 광범한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음악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나루토 짤방’으로 알려진 게 크니까.

그들의 팽방 얘기는 이제 지겹겠다.
권기욱 예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쿨하게 넘길 수 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밴드와 함께 공연하면 어떨까?

권영욱 같이 하면 시너지가 생기지만 아무래도 청중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먼저 공연한 팀에 너무 질해버리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록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자도 좀 따먹었겠다.
권기욱 우리 밴드는 오히려 남자들이 코인다. 술을 먹다 친해지는 남자 팬도 많다.

권영욱 외국 록 스타처럼 여자 2명을 끼고 난장하게 놀아보는 게 꿈이었지만 그런 꿈에 불과했다.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X 같은 음악은 뭔가?
권영욱 나이 어린 녀석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건 정말 싫다. 벗고 나오는 건 더 싫다. 그건 트로트를 욕되게 하는 거다.

타바코 주의 음악은 한마디로?

권기욱 이지 리스 한마디로 듣기 쉽고 따라 부를 기 쉬운 음악.

하지만 당신들은 진상 음악의 최고고교만 얘기도 듣는다.

권영욱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닐까? 음악적으로는 자신 있다.

새 음반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
권영욱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미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올봄에 나왔어야 했다. 올해 안에 내놓고 싶다.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권기욱 밴드를 해라. 직장인이면 직장인 밴드. 음악을 하는 생활을 즐겨라.



좌측부터 송학춘, 권영욱, 권기욱, 백승화, 설호림

“그래도 내 얼굴보다는
음악을 더 좋아해달라.”



미료)

김정애 언더웨어 로제
별간색 니트 코데즈컴바인
줄무늬 레깅스 라니아

제아)

줄무늬 블리우스와
흰색 청바지의 구두
모두 게스

▶ 제아&미료

데뷔 6년 차다. 4인조 걸그룹은 5년 주기로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들은 어떤가? 우린 끝까지 함께할 거다. 데뷔한 지는 꽤 됐지만 대중에게 사랑받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이다.

조만간 4집 정규 음반이 발매될 예정이다. 음반의 콘셉트는? 비밀이다. 아마 우리 목소리에 포인트를 주는 음반이 되지 않을까?

'LOVE'로 인기를 얻으면서는 목소리보다 안무, 퍼포먼스만 기억에 남는다. 진보적인 음악을 추구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음반에서 타이틀곡 외에는 예전 스타일의 음악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클로델인 여자 가수? 이화리와 양정화. 둘 다 자신만의 이미지를 잘 구축한 데다 음악에 대한 욕심도 굉장하더라. 게다가 웃을 줄 압니다(웃음).

브라운은 한미디로? 어려운 노래도 브라운이 소화하면 접근하기 편한 음악이 된다. 열심히 해서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

같이 작업하고픈 남자 아이돌이 있다면?

미료: 빅뱅의 태양

제아: 아이들은 아니지만 나얼이나 타이거 JK



“브아걸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브라카타브라’ 첫 방송 때다.”



상의 리미코
가죽 스킨 에디터 소정
재킷 시스텔
스트랩 슈즈 슈조현

⇒ 제아

미로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왜소했다.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의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게 눈에 보였다. 나중에 미로의 솔로 음반 프로듀서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멤버 중 노래 실력이 가장 빼어난 사람은? 본인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고 미로가 가장 독특하다. 오로지 맑고 투명한 목소리만 가졌다. 천상의 목소리다(웃음).

본인 목소리가 슬픈 노래와 잘 어울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 목소리는 슬프고 어린 편이다. 그래서 드라마 O.S.T.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댄스음악을 불러도 슬프게 들린다는 말도 들었다. 지금은 밝은 노래도 잘 부른다!

그럼 댄스음악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멤버는 누구인가? 바로 내(웃음).

브이컴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 3집 '아 브라키타브라'의 첫 방송 공들인 작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라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무대에서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올 하반기에 솔로 음반을 내놓는다고 들었다.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팬 입장에서 기다림이 지루할 거다. 작곡을 비롯한 음반 작업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팬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려주겠다.

당신의 목표는? 뮤지컬에 관심이 많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를 창작 뮤지컬로 옮긴다면 그 뮤지컬의 O.S.T.는 꼭 내가 만들고 싶다. 물론 미로의 솔로 음반 프로듀서에도 욕심이 있다(웃음).



3 THINGS THAT THEY TELL YOU...

30대 여자가 매력적인 이유 3가지

1.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2. 그간의 경험으로 정신적 여유도 있다.
3. 여기에 노하우가 쌓여서(?) 더욱 예뻐진다.

성형 시 주의할 점 3가지

1. 조각처럼 예뻐지려는 과한 성형 금지
2. 자신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라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라.
3. 좋은 병원을 찾아라
싸다고 무턱대고 가면 낭패다.





➤ 미로

브야걸의 입짜베기만 소문을 들었다. 작사, 작곡으로 저작권료 수입이 퍽퍽하다던데?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좀 주춤하다(웃음). 분발해야 한다.

그럼 요즘에는 누가 입짜베기인가? 모르겠다. 모두 재산 공개를 해야겠다! 다들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 참고로 저작권료가 한번 터지면 무섭다(웃음).

자신 대선 투표 인증, 걸그룹 최고 브라운 등 당신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화제를 뿌렸다. 조금 아쉽다. 뮤지션의 이미지를 어떻게 더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하나다. 술로 음반만이 답이다(웃음).

예전과 비교하면 놀랄 정도로 예뻐졌다. 그래도 내 얼굴보다는 음악을 더 좋아해달라!

하니패밀리 시절의 거친 분위기가 훨씬 풍기는 힙합 음반을 준비할 생각은 없나? 어린 시절엔 힙합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힙합만 듣진 않는다. 최근에는 일렉트로니카에 끌린다. 솔로 음반은 다양한 장르로 접근할 생각이다. 물론 래퍼로서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의 곡은 들어갈 거다.

무대에서 랩을 하지 않을 때는 무얼 하고 있나? 방송에서 내 모습을 유심히 보라. 제이는 표정 관리만 하지만 난 정말 춤을 열심히 춘다(웃음). 춤을 추는 게 무척 좋다.

당신의 자랑점은? 미국에 진출해 그래미상을 받는 게 꿈이다. 3~4년 전부터 키워온 꿈이다. 이런 목표가 있어 다행이다. 일단 보고 달려가는 목적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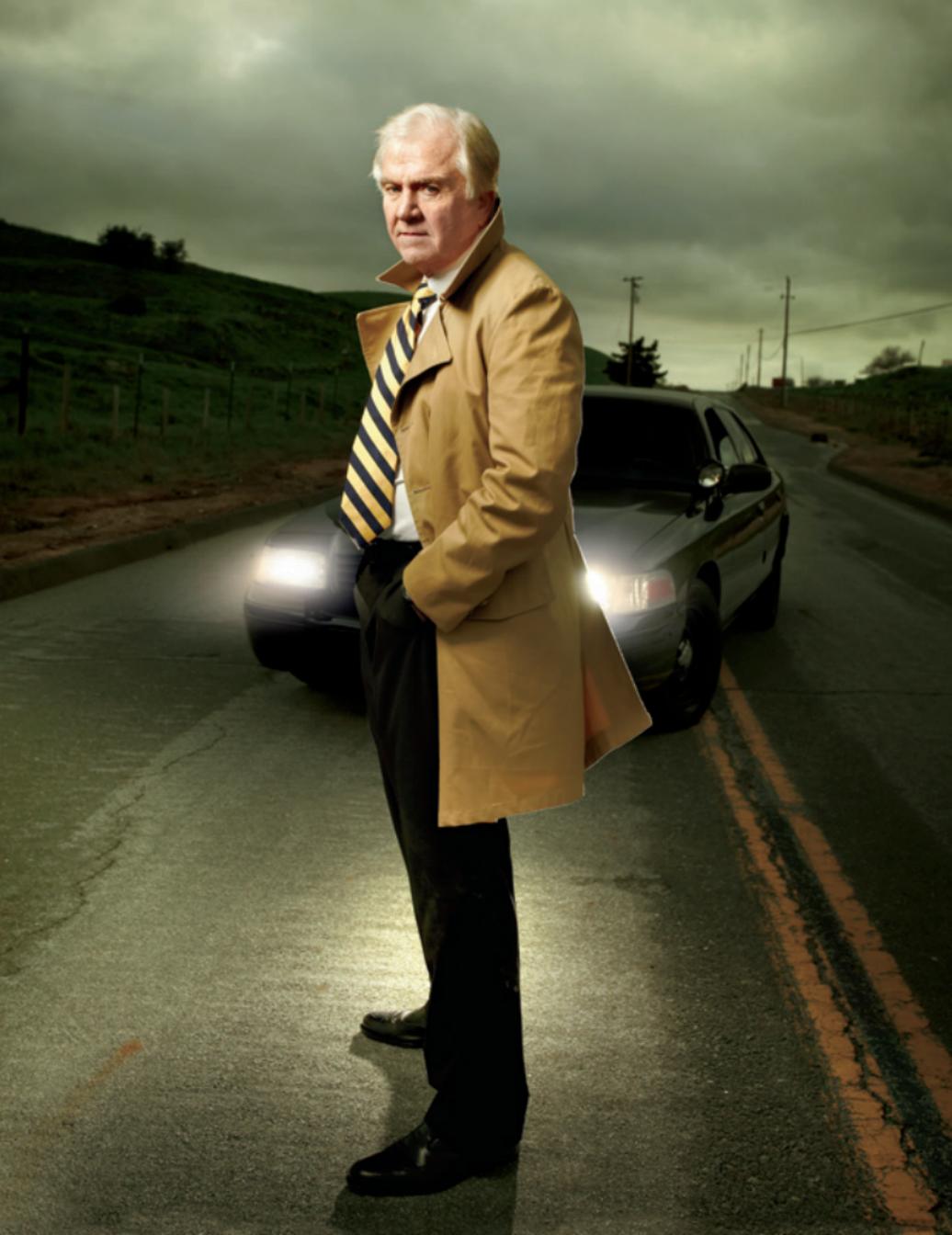
“내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살인자를 잡는 것.”

FEI의 전설적인 프로파일러 존 더글러스가 들려주는 살인마, 위험할 땐데 강간범 등

인간사냥꾼들의 어둠과 뒤돌린 정신세계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그리고 섬뜩했다.

By Lorenzo Carasterra Photograph by Alex Farun





늦은 시간, 가로수가 줄지어 선 조용한 주택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연쇄 살인마를 사냥하는 일이 밥벌이 수단인 남자, 존 더글러스가 팬을 놓았다.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서재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약간의 휴식이 필요했다. 일이 주는 긴장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단 몇 분. 그날 밤 존 더글러스는 10대 소녀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남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가 거실을 지나 10대인 두 딸이 잠들어 있는 침실을 바라봤다. 그리고 순간 그는 딸아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서둘러 아이의 방으로 뛰어가 문을 열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본능적으로 불쾌하고 불안한 느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더글러스는 다시 거실로 뛰어나와 현관으로 달려갔다. 열려 있었다. 불안한 느낌은 이제 공포로 바뀌었다. 살인자는 그에게 협박을 해왔다. 그리고 그 협박은 현실이 되었다. 사냥꾼의 딸이 사라졌다.

“처음 든 생각은 그가 내 딸에게 접근해 데려갔다는 것이었어요.” 더글러스가 말했다. “총을 집어 들고 차에 올라타서 이웃집 주변을 달렸지요.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딸애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잠깐 나와서 신발을 하고 있더군요. 허. 살인마들이 당신에게 주는 공포가 바로 그런거예요. 우리 중 누구나 그들의 사랑감이 될 수 있어요.”

존 더글러스는 연쇄 살인마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저명한 프로파일러다. 그는 살인마를 잡아 범정에 세우는 일에 거의 일생을 바쳤다. 가끔은 동시에 수십 건의 사건을 맡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 FBI 행동과학부(Behavioral Unit)를 설립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찰스 맨슨, 테드 번드, 제프리 더머 등 악역 높은 살인마들과 일대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살인 동기를 분석했다. 살인마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막대 기사를 참조하라. 여기서 얻은 결과는 다른 살인마들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었다. 알 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존 더글러스는 수많은 영화 속 배역의 모델이다. (영화들의 침묵)에서 스티링의 상관인 잭 코르퍼디스(코트 클레인 분), (맨 헌터)의 잭 로퍼(데니스 파라나 분)가 바로 그를 보고 만든 역할이다. (레드 드래곤)의 하비 케이틀 역시 존 더글러스를 연기한 배우 중 한 명이다. 그리고 현재 HBO가 더글러스의 첫 번째 저서 (인턴 헌터)를 시리즈물로 만드는 중이다. 데이비드 핀치가 감독과 프로듀싱을 맡았다. 1990년 CBS의 형사 시리즈물 (월 캣츠)에는 존 더글러스라는 인물이 그대로 등장했다.

이게 나야, 내 모습이야

더글러스는 1945년 미국 브루클린의 한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그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의사 일을 했다. 가고 싶은 대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다. “코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군에 지원했죠.” 전화위복이랄까? 더글러스가 처음 FBI와 인연을 맺은 것도 공군 부무 시절의 일이다. 그는 스물다섯이 되던 해 FBI에 입사했다. 그해 5명의 동기 중 최연소였다.

1972년 수퍼볼 선데이슈퍼볼이 열리는 2월 첫째 일요일을 그는 잊을 수 없다. FBI 요원인 그가 연쇄 살인범 추적에 몰두하겠노라고 처음 마음먹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당시 더글러스는 전국에 걸친 도박 조직원 처벌하는 일을 맡고 있었

살인자의 줄 | 존 더글러스가 만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자들



찰스 맨슨

BODY COUNT: 1969년 그의 추종자들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일산한 아내를 포함해 8명을 살해했다.

DOUGLAS SAYS: “찰리가 원래부터 음울한 구도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는 유명한 부자가 되고 싶었다. 드러머가 되어 비쳐보듯이 같은 유명한 록 밴드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테드 번드

BODY COUNT: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자살이 5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고백했다. 강간과 시체에유중을 일한 살인이었다.

DOUGLAS SAYS: “테드 번드는 복역 중 사해물의 강간 위기관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존 웨인 게이시 주니어 (광대 살인마)

BODY COUNT: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어린이를 위한 자선 행사에 관례로 분장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33명의 소년과 젊은 남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했다.

DOUGLAS SAYS: “그가 사형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내 농구장에 보편하 해’ 였다.”



데이비드 버코워츠 (삼의 아들)

BODY COUNT: 1976년부터 1977년까지 6명을 살해, 9명을 다치게 했고, 불잡힌 뒤엔 “열집의 게가 나에게 그러라고 시켰다”고 범행 이유를 말했다.

DOUGLAS SAYS: “그는 우리에게 무덤가로 돌아와서 휴위를 구르며 환상에 젖고 싶다고 말했다.”



1. <강도의 침묵> 세트장에서 조디 포스터와 존 더글라스(왼쪽)
2. 그가 무죄라고 믿는 아리엔다 녹스의 모습(오른쪽 위)
3. 아이의 부모가 살인 혐의를 받았던 유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존베트 탭제오른쪽 아래와 실제 살인자(위)

다. 하루에 천 장이 넘는 마권을 뒤지고, 최대한 많은 도박장을 찾아 문을 닫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그날 하루에만 3명이나 잡았어요." 더글러스가 그날을 회상했다.

"한 남자가 내 인생을 바꿨지요. 이름은 프랭크. 30대 초반이었어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 뒷좌석에 그와 함께 앉았죠. 그는 바키 약속처럼 쏟아지는 장바늘을 비껴보고 있었어요. 내가 물었죠. 왜 도대체 이따위 짓을 하지? 거의 매년 붙잡혀 들어오고, 가끔은 감옥에서 몇 년씩 써기도 했잖아? 이유가 뭐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아마 모를 거야." 그가 차 뒷자리로 몸을 돌려 밖을 보았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 빗방울을 중하네. 풀라봐. 다음엔 내가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러던 나는 나가 고른 빗방울이 내 것보다 먼저 떨어질지 아닐지 내기를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슈퍼볼 때와는 필요 없어. 빗방울 두 개만 있어도 <도박이> 되지. 이게 우리 도박사의 모습이야. 당신이나 당신 비슷한 사람들은 우리 교화할 수 없어.'라고요."

더글러스는 말을 이었다. "바로 그것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고, 우리의 모습이야.'"

그 말이 도박사들의 본질이라면 다른 범죄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다른 모든 범죄에도 통용되는 것이 아닐까? 난 그것을 파고들어야 했죠."

그는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강력계 형사들과 법의학자의 업무에 속도를 맞추면서 그들을 꾸준히 관찰했다. 범죄 패턴을 연구하고 범행 동기와 행위의 유사성을 추적했다. "그러려면 피해자와 살인자, 둘 모두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해요." 그가 말했다.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상상해보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는 거죠. 시간이 가아할수록 사실을 해결하긴 더 쉬워요. 핵심은 늘 행동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밖으로 나가 그 일을 저지르게 했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다음은 용의자에 집중하고 그를 추적합니다."

그는 이후 전국을 여행하며 연구에 속도를 높였다.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와 오레곤의 사무실에서 단기 업무를 하던 그는 한 가지 외한 점을 발견했다. "우리는 당시 최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어떠한 FBI 요원도 직접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



제프리 다머

BODY COUNT: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최소 17명의 남자와 소년을 살해했다. 강간과 뇌 절제술, 사체 투박하기, 사체 예복, 인육 섭취 등도 저질렀다. 그는 감방 안에서 죄수에게 살해당했다.

DOUGLAS SAYS: "그의 범죄는 역겨웠지만 놀랍게도 그는 정상인이었다."



게리 리치웨이(그린 리버 킬러)

BODY COUNT: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최소 60명의 청년과 가솔린 사람을 목졸라 죽였다고 자백했다.

DOUGLAS SAYS: "피해자는 모두 질서있고, 웃이 벗겨진 상태였다. 그중 피해 여성 2명의 성기에서 자국이 발견됐다."



데니스 린 레이너(BTK 스트렙러)

BODY COUNT: "무고, 공포하고, 죽인다(Bind, Torture, and Kill)"는 의미의 BTK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974년부터 1998년까지 10명을 살해했다.

DOUGLAS SAYS: "언론 해체에 편지와 그림을 보낸 사람이. 우리가 추적해오던 바로 그런 타입의 인물이었다."



존 무하마드와 리 말보(D.C. 스니퍼)

BODY COUNT: 2002년 10월 워싱턴 DC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10명 사망, 3명 미상을 당했다. 바로 그 범인들이었다.

DOUGLAS SAYS: "스스로를 구세주라 여기는 타인의 범죄 프로파일에 들어맞았다. 수많은 미디어에서 '쇼우 전파'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잘못된 프로파일링을 지껄어 했다."

쥬 그래서 나는 그를 찾아가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도 인터뷰했어요. 샘의 아들부터 제프의 대머리까지 회사 안에서 연구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그들과 인터뷰하는 동안 배울 수 있었죠.” 더글러스는 살인마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범죄자를 심문하는 경향이아 분석하려는 심리학자도 아닌 그들이 원하는 존재, 즉 팬의 모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자들은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백을 듣는 걸 좋아했다. 더글러스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었다. 그는 살인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함께 숨 쉬며 살고 있는 의미를 대변했다. 인질 협상가, FBI SWAT 팀의 멤버, FBI 프로파일링 팀의 창설자, 수사공조연구국의 수장, 그리고 범죄 심리학 학자로서 수년간 쌓아온 전문가의 경험으로 철저히 무장한 채 말이다. 그리고 그 밖에 들어서서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은 시험대에 오른다. “나는 그들이 그 공간을 지배하도록 돕는다.” 더글러스가 말했다. “이들이 얼마나 청문을 바라 보게 하면서 탈출에 대한 환상을 펼칠 수 있게 하든가. 그들이 틀어쥔 뒤 그들이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말요?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듣게 하고 그들의 예사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글러스에게도 살인마들과의 대화는 구역질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회한이나 후회와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비슷한 대상과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유도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웃어야 해요. 속으로는 그의 지독한 범죄 행위에 역겨워하면서도 말요.’ 범죄자처럼 생각하는 그의 능력은 그런 리버 킬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리버 킬러는 1982년부터 1996년 사이에 4명이 수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이다. “당시에 경찰이 잡고 있던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더글러스가 말했다. “경찰은 게리 라자레이를 수차례 심문했어요. 그는 거짓말 탐지기도 두 차례나 거쳤죠. 두 번 다 어떠한 거짓말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약 60명의 여성을 죽인 이 살인마의 패자는 전부 몸 따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죽 그 머릿속에서 자신의 연쇄 살인은 가리의 여자들을 청소하는 공공 서바이버였단 거죠. 시체를 경찰에게 내 이혼을 말해줬더니 그들이 다시 계리를 데려와 심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었죠.”

악몽의 시간도 있었다

더글러스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런 리버 킬러 사건을 해결하던 도중 그는 바이러스 뇌염에 걸렸다. 체온이 41°C에, 혈압은 220까지 치솟았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인공이 마비되었고 발작 증세까지 생겼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한 뒤 그는 공장 애플센터의 어린이 연쇄 살인마, 웨인 윌리엄스의 사건에 뛰어들었고, 최초의 흑인 연쇄 살인마 범정에 세웠다. 또한 더글러스는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도 해결했다. 범인은 로버트 한센이란 미친개였다. 그는 길에서 차녀를 갈라 버렸다가 태워 일래스카의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 풀어놓았다. 그 여자들을 마치 동물처럼 삼킨다기 위해서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더글러스는 영국의 요크셔 리버 살인마, 샌프란시스코의 가질 살인마 등도 해결했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인간 중의 가장 위험적인 모습을 대면하는 시간 그 과정에서 겪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육체적 고통뿐이 아니었다. 정신적인 비통한 역시 상당했다. “악몽을 꾸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연쇄 살인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스스로를 대항 형벌상의 정신세계로 몰아가고 엄청난 공포와 고통의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냈다. 그 장면들은 그가 판단한 후식을 허하는 시간에 불꽃 찾이와 그를 괴롭혔다. 그는 현범중에 깨어나서 자신이 꿈에서 본 살인마에 대해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생생한 이미지를 말이다. 그는 범죄자를 감자하고 그의 수법과 동기를 파악하여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범죄를 저지를 때의 기분을 느끼며 그 시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그는 이 잔혹함과 살인마가 범죄를 저질 때 느끼는 만족감을 똑같이 느끼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왔다.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 가장 말바닥에서 그가 곧 살인자다. 모든 것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그러곤 어둠의 침묵에 달린다.

우리 안의 영웅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살인마들이 다음 범죄 대상의 목숨을 빼앗기 전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들을 사랑하는 이로부터 빼앗기 전에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살인자의 줄 | 존 더글러스가 만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자들



웨인 윌리엄스

BODY COUNT: 2명의 남자를 살해한 뒤 로 윌리엄스를 받았다. 거기에서 1974년부터 1981년 사이에 29명의 어린이를 살해했다 고 추정된다.

DOUGLAS SAYS: “그의 두꺼운 안경과 부드러운 외모, 성난 손은 보면 연쇄 살인마를 떠올리기 쉽지 않다.”



에일린 워너스

BODY COUNT: 1989년 12월 19일부터 1990년 11월 19일까지 7명의 남자를 살해해 ‘최초의 여자 연쇄 살인범’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녀는 창궐했는데 살해된 남자가 그녀를 강간했거나 강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DOUGLAS SAYS: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 남자들을 죽이고 돈을 벌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그렇게 것이다.’”



에드워드 게인

BODY COUNT: 1950년대에 2명의 여자를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근처 지역에서 셀 수 도 없는 많은 사체가 발굴되었다.

DOUGLAS SAYS: “그는 사체의 피부를 뒤 눈 훑어해 자신의 몸에 두르고 싶어 했다.”



로버트 한센

BODY COUNT: 최소 17명의 차녀를 비행기에 태워 일래스카로 데려가 풀어주는데 그는 사랑하는 연쇄 살인마.

DOUGLAS SAYS: “키가 작고 가늘은 체구에 얼굴에 금보 자국이 있으며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 하지만 그는 몸 따는 여자들을 잡아도 더 천천히 죽여 버렸다.”



(1) 광대 살인마 존 게이시가 그린 그림들
(2) 존 더글러스가 감기에 걸렸을 때 찍은 영국의 요크셔의 살인마 피터 슈트르리프의 모습
(3) 게이 리지웨이 사체를 유기한 장소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4) 살해 당한 사본의 모습
(5) 찰스 맨스의 무리에 게 살해당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아내 사본의 생전 모습
(6) 찰스 맨스의 후종자들
(7) 에드 게인스의 집안 내부
(8) 48명의 인명을 빼앗은 그린 리버 길러 게이 리지웨이가 2003년 법원에서 피해자가 죽도록 미주했다
(9) 찰스 맨스 후종자들이 살해한 사체를 들고 있는 경찰의 모습

2, 3, 8, 9 IMAGES Getty Images

더글러스는 1995년 FBI에서 은퇴하여 현재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살고 있다. 종종 경찰 등 사법기관이 해결하기 힘든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는 현재 웨스트 엠피스 3인3명의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10대 3명과 이보다 녹시(이탈리아어) 롬베이트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미국 인(여학생) 사건을 맡고 있다. "문다는 혐의가 없어요. 확실해요." 더글러스가 말했다. "그녀의 행동에서 성격을 추측할 수 있는데, 녹시 양의 과거 행적에서 그는 그녀가 살인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웨스트 엠피스와 녹시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증거보다 가설을 입세운 경우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치명적인 오류로 이어지죠. 게다가 이탈리아 경찰은 범죄 현장을 완전히 훼손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존베네 램파리는 여아의 부모가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 당시 더글러스는 그 부모의 편에 섰으며, DNA 증거 감식 결과는 무죄로 밝혀졌다. 그 때도 그는 증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니, 이 경우엔 그의 이론과 가설이 먼저였고 경찰의 느린 증거 감식이 뒤를 따랐다고 해야 맞겠다.) 범죄 행위의 증거를 연결하는 그의 능력은 존 더글러스를 연쇄 살인마들이 두려워하는 범의 수호신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들의 비밀을 안다. 그는 그들에게 대해 연구해왔고 그들의 잘못된 의식 절차에서 패턴을 꿰뚫어본다. (한 연쇄 살인마는 피해자를 묻은 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반드시 피크닉을 나왔다. 연쇄 살인마의 의식 절차는 (엑스터)의 엑스터가 살인

을 할 때 죽이려는 대상에게 왜 당신이 죽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죽은 후엔 그의 뒷방문을 슬라이드에 오르는 것 등에서 나타난다.) 더글러스에겐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런 다음엔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증거 정보들로 자신의 이론을 탄탄하게 무장한다. 역병처럼 반복되는 진축한 심문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FBI 행동과학부는 연쇄 살인범을 검거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다. 범죄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은 세계의 경찰들에게 전달되고, 사법기관은 이를 인력 실제 수사에 적용한다. 존 더글러스는 이것의 사법정지자 최정점에 선 전문가다. "하지만 뿌리를 뽑을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죽이고자 하는 욕구, 살인을 향한 갈증이 이 세상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 빨리 쫓고, 더 빨리 범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예전보다 더 어떻게 세웠던 롬베는 여전히 나이에 비해 날렵했다. 그가 먼저 처음 FBI의 문을 박차고 출동하던 시절보다는 분명 움직임이 둔해졌지만, 오랜 시간 그는 범죄자의 마인드를 읽는 능력과 살인마의 먹잇감이 되새기지 않지도 않도록 빠르게 반응하는 노하우를 쌓았다.

존 더글러스는 최초의 프로파일러이자, 여전히 최고의 프로파일러다. 그는 연쇄 살인범의 어두운 꿈을 거듭 좌절시키는 강아이다. 그는 연쇄 살인마에게 자신들이 타인에게 주는 공포를 역으로 맞보게 하는 사람이다. 연쇄 살인범들의 악몽 속엔 더글러스, 바로 그가 있다.



특수부대

X - F I L E

당신이 술만 치면이면 내뱉는 “특수부대 출신” 개드립은 넘어가주겠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어떤 특수부대가 있는지는 알고나 지킬어야 되지 않겠나?

WORDS BY AUGUST IMAGES Getty Images



미드 (NCSI)나 영화 (S.W.A.T)를 보며 우리나라는 왜 악당 옥수수를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풀나는 스페셜한 부대가 없을까란 생각 한 번쯤 했 봤을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레알 특수부대가 있었다. 이번에 소말리아 해적을 속 시원하게 발라버리고 인질을 구출한 UDT/SEAL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심호 주얼리호 인질범을 상대로 한 구출 작전에서 프랑스나 러시아 특수부대 못지않게 신속하게, 인질은 100% 무사하게 구출하면서 국내외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동안 활약할 기회(?)가 없고 사람 같지 않은 북한 특수부대에 눈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나라 특수부대의 실력은 해외에서도 알아줄 만큼 정평이 나 있다.

개나 소나 특수부대
 대한민국 헌역 예비역 군버리들은 술만 마시면 입에 거품을 물고 "난 특수부대 출신이다" 라고 자랑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초급원도 간파할 뺑가로 끝까지 우기는 건 "난 군대생활 정말 X해서 그랬다"는 걸 증명하고픈 유치원생 마인드 때문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군버리에게 쉽고 간단한 보직 따위가 어디 있겠나. 그럼에도 특수부대 출신임을 고집하는 건 특수부대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 훈련이 많고 근무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 특수부대는 웬데?
 특수부대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라고 정

의를 내리던 꼴치 아프다. 어떤 임무를 특수한 것으로 볼 것인가? 군견병, 상무부대에서 공 차는 선수, 공관의 담뱃방도 특수 임무를 수행하니 특수부대인가? NO!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수부대는 '훈련이 백세고, 전투력 극강인 부대'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특수부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기준이 불만인가? 그렇다면 MAXIM 편집부에 평들을 던져라! 필자는 MAXIM의 요구대로 글을 쓴 작평이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
 우리나라는 60년 정규군을 보유한 군사대국이다. 특수부대 역시 질과 양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최

근 파란된 심호 주얼리호 해적 소탕작전에서 해군의 UDT/SEAL 대원들이 활약한 덕분에 특수부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실전에서 활약한 모습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과거 특수부대원은 군복 모양부터 달랐다. 공수부대는 일복무늬와 베레모가 특징이었다. 이런 친구와 함께라면 세상 가질 것이 없었다. 그들의 전투력은 일반인을 가볍게 상할(?)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세계의 특수부대 - 1

그럼 해외에는 어떤 특수부대 형식들이 있을까?



미국 / 네이비 씸(Navy Seal)

미국 해군의 특수부대인 'SEAL'이라는 단어가 Seal(배다, A(하늘), Land(땅)의 합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 수중전, 공중전, 지상전까지 물론 가리지 않고 무장된다.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자처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다. कैलि포, 대 테러인, 인질 구출 작전 등 필요한 시간이면 바로바로 투입된다. 지원관, 팀장, 돌격요원, 저격수, 사수 등 6명 이상의 팀을 이룬다.



육군

특수전사령부(UDT) 쓰고 특전사라고 읽는다)

육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다. 흔히 공수부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전략 거점을 기습타격하거나, 요인 납치 등 후방교란 작전을 펼치는 것이 주된 임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다. 특전사의 박력 넘치는 시범훈련에 흥건한 UAN의 왕세자가 자국 군 훈련을 위해 파병을 요청할 만큼 이들은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다. 현재 특전사는 몇 개의 공수특전여단과 특수임무단, 특수임무대대 등 여러 단위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특전사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707특임부대는 고난도의 특수임무 및 대테러전에 투입된다. 서울을 수사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독거미부대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특임중대다. 언론에도 종종 소개되는 우리 여군 최강 전신사의 집합소다.

특공여단&특공연대, 수색대대&수색중대

특공여단과 특공연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주된 임무가 조금 다르다. 특공여단은 전시에 후방에 침투한 적 특수부대를 소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제2작전사령부 후방에 몇 개의 특공여단이 있다. 특공연대, 수색대대, 수색중대는 특전사처럼 적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 거점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전

선 바로 뒤의 거점 지역에 침투하여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특전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전투 병력 구성이다. 특전사는 지원한 부사관들로 부대가 꾸려지는데 비해, 특공부대나 수색부대는 차출된 일반병으로 구성된다. 특공부대는 군단지함의 특공연대, 각 군단에 특화된 강습대, 그리고 특공대대가 있다. 수색부대는 사단지함, 수색중대는 연대지함 부대로 특공연대와 동일한 임무에 투입되는데 상급부대 역할에 따라 작전 활동 영역 차이가 다소 있다.

무장 상태, 작전 범위 등을 고려할 때 능력이 일부 제한된 이들 부대까지 특수부대로 보는 건 무리가 있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군의 경비여단, 지역연대, 장항대 등을 특수전 전력으로 분류한다. 차출된 병력이지만 특공대원이나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 받는 훈련은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이들의 자부심을 고려한다면 특수부대 범주에 넣어도 손색이 없다. 즉 대한민국 육군은 연대 정도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셈이다.



해군

특수전여단(UDT/SAEL), SSU

해군에는 아덴만에서 멋지게 활약한 해군 특수전여단(UDT/SAEL)이 있다. 964년 창설된 UDT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특수임무부대다. 한국전쟁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상륙한 특수임무에 투입된 부대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지휘를 받지 못했고 유격부대도 아니었다. UDT/SAEL은 수중 폭파 및 육해공 합동 타격 임무가 가능하여 상륙전초부대 역할을 수행하지만 최근에는 대테러 임무에도 투입된다.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SSU라는 해난구조대라고 쓰고 특수부대라 읽는다고도 있다. 해난구조를 위한 부대지만 훈련강도는 전 군 통틀어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들을 특수부대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세계의 특수부대 - 2

그럼 해외에는 어떤 특수부대 형식들이 있을까?



영국 / SAS(Special Air Service)

영국 육군 SAS는 1941년 북아프리카 전선의 적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특수부대다. SAS는 특수보트 작전과 특수 정찰 연대, 영국 특수부대로 구성되는데 각각에서 일부가 병합되면서 정교도 잘 훈련된 정예부대로 손꼽힌다. 90년 5월 9일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에 납치당한 5명의 테러리스트를 광공하게 제압하는 모습은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일약 스타워드가 되었다.



러시아 / 스페츠나즈(Spetsnaznoye nazrenie)

러시아의 붉은 군, 곧 러시아의 붉은 배려로 스페츠나즈는 테러리스트도 X용을 써서 만드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다. 냉전시(에는) 주요 전략 시설들에 대한 정보 수집, 요인 납치 및 암살 등을 주로 수행했다. 한 번 투입되면 작전 지역을 초토화하여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일말의 자비심을 갖지 않는 걸로도 유명하다. 특별한 목적의 '레드'라는 이름답게 부대원이 되는 조건도 까다롭다. 목숨을 건 태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마지막 관문은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찌러봐야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용기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함이라는데 일단 들어 X가 웅장할 지경이다. 특검 무서운 붉은 붉은 함성이다.

공군

공정동체제(CCT)

공군 무시하!?! 공군에도 붉은색 베레모가 인상적인 CCT라 불리는 공정동체제가 있다. 이들은 작전에 미리 점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아군의 목적, 근접한공지원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적에게 격추당해 적선에 고립된 이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에 투입되는 제방색구조전대는 입무 특성상 훈련장이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종류의 침투가 가능해야 하므로 육군 특전사, 해군 UDT/SEAL부대, 해병대 신의 레펠 훈련까지 3종 세트를 3년 동안 받아야 한다.

그 외 특수부대

해병대는 엄밀히 따지면 특수부대는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돌파리엔 서러울 만큼 빠른 훈련을 받으며, 북한은 해병대 상륙저자용으로 동사해안 후방에 4개 군단을 배치할 만큼 해병대를 위협적인 특수부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특수부대 가아니라고 손사래 칠 필요도 없고, 전투력 역시 특수부대라 부르기 충분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 '해병대 중의 해병대'라고 불리는 특수수색대는 최정예 용사의 집합체다. 군은 아나지민 구성원 대부분이 특수부대 예비역 출신으로 구려진 경찰특공대이든 바 SW와와 해경 특수부대 역시 특수부대에 모자람이 없는 전투력을 자랑한다.



세계의 특수부대 - 3

그림 해오에는 어떤 특수부대 형님들이 있을까?

이집트 / 777부대

어떤 테러리스트도 이집트 항공기를 납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설의 특수부대. 1966년 10월 이집트 737 항공기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777부대가 인질 구출 작전에 전력 투입됐다. 비행기 외벽을 폭파한 후 개로 돌격해 테러범을 제압한다는 계획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8시간 777부대는 개를 구르는 물은 테러범 위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개를 주인을 찾아가서 수류탄을 뿌려냈다. 그 덕분에 인질 테러범, 특수부대가 유류인 난전이 벌어졌고 인질 100명 중 사망 5명, 부상 40명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최고의 하이라이프는 난전을 피해 비행기에서 겨우 탈출한 인질을 저격수가 테러범으로 오해해 사살하는 장면이었다. 인질아픈 뭐든 일단 까고 보는 777부대의 위업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이집트 항공기는 테러리스트의 위협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GIVE ME CHOCOLATE, PLZ!

벨란토인테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자민월)이제껏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속이 좀 쓰릴 거다. 하지만 MAXIM 에디터들은 술로든 커피이든 이 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초콜릿을 받았다. 누구한테? 여자한테. 그것도 스물셋을 차려입은 색다른 그날로부터 앞이다. 부럽지? 지난 12일 청담동의 럭셔리한 클럽 ANNE'S CLOVER에서 열린 벨란토인 파티에 왔다면 당신도 색다른 여자가 주는 은혜로운 초콜릿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초콜릿을 미구미구 뿌려대 우리를 뜨겁게, 더 뜨겁게 만들어 주었던 그녀들의 정체가 궁금해서 수소문해봤더니 한 파티 레귤러의 예쁜 여직원들이란다. 다음에 파티하면 무조건 기쁘고 그녀들의 초콜릿 세례 때문인지 말 다했지 뭐. 혼자 왔다 돌아도 좋아 보이네. 하룻밤에 200명 정도 다 다녔으니 말 다했지 뭐. 혼자 왔다 돌아도 좋아 보이네. 하룻밤에 200명 정도 다 다녔으니 말 다했지 뭐. 혼자 왔다 돌아도 좋아 보이네.

WELCOME! WHITE DAY

술로들의 열렬한 지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파티 관계지는 '3월 달엔 더 뜨거운 화이트 데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라'고 말했다. 잘 들었어? 화이트 데이에 바로 이곳 앤써로 집합하는 거다. 게다가 화이트 데이에선 이번 파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사랑을 투척할 예정이라고 하니 생애 최고로 달달한 화이트 데이를 보낼 수 있을 거다. 자넬 시승기에서 색다른 다리를 뽐낸 에디터 YB도 데리고 갈테니 현장에서 그녀의 다리를 본 사람은 인증샷을 찍어 보내도록! 다른 사람의 다리를 찍다 번데로 오인 반라도 우리는 책임 없다.

술로들도 원 없이 초콜릿을 세례를 받은 날, '오, 마이 발렌타인!'

BY 김희정 PHOTOGRAPHS BY 정영순

COOPERATIONS CLUB ANSWER

escap
korea

MAXI HAPPY

ESCAPE KOREA

오갈 데 없는 술로들에게 초콜릿을 뿌려준 고미은 선생 파티 레이 블, 2010년 5월 클럽 엔씨에서의 첫 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1회의 파티를 성공리에 이끌어 이미 클라버들 사이에 입소문 이 났다. 국내외 유명 DJ를 만날 수 있는 파티를 수차 레 기획했고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다.



초대 EVENT

화이트 데이 파티에 당신을 초대한다!

그동안 파티 기사를 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 여기 하고 생각만 독자 많았을 거다. 그래서 MAXIM이 독자 100명에게 화이트 데이 파티 초대권을 완만하게 쓴다!

• 응모방법 •

'이름 신박치/파티에 참석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보내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거다. 단, 미성년자는 안 된다!

• 일시 및 장소 •

대망의 화이트 데이 파티는 3월 22일(토) 클럽 엔씨다. 3만 원 상당의 파티 초대권은 1인당 2개가 주어질 예정이다. 무려 6만 원을 세이브 하는 거네!

- 보낼 곳- 다음 중 편한 수단을 택하라.
1. 사이트: 옆의 QR코드를 스캔해 댓글을 읽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다.
 2. E-mail: 클럽 파티 담당자 (party@maximkorea.net)한테 메일로 보낸다.
 3. SMS: MAXIM 편집부 (010-5199-1121) 문자를 보낸다.
 4. 홈페이지: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파티 기사에 댓글을 쓴다.



초대권
받으러 가기

VALLENTINE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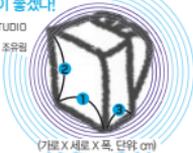
무궁 메달로 코팅된 나일론 소재가 낯익은 인상을 주는 요즘의 내부엔 17인치 백팩 프로도 쓰듯 들어갈 인 조 도끼를 형평하게 만든 노트북 수납 공간이 있다. 280,000원
인케이스406X58.4X17.8

Back to Back Pack

노트북과 새로 산 아이패드와 카메라, 내 친구 게임기, 아직까진 정성들여 쓰고 있는 노트와 다이어리, 새해 선물로 받은 만년필, 학교로 가져올 울길 새 학기 책, 날마다 큼 제멋대로인 기상청 예보를 무시한 3단 우산... 백팩이 좋겠다!

BY 고희재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 BY 장미연 ASSISTANTS 김희석, 주유민



(7백 X 세로 X 폭, 단위 cm)

- ① 돌출 밀려 있는 뒷부분이 수납공간을 늘려준다. 199,000원 티레벨 by 헤어하우스(32X46X27)
- ② 시트한 외관과 달리 빨간색 스트라이프 무늬로 마구마구 안감이 경쾌해 보인다. 159,000원 **하늘 by 아이린서플라이(28X53X15)**
- ③ 나일론 소재와 기법고, 작은 수납공간이 많아 소자음이 세워질 영역도 넓다. 100,000원대 **지프(38X50X8)**
- ④ 끈대기 없는 정직한 구조에 입구가 넓어 편리하다. 92,000원 에어워크(30X48X15)
- ⑤ 화색 캔버스 천과 어울리는 가죽끈 장식이 멋스럽다. 내부는 깔끔한 빨간색 배색용 무늬 139,000원 **하늘(25X50X13)**
- ⑥ 고정된 형태가 없어 용건을 넣는 데도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살짝 가능한 주머니도 있겠다 로 그그그를 칭찬하자. 395,000원 시스템들름(40X50X16)
- ⑦ 부들부들한 면 소재엔, 이번 여름 30세 대이 대하는 파란색 코주부 캐주얼 셔츠의 인기를 미리 실감하자. 가격 미정 **출하우스(37X49X13)**
- ⑧ 왼쪽을 배에 얹은 시대가 그려진 노트북을 싣다면, 이 백팩은 필수 아이템. 130,000원 **인케이스(28X47X19)**
- ⑨ 재질이 코지 않고 마른 사람에게 어울리는 제품으로 체크무늬와 입체감 있는 브라운이 귀엽다. 89,000원 **지프(38X40X12)**
- ⑩ 지퍼와 락백이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알면 스피킹은 로스터나 우산 등을 손에서 해 뽐시켜준다. 188,000원 **브라운브레스(28X46X15)**
- ⑪ 단순한 형태에 신뜻한 질감을 기어왔다니 꽤새로운 백팩으로 변신! 60,000원대 **노스페이스(23X44X10)**
- ⑫ 심상한 디자인에 공백을 넣어 빠름은 장식 없이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438,000원 **오로바비크(36X42X14)**
- ⑬ 입자재 분리되어 있는 모켓이 깔끔한 빨간색안경 똑똑한 매력은 뽐낸다. 178,000원 **강물(35X54X18)**
- ⑭ 양 끈으로 입구를 조이는 형식엔 지퍼로 여탈을 수 있는 앞 모켓이 있어 편리하다. 49,000원 **푸아(30X54X12)**
- ⑮ 가장 입구를 조이는 귀는 굵은 하-레-로 티프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158,000원 **샌투비스트 by 불꽃물(39X49X13)**
- ⑯ 윙윙 울릉 울릉 주는 주머니가 있어 가볍게 수납할 수 있는 소품을 넣기 좋다. 99,000원 **머플(30X45X12)**
- ⑰ 지퍼 여벌의 수납공간이 있는 정직한 사각 프레임으로 가장 속을 청결히 채워 넣어 준다. 298,000원 **만다린나워(29X38X17)**
- ⑱ 가넷이 등장할까를 생긴 가방의 지퍼를 열면 엄청난 공간이 펼쳐진다.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34X55X22)**
- ⑳ 백팩이 너무 캐주얼해서 망설였지만, 이 제품으로 당신의 여자를 실려라. 819,000원 **CK 캠프 클라린(35X50X14)**
- ㉑ 심상한 색상으로 통풍같은 울분 등산, 여행 시 모두 어울린다. 89,000원 **머플(35X51X10)**
- ㉒ 상당 부피가 밀려 있는 캔버스 천 보조 주머니, 내용물을 고정하는 바클 끈의 끈을 꿰둘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 쓴 배낭이 실용적이다. 148,000원 **브라운브레스(32X43X18)**



Man's Life

거칠지만 속내는 부드러운 남자, 가족을 닮았다.

BY 고정화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고정화 MAKE-UP 조희나 (베르사체 02-548-7787)

MODEL 송환서 ASSISTANTS 김희성, 조유원, 박한빛두리

최세 후드가 달린 가죽 재킷 199,000원 버커루
체크양니 셔츠 100,000원대 헤지스
허벅지에 큰 주머니가 있는 실용적인 바지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모래색 워커 가격 미정 힐버랜드

니트 배너 35,000원 브릭스톤 by 브라운브릭스
구멍이 송송 뚫린 조끼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카키색 셔츠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진정액 대님 288,000원 아베세
가죽 장갑 에디터 소장
컨버스 소재 하이탑 슈즈 179,000원 리코스테 by 린넨문





니트 비니 가격 미정 스포츠아일랜드
일교 부드러운 머플러 가격 미정 세미컬패니
귀동색 가죽 재킷 500,000원대 투쟁지터
남색 니트 100,000원대 본 거품코어
워싱 장바지 가격 미정 지브이투



남색 가죽 재킷 960,000원 시스텔음모
암 단추가 포인트인 티셔츠 100,000원대 콜럼비아코
화색 워싱 청바지 79,800원 에드윈
남색 운동화 47,000원 캔버스.

보라색과 검정색의 조화가 멋스러운 가죽 재킷
380,000원 라이플 by 웨어하우스
니트 120,000원 코디즈담바인
무릎 부분에 지퍼 장식과 가죽을 엮은 바지
315,000원 시스텔음르
이모두어 슈즈 150,000원 노스페이스
니트 소재 핑거리스 장갑
52,000원 브릭스 by 브라운브레스



어제에 가족을 땀땀 키키세 재킷
234,000원 특판드 by 헬러하우스
대납 최소 100,000원대 발송 전
반송료 타사초의 받드세 정해지
모두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낙타세 워터 가격 미정 탐버랜드



얇고 부드러운 회색 머플러 가격 미정 씨티컴퍼니
카드캡치 가족 재킷 780,000원 커스텀헬로우
줄무늬 니트 225,000원 시스템유르
회색 슬림 피트 청바지 925,000원 시스템유르
금색 무츠 가격 미정 카사



한 달에 한 번씩 길이란 대중 정리한 머리 스타일은 고딩이나 군바리 때의 짧은 병정머리보다 더 용서가 안 된다. 자, 여기 잘나가는 헤어 스타일리스트를 모셨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머리 스타일과 헤어 제품을 소개한다. 4개 중 아무거나 찍어도 지루하다 낯지 않겠어?

2011년 남자 헤어 트렌드

헤어 유행 디자이너의 권웨이 위 모델들을 커녕하러. 2011 SNS 트렌드는 복고주의로, 과거로 돌아가고픈 레트로 스타일과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비버드 컬러, 감성색 머리카락에 노란 빛깔을 지닌 당산이 무조건 따라했다. 간 개그 트렌드가 될 거다. 본인 머리카락 색보다 2~3톤 정도 밝은 색으로 바꾸고 본인아이를 리는 카머를 찾아 2:8을 시도해보자.

대한의 간에게 추천한다.

여자가 소켓을 시켜줄 때 '귀엽다'라는 단어를 곧이곧대로 듣는 영웅은 없었는지? 여자가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남자보다 다르듯, 남자끼리 서로 칭찬하는 지기라도 마찬가지.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오늘 스타일 죽이는데" 라고 말해봤자 여자한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오늘, 당신의 친구를 죽일 텐가. 여자를 죽일 텐가?

보통의 여성이 통하는 헤어 스타일:

너무 길지 않은 단디한 스타일. 대부분의 여자가 그렇고.

남성이 통하는 헤어 스타일:

가볍고 남성적인 스타일 또는 여자 화장보다 더 궁둥인 헤어 스타일. MAXIM은 세상 모든 이의 성취 취향을 존중합니다.

You R My Shy Boy

오, 오, 오 My Boy



- 1 적당한 웨이브 스타일. 미친 듯이 부끄러워는 건 라면만 용납할 수 있다.
- 2 부드러운 느낌의 비데칭 스타일. 대한민국은 한미 중...
- 3 특별한 이미지를 주는 단디 스타일. 친화의 정교숙도. 4차원을 벗어난 걸 보.
- 4 본인 머리카락 색보다 2~3톤 정도 밝은 컬러. 꼭 길색만 있는건 아냐.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쓰는 제품은?

1 탈모 방지 제품: 케라스타즈-아미복실 오일이 빠져나가기 전에 힘을 주고 모근에 영양을 준다. 피부 세포가 재생되고 활성화되는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녁 샴푸 후 미끈 두피에 스포이트를 이용해 도포하고 나무 브러시로 가볍게 마사지 하고 지면 끝!
6ml 1097 79,000원 / 4297 280,000원

2 트리트먼트: 하오니코-에코니코 태양 트리트먼트 아프리카에서 수백 년 전부터 영성의 나무라고 불리는 카리테 나무에서 추출한 세아버더는 뛰어난 보습력뿐 아니라 상처를 재생하는 효능이 있다. 이토끼 피부나 산양도 걱정 없다. 쓸 수 있다. 스킨 타일이나 비닐 캡으로 5~10분 정도 감싸면 더욱 효과적이다. 두피에는 최대한 문지르지 않게 조심하자.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200ml 49,000원

3 샴푸: 하오니코-에코니코 태양 샴푸 일천년 샴푸에 들어가는 화학성 계면 활성제를 빼고 천연 성분만의 계면 활성제를 넣었다. 두피가 민감한 사람도 구석구석 사용해도 안전

하다. 샴푸 시 모발 속으로 실크 단백질이 침투해 심하게 엉킨 모발도 부드럽게 빗질하기 가능케 한다. 샴푸는 머리 전체에 물기가 골고루 묻어 있어야 거품이 잘 난다. 골고름해 씻은 다음 더 꼼꼼히 헹구자.
300ml 49,000원

4 대일리 트리트먼트: 케라스타즈-시몽양피유저 사용감이 무겁지 않아서 매일 사용하기 좋다. 손상된 모발도 효과적으로 관리해 한결 윤기 나는 머리로 만들어준다. 시트러스 향이 싱콤하다. 두피는 피해서 바르자.
200ml 45,000원

5 왁스: 일본-프레즐 왁스7 부드럽게 발리면서 뛰어난 고정력을 자랑한다. 손가락 한 마디보다 적은 양을 손바닥에 덜어 골고루 바비자.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카락 전체를 덜 듯이 바른 후 원하는 스타일을 만든다. 손바닥에 남은 왁스로 구레나룻과 뒷머리를 정리하자. 짐들이 전 샴푸로 깨끗이 헹구는 건 기본인 거 같아?
90g 30,000원

두피 마사지

혼자서도 잘해요

-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재질이나 쿠션이 행방한 브러시로 가볍게 두드린다. (단, 자성 두피는 금기. 파지가 과도하게 분비할 수도 있다.)
- 손끝으로 3초간 꼭 누른 후 2초에 걸쳐 서서히 힘을 빼듯이 고무 마시자한다. (길게 지란 손톱으로 눌렀다간 피한다. 손가락 끝 지문을 사용하면는 느낌으로 머리 전체 혈정을 눌러주자.)



헤어 스타일리스트
고준영 원장님?

- 베데스다 창립 회장
- 전 이엘에이커가 창립 본점 부장님
- CF: 99일레프, 포유티남치, 단킨도넛, 비너스, 용진식품 CF 헤어 담당
- 드라마: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신부인과, 자이언트, 삼공스캔들 등 헤어 담당
- 1997~2009년 담양 연예인 이경재, 지진희, 최강희, 고주원, 주필리, 이현우, 장나리, SSSD, 예뻐야스, 서영은, 마이, 이재원, 이기영 등
- 캠퍼스 유대 크리스찬 디올 패셔너, 르네 웨르데 헤어쇼, SFAA & SEOUL COLLECTION 헤어 담당
- TV 출연: 동아TV (도전 스타맨 3기)한미 협회, KBS (아침마당), (스콘라), (세상의 아침), (우먼시대), SBS (여인전사), MBC (뉴스투데이)
- 수상 경력: 프레스 로열티 칼리트로피 파이널리스트, 프레스 세터에 대해 컷트 부문 동상 수상, 해베, 아직 더 있지만 여기서 그만

베데스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2-6
아트 빌딩 2층 02-548-7787



BY 곁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S 박현빛·두리·조유림
COOPERATIONS 케라스타즈(080-099-5000) 리오나크르의 일본은 슌에서인 구입 가능(베트남) 02-548-7787

초간단 신발끈 묶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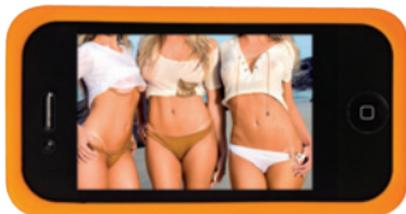
운동화 한 짚레를 다섯 짚레처럼 활용하는 법. 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넣고 빠가면 반복하면 된다.

BY 김희정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 BY 괴윤희, X-BERRY

COOPERATIONS

플레이헬로 아이슈즈(02-380-3440, www.playhello.com), 에이비씨비티(080-701-7770)



1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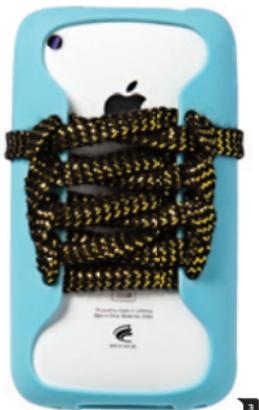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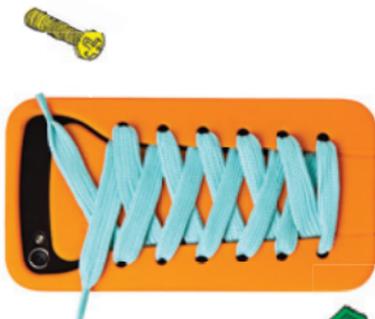
4



아이슈즈 실리곤 케이스
받으러 가기



1



3



4

▷ 특이한 신발끈을 시려면

남들과 똑같은 끈으로 운동화를 장식하는 게 절대 용납되지 않나? 하지만 뒤는 신발끈을 구하려고 하면 생각만큼 찾기 어렵다. 에디터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본 결과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ABC마트'가 그나마 가장 많은 수의 끈을 보유하고 있었다. 물방울무늬, 뱀목이, 체크무늬, 당신이 알고 있는 무늬는 다 있을거다.

▷ 아이슈츠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에서 'shoes4'를 검색하면 다양한 매듭법이 나와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앞사람 발뒤꿈치 차다보는 시간에 이 앱으로 간단하게는 신발을 완성시켜 보자. 동굴길, 출근길마다 다른 방식으로 묶어주면 당신도 운동화 간지남!

▷ 케이스가 탐나나?

그렇다면 왼쪽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라. 초간지짐 '플레이엘로 아이슈츠 실리콘 케이스'를 쓴다. 방식은 간단하다. 이 케이스를 가지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 남겨라. 단, 댓글을 달 땀 자신이 아이폰 3G 사용자인지 아이폰 4 사용자인지도 밝혀라. 에디터 마음에 드는 댓글을 골라 아이슈츠 케이스를 보내줄거다(색상 랜덤 발송). 뭐하네 빨리 스캔하지 말고.

플레이엘로 아이슈츠 실리콘 케이스 아이폰 3GS용은 14,000원, 아이폰 4용은 21,000원
빨간색 체크무늬 신발끈 ABC 마트 2,000원
금색으로 장식된 장정색 신발끈
반바이는 금색 신발끈과 은색 신발끈
모두 ABC 마트 각 3,000원

1 일방통행

1. 끈을 '밖에서 안으로' 넣은 다음 한 쪽은 안에서 매듭 처리한다.
2. 길게 뻗은 끈을 그림처럼 '넣었다 뺐다' 한다. 반복.

2 바둑판 패턴

1. 아까 묶어뒀던 일방통행 끈 구멍에 시작한다.
2. 색깔이 다른 끈을 준비해 '위. 아래. 위. 아래'를 번갈아가며 끈을 통과시킨다. 반복.

3 사다리

1. 양쪽 길이를 동일하게 한 다음 '안에서 밖으로' 끈을 뻗 후 바로 위 구멍에 '밖에서 안으로' 넣는다.
2. 끈을 서로 교차시켜 양 옆에 생긴 끈 사이를 통과시킨다. 리플레아~ 리플레아~ 리플레아~

4 스코루바

1. 양쪽 끈을 각각 안에서 매듭처리 후 '밖으로' 뻗는다.
2. 양쪽 끈을 교차시켜 '안에서 밖으로' 뻗는다. 반복.



키 작은 남자의 옷 입는 법

이 기사를 끝까지 읽고 나면 지금껏 잘못했던 의존했다는 사실이 무척 억울할 거다.

이제야 알려줘서 미안하다. by 권희성

* 참고로 아래에 언급된 배우들의 키는 3~5cm(혹은 그 이상) 부족한 프로필상 키일 뿐이다. 예를 들면 이병헌 프로파일은 키가 177cm라고 적혀있다.

마이 네이츠
툼 크루즈

**가미줄
걸 것임**
툼 크루즈
프로필상 키: 170cm
천하의 톰 크루즈도
(프로필상 키가) 170cm
이러니. 웬지 호랑이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
나지 않나. 톰 크루즈
는 같은 계통의 색인
남색과 검정색으로 잘
맞춤을 했다.

GOOD

자만
할 스스

다니엘 래드클리프
프로필상 키: 170cm
키가 작을수록 자신한테 잘 맞는 옷을 입어야 더 길어 보인다. 꼭 끼는 옷을 입으라는 소리는 아니니 오해 하지 마라. 이빠 옷 흘러 입은 것 같은 어중간한 사이즈의 옷은 빈티 나보일 수도 있으니 피하려는 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지 밑단의 길이다. 남아도는 길이의 바지나 복숭아배가 보이는 10부 바지는 당산과 어울리지 않는다. 바지 밑단을 잡아 입는 것이 아무리 유행이라지만 시도하지 말자. 짧아 보인다. 프로파일상 170cm인 마법사 해리포터는 "실제 키는 166cm다. 이제 내 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마법사니까 5cm 키우는 건 겸이겠지.

GOOD

GOOD

튀는 넥타이
일라이저 우드
프로필상 키: 168cm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원지의 제왕)에 나온 호빗족 '프로도'가 바로 이 사람이다. 키 큰 남자로 보이고 싶다면 당신을 올려다 보게 하라. 상의 자체가 튀거나 상의에 튀는 포인트를 주면 된다.

원칙 안 이마
토비 맥과이어
프로필상 키: 173cm
이마를 활히 들어내는 28은 시원한 인상을 줘서 키를 커 보이게 한다. 부담스럽다면 머리카락을 짧게 해주면 된다. 키를 측정하는 가구는 매정하게 도넛이 세운 머리카락을 키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사람 눈은 다른거든.



잭 블랙이 사는 법

키가 작아도 늘씬하면 옷감이 잘 받는다. 그런데 왜 키 작고 뚱뚱한 몸뚱이리의 소유자 잭 블랙에게 여자들은 열광할까? 그의 미친 존재감을 배우자.

사실 이리나저리... 그래도 패션의 완성은 잘난 화공 아니면 잘 빠진 몸이다. 아무리 길바닥 웃음 입어도 잘생기고 기르기 긴 뚱뚱한데는 도저히 이길 재능이 없다. 그러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빼앗아 오느냐. 조종 활자처럼 굴어보자. 누군가 카메라를 꺼내면 열거적인 표정과 포즈로 틀어대자. 여는 옷 잘 입는 남자만큼 재능은 남자를 좋아하지만 남자친구일수록까지 생각할진 모르겠다. 옷긴 사진인물용 미니홈피 스크랩수가 높아진다. 파리몽땅한 당신도 무렵님이 될 수 있다!

내 개성이야
이런해



카미오
걸 그룹

제임스 맥어보이 / 프로필상 카: 170cm

윗도리와 아랫도리, 신발을 같은 색으로 통일하면 같~어 보인다. 키가 커 보이고 싶은 여자들이 감성적 스타킹에 감성적 하이힐을 신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제임스 맥어보이는 아예 온 전체를 죄다 감성적으로 고르고 마라까지 세웠다!

GOOD



GOOD

비즈니스 상의와 짙은 색 재킷

조용하고 미술 시간에 밝은 색은 명상색 어두운 색은 수축색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니? 셔츠는 밝은 색으로 입고 아우터를 짙은 색으로 코디하면 상의를 세로로 수축시켜 당신을 더 길고 날씬해 보이도록 만들어 준다. 이기가 말로 평 먹고 말 먹거다.

MAXIM 스타일 병원

친절한 MAXIM 패션 에디터가 더욱 친철하게 당신의 스타일링을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MAXIM 스타일 병원. 해치기 안아요.



스타일 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남들 사냥을 찍어 올리는 소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한테 맞는 코디와 헤어스타일 좀 알려 달라. 잡지 만드느라 고생할데다만 나한테도 신경 좀 써 달라. 야. 참고로 내 얼굴은 구멍처럼 사진에서는 말이 어떻게 나왔다. -kessoz

▲ 당신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서 상의를 제외한 진짜 이유가 뭐가? 혹시 에디터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 굿이 벗은 몸까지 보여 보자. 나. 사진 상으로 이성과 아주 약간 다른 것 같다. 실제와 싱크로율이 얼마나 맞아 떨어졌진 모르겠지만... 이성과 스타일링을 논여겨 본 적 있어? 대부분은 여자는 그런 스타일링을 좋아한다. 요란번사하게 웃을 났 스타일링은 미끈하다. 같이 다닐 때 팔찌 지갑을 땀도 팔꿈치까지 세게 가질 좋다. 생지 대담이나 맨해튼 서츠를 입어보자. 자. 그럼 머리로 넘어가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조사 할 수 없도록 왼쪽으로 머구 쏘아 넣긴 단순하지만 머리는 왼쪽으로 정리하지 않는 한 답답해 보인다. 대형 이머브 3월호 125쪽 보면 2011년 헤어 트렌드를 추천해줬으니 참고하자. 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카를 찍은 쪽은 뽀아도 보이던 지구가 열렸다고 믿는 사람처럼 머리카로써 이마를 은총 덮는 것 보자. 활활하게 까시 올리는 게 더 당당해보이고 키도 커 보인다. 살짝 밝은 톤으로 염색하는 것도 좋다. 에디터의 조언대로 했다니. 여자가 마구 꼬인다 싶으면 인종성 보랴네이름 돈을 부치던가.

한 번이라도 거쳐 가면 누구나 간짜님이 된다는 MAXIM 스타일 병원이 문을 열었다.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라도 물어봐라. 거창한 고민도, 사소한 고민도 대환영이다. 패션 에디터가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이 얼굴, 이 몸매에 어떤 헤어 스타일이나 옷이 잘 어울릴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아예 사진을 찍어 보나라.

보낼 곳은 alice@maximkorea.net이다. 그럼 당신의 고민만은 빠지도록 기다려겠다.



STYLE

MAXIM
BUSINESS

Shoes for Man

BY 고정배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S 김희성, 조유림
COOPERATION 소다 율무
(02-546-7764)

여자들은 구두에 환장한다. 자기 구두뿐만 아니라 타인 특히 이성의 구두에도 눈길을 보낸다. 구두는 당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활동력, 센스를 보여주는 최고의 패션 아이템이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 꽃사슴 여직원의 눈길을 확 사로잡을 구두는 어떤 것일까? 독특하면서도 세련되어 오래 신어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에, 배행 티 딱딱 나는 요란한 광택은 없어도 깔끔한 기기에 편안함까지 갖추면 금상첨화. 어려워 말고 일단 MAXIMO 골라놓은 구두부터 참조하라. 그리고 구두의 디자인만큼 중요한 것이 양말과 구두의 조화. 구두만큼 양말도 까다롭게 고르자.

500,000원대 소다 율무 아가일 무늬 양말은 3개 묶음에 12,000원 유니클로

HOT LIKE SUMMER? HOTTER THAN SUMMER!

MAXIM
BRAZIL

세상에는 뜨거운 나라가 있다. 뜨거운 여자, 뜨거운 엉덩이.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유두를 공개할 수 없었던) 뜨거운 가슴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줄여 브라질이라고 부른다. 브라. 나라 이름 한 글자, 한 글자가 주옥같지 않나? 브라와 질. 실로 신묘한 조합이로다! 이제 눈동자 굴러가며 침 흘리며 브라질 MAXIM 편집부에서 보내온 스페셜 비키니 화보를 감상하라.

MAXIM PHOTOGRAPHS BY ADAM WATSON / Maxim Brazil







VIVA BRAZIL!





브라질은 현재 최고 기온이 28~29°C 정도로 덥다. 아스팔트가 달아오르는 계절, 뜨거운 것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고양이처럼 덤벼는 색사한 브라질 모델 3인이 비카니와 토크리스 누드로 무장한 채 해변을 참공했다. 페르난다 소나르지에, 줄리아나 로페스, 마리아 네메스 여름의 여사들이 온다. 아마 지옥으로 떨어질 말도 자만 가끔 외치고 싶다. 갓 블레스 지구온난화.

MARINA NEVES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난 키 170cm의 모델이자 스포츠, 특히 서핑을 사랑하는 건강 미녀 마리아 네메스. 그녀는 낙하산 점프와 서핑으로 주말을 보낸다. 도심 지역에서 커다란 오토바이를 타고 누비며 교통 정체를 아끼고 다른 차의 깜빡이가 보이면 수많은 원고 세례를 받는다. 과체 밀라, 멕시코, 미국 미아메이 등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수많은 패션 매거진의 커버와 화보, 광고를 장식하다가 브라질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자신의 체육관을 열 예정이다. 몸과 마음을 쉼 쉼 쿠우라는 소년과 청년들이 아프리카 메뚜기 떼마냥 물러올 거다.

JULIANA LOPES

줄리아나 로페스는 춤추는 걸 무척 좋아한다. "슈퍼모델이 되려면 강한 스테미너와 유연한 허리가 필요하니까요" 클럽에서 흐르는 신나는 일렉트로 음악에 맞춰 이 멋진 몸매를 흔들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든다. 실외라기 걸치지 않고 말이고, 로페스가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얼굴이다. 젠장.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말자. 그녀는 로맨스와 헌신 존중이 연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갖춘 남자가 얼굴 잘생긴 남자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 알지?

FERNANDA SCHONARDIE

브라질 남쪽 항구 도시 하우그린지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모델로 성장한 비람직한 여성 페르난다 소나르지에. 그녀는 키 168cm에 몸무게 50kg, 둘레 92cm의 축복이 깃든 가슴, 그리고 개미허리를 가졌다. 여7까지 들으니 더 이상 특별히 궁극할 게 없다.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남자를 원하냐? "성세하고 감각적이고 재미있고 활기찬 남자" 아허, 이거 뭐 나를 그토록 원한다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브라질로 이란을 가야겠네. 조금만 기다려, 차차! 목공 기술이라도 좀 익혀서 가슴 이란 갈게.







BIKINI HEAVEN





SEXY!



MAXIM BUYER'S EDGE



보스 블랙 맨, 멜리노 (Melino) 백 출시

성공하는 이들을 위한 유리피린 감성의 독일 명품 브랜드 보스 블랙 맨(BOSS Black Men)이 세련된 감성의 멜리노(Melino) 백을 새롭게 출시한다. 시드니를 배경으로 일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줄 아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세련된 패션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2-43-7685

닉스 워치, CHRONICEL SS 컬렉션

2011년 새롭게 선보이는 CHRONICEL SS는 48mm의 와이드한 케이스가 눈길을 끄는 제품으로, 인테스의 숫자를 배제해 한층 심플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원목의 크라운과 블랙 렌즈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날 재질이 닉스 워치의 세련된 감성을 돋보이게 한다. 가격 A198000~00 578,000원 A198632~00 674,000원 문의 02-3284-1300



노스페이스, 오리지널 백팩 출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NORTH FACE)'는 2011년을 맞아 트렌디한 계층을 상류층 클래스의 오리지널 백팩을 출시했다. 생동감 있는 컬러로 배색되어 컬러별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사용한 리사이클링 가죽은 디테일을 실려 노스페이스만의 클래식함과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가격 6만원/문의 02-940-1330



현대백화점 창사 40주년, NE-YO 내한공연

현대백화점이 2011년 창사 40주년을 맞이하여 친제 싱어송라이터 NEO의 내한공연을 진행한다. 3월 3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최고의 R&B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 NEO는 2007년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미국 앨범 발매 10주 만에 백만 장 판매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얻은 가수다. 가격 VIP 15만 원, S 12만 원, A 6만 원 문의 인터넷 6544-5555

푸마, 스니커즈 신고 스타일을 즐기자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푸마(PUMA)가 올해 선보인 RS100 스니커즈는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RS100은 빈티지 스타일 슈즈로 심플한 라인에 화려한 네온컬러를 조화시켜 산뜻하고 트렌디한 컬러감이 돋보인다. 특히 아웃솔의 반경 모양 패턴은 독특한 워킹 섀도와 대미를 이루며 독특한 풋을 완성해주는 포인트다. 가격 94,000원/ 문의 www.puma.co.kr



허셜의 컨버스 백팩 헤리 헤리티지

헤리에서 생김새의 조인성 백팩 2가지는 아 니다라도 전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쳐다보게 만들 허셜(HERSCHEL)의 컨버스 백팩 헤리(HERITAGE)는 든든한 실용성과 디자인을 고루 겸비했다. 가방 내부는 수납공간이 넉넉해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도 않을 진공 책이지만 여러 권 넣고 다니다도 무리가 없다. 가격 99,000원/ 문의 070-8251-4721 www.iconsupplystore.com



몬트레이, '플루이드포스트' 라인 출시

남자다움을 대표하는 추성훈도 뛰다가 발목이 아팠을 땐 눈물이 났다. '몬트레이(Montreal)' 이 발목 관절 현상을 방지해주는 '플루이드포스트(Fluid Post)' 기술을 적용한 트레일 러닝용 신발을 출시했다. 아까가 시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가벼움과 쿠션감은 등산을 진행한 아웃도어맨으로 변신하게 할 아웃도어이다. 가격 155,000원/ 문의 02-6908-0208



질 샌더, JS653SK 출시

윤리스 조교들이나 쓸 듯한 김홍국 표 스크린스는 이제 벗어버리자.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인 질 샌더의 JS653SK 모델은 심플한 보잉에 고급스러운 스크래치 우드 노크의 표면 처리와 이에 대비되는 템플의 미려 로고로, 당상을 비로 만들어주는 못하지만 이진모는 확실히 다른 것처럼 내뿜게 할 아템이다. 가격 386,000원/ 문의 1599-3076



올림푸스, 하이브리드 카메라 신 모델 출시

하이브리드 카메라의 원조 올림푸스에서 SNS 트렌드를 반영한 PEN E-PL2 모델을 출시했다. E-PL2는 사진용 스마트폰으로 바로 진상할 수 있는 PENPAL(펜팔) 기능과 한층 뛰어난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눈동자 인식 AF를 적용해 하이브리드 카메라의 진화를 보였다. 가격 799,000원/ 문의 02-1544-3200



수석무역, 피아니시모로 화이트데이 제안



종합 주류 회사인 수석무역에서 화이트데이에 연인들이 즐길 만한 와인인 피아니시모(Pianissimo)를 추천한다. 열대과일의 기분 좋은 달콤함과 향긋한 사과 향이 조화를 이루는 화이트 와인으로 발랄하고 생동감 있게 기쁨을 연출해준다. 가격 33,000원/ 문의 02-3014-2086

활동적인 당신을 위한 애니모드

격렬한 움직임도 뛰다가 주머니에서 플레이어가 튀어나와 떨어진다? 휴대폰에 난 스크래치도, 깨져버린 액정도 떨어지는 눈물도 고칠 수 없다. 활동적인 유저에게 꼭 필요한 갤럭시 플레이어 전용 패시브 액션는 이동이나 운동 시 음악 감상을 하는 갤럭시 플레이어 유저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이번 갤럭시 플레이어를 가지고도 헤드폰을 들 수 있다. 스탠더드 가격 39,000원/ 문의 02-6711-3686 www.anymode.net



에어워크, 트랜스포머 맨즈 멀티백

봄, 남자의 연식이 필요한 계절이다. 에어워크에서 출시한 트랜스포머 맨즈 멀티백은 세 가지 스타일인 빅 백, 슬더백, 핸드캐리백으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PU 원단과 나일론 소재로 내구성을 높였으며 기기의 안전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트랜스포머 맨즈 멀티백은 블랙, 그레이의 2 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문의 www.airwalk.co.kr



마일드세븐 오리지널 8mg 출시

마일드세븐 브랜드 최초의 제품인 마일드세븐 오리지널 8mg이 드디어 국내에서도 선보인다. 풍부한 향과 맛에 부드러운까지 갖춘 오리지널은 1975년 출시 이래 해외에서 30년 동안 판매되어 슈퍼 스타디살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품이다. 기존 제품군인 마일드세븐 나이트 8mg, 슈퍼라이트 3mg, 원(m)과 이번 오리지널 제품이 더해져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가격 2,500원/ 문의 080-777-7727

로지텍의 레이싱 휠, G27!

(시크리 거든) 속 감주원의 거실에 비치되어 있던 건지 나는 레이싱 휠을 기억하는가? 최고의 레이싱 게임 '그린 투리스모 5'와 항상 곁을 지탱하는 '모터제 레이싱 휠 G27'은 듀얼 모터 포스 피드백 기능과 6단 변속 시프트를 채택해 쾌속 질주는 물론, 자감이 많은 커브에서 미끄러질 때조차 세계 최대 규모의 서킷을 한층 더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가격 46만 원/ 문의 02-7611-1207



엔씨소프트 아이온, 기타 출시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아이온이 기타로 들어온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게임인 아이온의 엔씨소프트와 삼원기가 손잡아 감각적인 디자인의 기타가 탄생했다. 자신만의 개성에 맞게 스타일링한 디자인 콘셉트가 특징이다. 4셀 독일 유직 메세 에시 처음 선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 기타면 이번 (슈스케 3) TOP 100에 들어가게 무리가 없다. 문의 aion.plaync.co.kr



아수스, U36Jc 예약 판매

아수스코리아가 지난 1월 발표한 2011년형 나노 슬림 노트북 U36Jc의 100대 한정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나노 코팅의 최첨단 슬림 방법을 사용해 1.4kg의 무게에 19mm 나노 슬림을 구현함과 동시에 코어 5.480을 CPU로 탑재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예약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kr.asus.com



반스, 워프드 투어 캠페인 이벤트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반스가 오는 5월 25일 까지 지상 최대 록 페스티벌 '2011 반스 워프드 투어 캠페인' 참가자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반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응모권을 증정. 9월 7일과 세계적 뮤지션들의 록 공연인공과 미국 서부의 지역 자유 여행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www.vanskorea.com

안경 브랜드 보슬레이의 254 시리즈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보슬레이(BEASU-SOLEIL)에서는 2011년 봄, 레드와 핑크 두 톤으로 구성된 신티한 컬러의 254 시리즈 안경을 출시한다. 투명한 아세이트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정교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한다. 올 봄에는 모노톤의 차려함을 벗고 두 톤 안경으로 화사한 봄을 맞이해보자. 문의 02-777-0241



화이트 데이 향수, 씨 몰리타

글로벌 향수 브랜드 몰리타 엠피카가 3월 화이트 데이를 맞이하여, 씨 몰리타(Ci Lolita) 오드 퍼퓸을 추천한다. 4개의 골드 컬러 하트도 이루어진 향수를 상징하는 네 일 글로벌 모양의 용기와 핑크 베리의 록 노트와 결합된 시트러스 향이 화이트 데이 선물의 특별함을 보장할 것이다. 가격 66,000원 / 문의 080-023-6544 www.lolitalempicka.co.kr



극한의 아웃도어 워치, 루미녹스 3081 블랙아웃

루미녹스의 제품들은 실제 미 해군 및 공군 작전에 투입되었을 정도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특히 유용하다. 루미녹스 3081 블랙아웃은 탄소 강화 폴리머 케이스와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실용성이 우수하다. 또 시침, 분침, 그리고 숫자가 모두 검은색이지만 아찔하게 쉽게 시간을 가늠할 수 있도록 밝은 피란색과 오렌지 트리플 가스 튜브의 빛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낸다. 가격 538,000원 / 문의 02-757-9866 www.milmmatch.co.kr

스타크래프트 II 사용자 지정 게임, 베타 버전 공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스타크래프트 2의 새로운 날개의 사용자 지정 게임 3개의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아이어 요리사, 빨간 보석, 사자의 시루 총 3가지 게임의 베타 버전은 전략 게임이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되었다. 블리자드는 이번 사용자 지정 게임의 베타 버전을 통해 한국 유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추후 정식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02-6370-8034

볼보 S80 D5, 대형 수입 디젤 세단 부문 3년 연속 판매 1위

볼보 S80의 프리미엄 디젤 모델인 볼보 S80 D5는 3년 연속 프리미엄 대형 수입 디젤 세단 부문에 올랐다. 볼보 S80 D5는 리터당 13.3km라는 높은 연비와 200마력 및 42.8 kg·m의 파워풀한 토크를 뽐낸다. 가격 5,710만 원(VAT 포함) / 문의 02-3781-3862



코젤 프리미엄 국내 출시

유럽 맥주의 본고장 체코의 정취를 드디어 국내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한 모금 삼킬 때 부드러운 맥아와 강렬한 홉이 동시에 느껴지며 특 쓰는 청량감이 특장인 체코 대표 맥주 코젤 프리미엄은 알코올 도수 4.8%이며 500ml로 출시된다. 가격 미정



소니코리아, 바이오 YB 시리즈 출시

바이오 YB 시리즈(VPCYB16KK)는 날씬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넷북의 편리성과 데스크톱 PC의 기능성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적합한 콤팩트 모바일 PC로, 특히 HD 콘텐츠 재생 능력이 뛰어난 유튜브 등을 활용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이들에게 유용하다. 가격 799,000원/문의 080-777-2000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밀러 라이트

다이어트는 해야겠는데 야식의 최고봉 치맥의 유혹은 당시의 성욕만큼이나 강렬하다. 밀러 라이트에서 출시하는 프란김이 달한 저칼로리 맥주인 밀러 라이트는 낮은 설탕, 박지성 경기를 보여 마셔도 부담이 크지 않다. 207ml 미니 병맥주와 237ml 미니 캔맥주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가격 미정

울젠, 2011 SS '액티브 캐주얼 점퍼' 출시

봄의 생동감과 활력을 세련된 감성으로 재해석한 울젠(ULZEN)의 캐주얼 점퍼는 밝고 경쾌한 레드와 네이비 컬러 2가지로 선보인다. 캐주얼한 데님 팬츠나 배지시한 차는 팬츠에 잘 어울려 다양한 스타일로 매치가 가능하다. 문의 02-514-9006



'월드디즈니 주얼리', 화려한 스타일의 커플링 제안!

기존의 유행 있는 '월드디즈니 주얼리' 커플링과 차별화한 이 새로운 커플링 세트는 화려한 기교가 매력적인 제품이다. 여성 링에는 큐빅을 촘촘히 세팅해 빛의 반사를 최대화했고, 남성 링에는 은은한 광택을 내기 위해 포인팅 큐빅을 세팅 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가격 남 109,000원, 여 119,000원/ 문의 02-2103-4487



DOCTOR ZHIVAGO A NEW MUSICAL



오디뮤지컬 컴퍼니, <닥터지바고>로 해외 진출

오디뮤지컬 컴퍼니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2011년을 해외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2월 9일 호주 시드니 리릭 씨어터에서 그 첫 뮤지컬인 닥터 지바고(DOCTOR ZHIVAGO, A NEW MUSICAL)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멜버른, 아사히마루 공연을 거쳐 한국으로 입성 할 예정이다. 생애를 지켜본다고 한국 공연도 평가받는다.

미니힐, 티셔츠 증정 이벤트 진행

영 캐주얼 SPA 브랜드 미니힐에서는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미니힐 로고 티셔츠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몬으로 재공하는 티셔츠는 선착순 60명에 한해서이므로 그를 위한 화이팅데이 선물로 실 예뻐야만 선물로, 캐주얼과 캐주얼 리얼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미니힐은 전국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6-5611/ www.minihill.co.kr



컨버스, 슈즈 그래픽 후드 티셔츠 출시

컨버스에서 올 봄 트렌드인 비비드 컬러를 반영한 후드 티셔츠를 출시한다. 컨버스의 오리지널 아이콘 척 테일러 슈즈 그래픽이 포인트이며, 오렌지, 네이비, 화이트 3가지 색으로 구성된다. 남성, 여성 사이즈로 출시되며 화이팅데이 선물로도 좋은 아이템이다. www.conversekorea.com



MARCH 2011

MAXIM

정기 구독 신청 방법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주식회사 와이미디어)

MAXIM KOREA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p>6 개월 정기구독</p> <p>정가 32,400원</p> <p>할인가 29,400원</p> <p>3천원 할인 + 1000원 적립</p>	<p>12 개월 정기구독</p> <p>정가 64,800원</p> <p>할인가 57,800원</p> <p>7천원 할인 + 2000원 적립</p>	<p>24 개월 정기구독</p> <p>정가 129,600원</p> <p>할인가 114,600원</p> <p>1만5천원 할인 + 4000원 적립</p>	<p>36 개월 정기구독</p> <p>정가 194,400원</p> <p>할인가 164,400원</p> <p>3만원 할인 + 6000원 적립</p>	<p>48 개월 정기구독</p> <p>정가 259,200원</p> <p>할인가 209,200원</p> <p>5만원 할인 + 8000원 적립</p>
---	--	--	--	--

*'MAX' 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원=1원)

하나은행 569-91012-00904 국민은행 186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8 SC제일은행 117-20-22316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은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나, 끊임없이 새 선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바빠 지금 현재 사은품의 사은품을 확인하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WALKING DEAD

FX, 좀비떼를 몰고오다



FX

남자의 모든 것

3월 2일(수) 첫방송 / 매주 수·목 밤 12시



FX 채널 만들고
다운로드 받기

tcast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1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글로벌 남성채널

MAXIM

KOREA

ICON **김동현**

이유를 알 수 없는 출혈
BLOOD FANTASTIC

MAXIM SPORTS

2011

프로야구 전망
챔스리그 16강 예언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온라인 게임
3대천왕 성적표

◆ TERA
◆ WOW
◆ AION

2011 GRAMMY
AWARDS

MARCH 2011



www.maximkorea.net

MAXIM
BRAZIL의
BIKINI 폭탄

메이드 Cafe &
페티시 Club

MAXIM STYLE

작은 키 완전 정복
봄의 남자는 가죽!
트렌디한 헤어스타일

3 ROCK
BANDS
GATHERING

국카스텐
더 문사이너스
타바코쥬스

피카피카부
JQT